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2012. 12.

고용조사분석센터

〈 목 차 〉

제1장 머리말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13차 조사의 개요	12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12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14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4
2. 설문 내용	15
제3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6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	16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21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24
1. 응답 가구의 특성	24
2. 조사성공가구의원의 특성	27
제5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31
1. 이사가구의 특성	31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32
3. 비성공가구의 특성	33
제6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36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36
2. 2차~12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37
3. 13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38
4.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40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42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42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47
1. 가구주의 특성	47
2. 가구원의 특성	48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50

제4장 가계경제	53
제1절 가구소득	54
1. 가구의 총소득	55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56
제2절 가구지출	57
1. 생활비	58
2. 저 축	61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62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64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65
2. 주택의 종류	69
제4절 자산 및 부채	70
1. 부동산자산	70
2. 금융자산	72
3. 가구의 부채	74
제5절 자녀 교육비	75
 제5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78
제1절 경제활동상태	78
제2절 취업자의 특성	82
제3절 미취업자	88
1. 구직활동	88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90
 제6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93
제1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93
제2절 근로시간	98
1. 평균 근로시간	98
2. 초과근로시간	102

제3절 임 금	103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103
2. 월평균 임금	106
제4절 비정규직 근로자	110
1. 비정규직의 규모	111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113
제7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115
제1절 종사상 지위	116
제2절 근로시간	119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119
2. 주당 근로시간	120
제3절 근로소득	125
제4절 사업체의 창업	129
제8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131

〈 표 목 차 〉

〈표 2-1〉 1~13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3
〈표 2-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4
〈표 2-3〉 2009년 설문 변동 내용	16
〈표 2-4〉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18
〈표 2-5〉 각 연도별 대리응답 분포	19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19
〈표 2-7〉 시기별 · 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 원가구	20
〈표 2-8〉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22
〈표 2-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23
〈표 2-10〉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24
〈표 2-11〉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27
〈표 2-12〉 조사성공가구원의 개인 특성	28
〈표 2-13〉 이사가구 분포	31
〈표 2-1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32
〈표 2-15〉 성공가구 및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35
〈표 2-16〉 각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 횟수	35
〈표 2-17〉 KLIPS 가중치의 사례 수	41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43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44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46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 · 연령별 · 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48
〈표 3-5〉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49
〈표 3-6〉 출생자의 특성	50
〈표 3-7〉 사망자의 특성	51
〈표 3-8〉 사망자의 사망원인	52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	56
〈표 4-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 소득	56
〈표 4-3〉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59

〈표 4-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60
〈표 4-5〉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61
〈표 4-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63
〈표 4-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64
〈표 4-8〉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66
〈표 4-9〉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69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71
〈표 4-11〉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72
〈표 4-12〉 부채 잔액 분포	75
〈표 4-13〉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76
〈표 4-14〉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77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79
〈표 5-2〉 경제활동상태 비교	80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83
〈표 5-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83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84
〈표 5-6〉 경찰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85
〈표 5-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86
〈표 5-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87
〈표 5-9〉 특성별 구직방법	89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92
〈표 6-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94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96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99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	100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1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1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103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	104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105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106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107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108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109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111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116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117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118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120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122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23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124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	125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	126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127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128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129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130
〈표 8-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32
〈표 8-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34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35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138

〈 그림 목 차 〉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25
[그림 2-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29
[그림 2-3]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수 추이	30
[그림 2-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33
[그림 2-5] 13차년도 비성공가구의 비성공사유	34
[그림 3-1] 13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45
[그림 4-1] 각 소득별 비교	57
[그림 4-2] 13차년도 주요항목별 생활비	60
[그림 4-3]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62
[그림 4-4]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66
[그림 4-5] 거주지별 전세거주자 임대보증금	67
[그림 4-6] 거주지별 월세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68
[그림 4-7]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71
[그림 4-8]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	73
[그림 5-1] 최근 8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81
[그림 5-2] 최근 8년간 실업률 비교	82
[그림 5-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88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91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95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95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112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114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121

제 1 장

머리말

본 보고서¹⁾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제13차 조사의 과정 및 조사진행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는 한편, 자료 정제(data cleaning)를 마친 조사 자료(data)를 분석하여 KLIPS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LIPS는 단편적인 조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관한 미시자료(micro data)들을 패널로 얻기 위해 실시하는 종단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1998년에 제1차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0년에 제13차 조사가 완료되었다.²⁾ 13차 조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였다³⁾. 이 보고서는 열 세 차례에 걸친 패널조사 가운데 제13차 조사과정과 현장 실사 결과를 서술하고 있으며, 자료 정제를 마친 제13차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이전 차수들과도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지난 12차년도 자료에 대한 추가 정제작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기

1)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2) 2010년 11월에 제13차 조사가 마무리되었다.

3) 1차부터 12차는 한국노동연구원, 13차부터 15차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사를 주관하였으며, 12차 이후 자료에 대한 정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2010)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존 12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내용을 업데이트한 결과도 본 보고서에 포함하였다.

KLIPS는 1998년 제1차 조사에서 5,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표본 가구와 이들 가구를 구성하는 1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패널조사의 사활은 무엇보다도 최초 추출된 표본을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적으로 조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KLIPS는 지난 제12차 조사에서 원표본인 5,000 가구의 73.1%를 조사하여 높은 표본유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제13차 조사는 원표본 가구 가운데 3,605 가구를 성공적으로 조사하여 72.1%의 원표본 유지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PSID, GSOEP, BHPS 등을 비롯한 외국의 우수한 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과 유사한 정도이다.

KLIPS는 자료 사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다. 또한 2010년도에 노동패널조사사업의 주관기관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변경된 후, 자료의 연계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패널 유경험자를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자료 검토, 1차 가공, 클리닝, 가중치 등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조사 이관에 따른 사업의 분절성을 지양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팀 연구진과 공동으로 12차년도 자료 클리닝 및 기초분석보고서 작성을 실시하였으며, 실사업체와의 지속적 자료 검토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 정확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패널조사의 안착을 위해 설문문항의 추가 개발 등은 지양하고 노동연구원에서 사용하던 자료의 형식을 유지하였다. 이용자 제공시에는 기존 자료 제공 방식과 동일하게 이용 편의를 고려한 데이터 가공을 실시하였다.

KLIPS의 설문구성은 가구 설문과 가구원 설문으로 구성된다. 가구원 설문은 경찰 상태에 따른 취업과 미취업 설문을 구분 작성하며, 임금/비임금 근로 및 현 일자리, 종료 일자리 등 일자리 특성별 총 8가지 서로 다른 유형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렇기에 조사 원자료를 제공할 경우, 복잡성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원만한 접근 및 분석의 어려움이 있어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료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이력 등 직업력 자료를 생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12차 조사까지의 가중치 산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LIPS 자료를 사용하는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KLIPS의 자료 정제는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12차년도 자료의 경우에는 이전 작성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연구팀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후 13차년도 자료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CAPI 설문 문항 설계 시 추가 지침 및 로직 오류를 걸러내는 문항을 새로 설계하였고, 2단계에서는 분가·합가 가구원의 PID 확인 등 조사내용에 대한 기본 정제를 리서치에서 수행한 뒤, 한국고용정보원 노동패널 연구팀이 직접 횡단면과 종단면 자료 정제를 실시하였다. 이 때, 패널조사의 특성상 이전년도와 정제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자료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에, 바로 직전 차수 자료인 12차와 11차년도 자료에서의 정제 발생구역을 확인하고, 정제 방식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동일한 기준으로 자료 정제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였고, 추가적으로 발견된 정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정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과정 가운데, 12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직·산업변수에 대한 오류 의심건수가 다수 발견되어, 12차와 13차년도 자료에 있는 직·산업변수 전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오분류된 기존코드 재분류 실시와 동시에 개정된 6차 통계청 직업분류와 9차 통계청 산업분류 신코드도 새로 부여하였다. 즉, 기존변수는 2000년 초반에 개정된 구분류에 따른 코드값이 부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는 새로운 분류에 따른 코드 값을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의 산업 변화 등 고용시장 반영 및 최근 통계와의 비교를 위해 직·산업 분류의 신코드 부여를 실시하였다. 분류 작업은 전문코더를 통한 이중맹검코딩⁴⁾(Double Blind Coding) 방식을

4) 동일한 직·산업 건수에 대해 두 명의 전문 코더가 각각 코드값을 부여한 후 동일한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고, 동일한 코드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 연구원이 재분류를 실시한 후, 노동패널 내부 연구진이 최종분류를 실시함.

4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2010)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적용하여 분류결과의 객관성을 높였다. 자세한 내용은 직·산업 변수 개선보고서를 참고하길 바란다.

한편, 노동연구원에서의 2009년 학술대회 개최 이후 자료이용자들에게 자료 활용의 기회를 주는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2011년 첫 번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워크숍에는 5개 세션(노동시장, 취업 및 구직활동, 사회복지, 데이터 질 강화, 계층이동/연금효과/혼인)에 모두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후 2012년 노동패널워크숍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제한 13차 자료를 갖고 개최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4개의 기획세션(중고령자, 비정규직/자영, 교육훈련/직무만족, 소득/근로빈곤)과 5개의 일반세션(건강/복지, 주택/조사, 소득/소비, 고령/장애인, 노동시장)에 총 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발표자 및 자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보완하였다.

이제 KLIPS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 KLIPS는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되며,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주로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에 대한 조사는 가구의 구성과 가구 소득 및 소비, 주거 등의 내용을 조사한다. 가구원에 대한 조사는 가구를 구성하는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 대해 실시하며 취업자 개인(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과 미취업자 및 신규 진입자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내용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력 상태, 소득, 노동이동 등 다양하다. 부가조사는 패널조사를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기본조사에 덧붙여 실시하는 추가적인 조사이다.

본 보고서의 구성도 KLIPS의 설문과 유사하다. 제2장은 제13차 조사에 대해 개관하고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은 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자료들을 분석한 것으로서 각각 조사가구의 특성과 가계 경제에 대해 다룬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3장은 가구와 가구원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조사된 가구들의 특성들을 살펴본다. 제4장은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을 분석하여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특성들을 알아본다. 제5장부터 제7장은 가구원

개인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5장은 개별 가구원, 즉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한다. 제6장과 제7장은 각각 개별 근로자 가운데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제8장은 패널자료의 특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동학(dynamics)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에 있어 동태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다.

이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히 정리하자.

제2장은 13차년도 패널조사의 조사 방법 및 조사 결과, 표본유지율, 응답가구와 가구원 특성,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등과 같은 전반적인 조사 개요를 다루고 있다. 13차년도 조사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원표본 3,606가구 및 분가한 1,773가구를 합하여 총 5,379 가구에 대한 조사에 성공하였다. 개인응답자는 전체 11,582명으로 이 중에서 원표본가구원이 10,126명, 비원표본가구원이 1,456명이었다.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 대비 원표본유지율은 72.1%로 전년도 원표본유지율에 비해 1.0%p 하락하였다. 소멸가구를 제외한 유효표본가구(13차년도 4,802가구) 대비 표본유지율은 75.1%로 전년도 유효표본유지율 75.7%보다 0.6%p 감소하였다. 따라서, 4차년도 이후 노동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은 가구 소멸로 인한 자연 감소를 제외하고는 표본 감소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질적 측면 역시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응답자 중 본인 응답 비율은 93.3%로 나타났다. 원가구대비 1~13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비율은 48.5%이며, 원표본(13,321명) 가구원대비 계속응답 개인의 비율은 36.3%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성공 가구의 비성공 사유로는 ‘강력 거절’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에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성과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3차 조사의 가중치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작성하였는데, 가중치 산출을 위한 기본적 원리는 원 패널가구 및 원 가구원에 부여된 원가중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13차에 새로 유입된 비원 패널가구 또는 가구원의 경우, 이미 이들을 대표하는 표본 가중치가

6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3차(2010)년도 기초분석보고서

원 패널 가구 혹은 가구원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가중치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가중치 산출은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가구 가중치 산출,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등 총 3단계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제3장에서는 조사에 성공한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제1절은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은 지난 13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에 대해 다룬다.

우선 13차년도 가구별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수는 2.9인이며, 4인 가구의 비중이 3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인 가구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13차년도 조사에서는 20.4%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남성이 78.8%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0.6세로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대가 가구주의 2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5세 이상 전체 개인 응답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46.3%로 남성보다 약간 낮았다. 평균 연령은 42.2세로 역시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2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고학력소지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1~13차년도 기간동안 출생한 가구원은 총 2,362명으로 남자아이가 1,236명(52.3%), 여자아이가 1,126명(47.7%)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13차년도에 출생한 가구원은 총 267명(남자:136명, 여자:131명)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의 사망자는 859명이었으며, 13차년도 사망자 89명의 평균연령은 70.4세였다.

제4장은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 있다. KLIPS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3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제1절은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은 가구의 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알아본다. 또 9차년도부터 대폭 설문이 보강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제3절은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은 가구의 자산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자녀 교육비에 대해 알아본다.

연도별로 가구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13차년도 연간 총소득은 3,957만원(월평균 33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5만원 늘어났으며,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12차년도에 비해 약 146만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4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진 이후, 10차년에 다시 대폭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완만해졌다.

13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1.1%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50만 7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9차년도에 설문이 대폭 강화된,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19.9%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62.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66.2%, 63.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1.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13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8%로 전년도에 비해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의 시가총액은 1억~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3차년도 62.5%로 지난 12년 동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2,17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4.8%를 차지하였다. 부채 잔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13차년도에는 3,903만 5천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절은 재수생 이하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 그리고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다루고 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7.5%였으며, 있다고 응답한 경우 중에서는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4.6%의 가구만이 대학생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자녀는 1명인 경우가 8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고등학생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월평균 39만 8천원(자녀당 교육비는 24만 7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688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연평균 567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5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⁵⁾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의이기 때문이다.

5)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 2010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통계청 60.0% 대비 노동패널 57.8%로 낮게 나타났지만, 1998년 이후 추이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다. 두 자료는 가구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 각각의 조사 특성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상태 분류 기준이 다소 상이하고, 조사 대상 기간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고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볼 때 20%가 넘는 탈락률에도 불구하고 KLIPS가 비농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여전히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3차년도에는 전체 4,476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으며,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비율은 13차년도에는 73.4%를 차지한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자의 비중이 35.7%로 가장 높고, 연령별로는 40대가 2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또한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⁶⁾이 35.7%, 직종별로는 생산직이 35.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차년도 52.3시간에서 점차 감소하여 13차년도(2010년) 기준 46.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비하여 약 4.8시간 가량 길었으나⁷⁾,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8.3시간)이 여성(43.7시간) 보다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대가 46.9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이 43.7시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또 정규 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 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3차년도에 27.0%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8시간으로 나타났다.

6) 공공서비스업에는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사업 등이 포함된다.

7) 2010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비농전산업 주당 총근로시간은 41.6시간으로 나타났다.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6.1%는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1.2%, 2.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산정 방식별로는 월급제가 78.7%로 가장 많았으며,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1.4%에 그쳤다.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에서 156만 7천원이었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 13차년도에는 209만 4천원에 달했다. 성별로 보면 13차년도에 여성의 월평균 명목 임금은 149만 6천원으로 남성의 60.9%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305만 5천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80만 7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317만 7천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에서는 전문관리직(258만 5천원)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형태별로는 외국인 회사(373만 3천원)가, 종업원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기업(310만원)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7장은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13차년도의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1,954명이었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6%로 나타났다.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9.4%, 자영업자 53.2%,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7.4%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13차년도 주당 근로일수는 5.8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차년도 59.8시간이었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이후 4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 이후 증가와 감소를 되풀이 하다가 11차년도 이후 감소한 것이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지난 13년간 월평균 명목소득은 1차년도 132만 6천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 3천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3차년도에는 280만 4천원에 달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의 창업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우선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88명이었다. 창업 주체와 관련하여,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6.5%)보다는 본인 스스로 창업한 경우(83.7%)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게 된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 대상자의 75.7%가 본인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제8장은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패널자료란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자료이므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동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실시한 분석이 제8장의 분석이다. 노동시장 전체로 보아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 간의 이동을 먼저 분석한 뒤, 성별과 연령 그리고 학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들의 이동경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2차와 13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뿐 아니라 10차와 11차, 11차와 12차에서 모두 조사된 개인들에 대한 분석도 비교를 위해 함께 제시하였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13차 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열 세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⁸⁾

KLIPS의 진행 상황을 조사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 면접에 성공한 15세이상 가구원은 13,321명이었다.

이후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원표본 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각각 87.6%, 80.9%에 그쳤다. 이는 패널조사가 생소했던 패널응답가구들이 지속적인 조사를 꺼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4차년도 이후

8)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패널유지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심지어 6차년도에는 패널유지율이 소폭이지만 증가하기도 하였다.

2010년에 실시된 제13차 KLIPS 조사에서는 원표본 3,606가구 및 분가한 1,773가구를 합하여 총 5,379가구에 대한 조사를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2.1%로 전년도에 비해 1.0%p가 하락하였다. 한편, 개인 응답자는 전체 11,582명으로 이 중에서 기존 조사자가 11,215명, 신규 가구원이 367명이었다.

〈표 2-1〉 1~13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조사대상 원가구- 소멸가구	조사 성공 가구수 ¹⁾	원표본 가구수 ²⁾	원표본 유지율 ³⁾	유효표본 유지율 ⁴⁾	분가 가구수	가구원 응답자 수 ⁵⁾	실사 기간
1차('98)	5,000	5,000	5,000	100.0	100.0	-	13,321	6~10월
2차('99)	5,000	4,508	4,378	87.6	87.6	130	12,037	7~12월
3차('00)	5,000	4,266	4,044	80.9	80.9	222	11,205	5~10월
4차('01)	5,000	4,248	3,866	77.3	77.3	382	11,051	5~10월
5차('02)	5,000	4,298	3,798	76.0	76.0	500	10,966	4~ 9월
6차('03)	4,993	4,592	3,862	77.2	77.3	730	11,541	4~ 9월
7차('04)	4,950	4,762	3,863	77.3	78.0	899	11,661	4~ 9월
8차('05)	4,935	4,849	3,822	76.4	77.4	1,027	11,580	4~10월
9차('06)	4,926	5,001	3,820	76.4	77.5	1,181	11,756	4~10월
10차('07)	4,899	5,069	3,775	75.5	77.1	1,294	11,855	4~10월
11차('08)	4,862	5,116	3,709	74.2	76.3	1,407	11,734	4~10월
12차('09)	4,832	5,306	3,657	73.1	75.7	1,649	11,739	4~10월
13차('10)	4,802	5,379	3,606	72.1	75.1	1,773	11,582	7~11월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원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 중 해당 연도에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원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 연도에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4) '유효표본유지율'은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가구원의 사망 등으로 소멸한 원가구를 제외한 가구대비 조사 성공한 원표본가구의 비율임.

5)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 내용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KLIPS는 10차년도 release 버전 자료부터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동안 각각의 연도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졌던 설문지의 종류와 자료 및 변수들을 통합하고 재구조화하여 종단면 일치성(longitudinal consistency)을 갖도록 하였다. 개편된 자료는 크게 가구용 자료, 개인용 자료, 부가조사 자료, 그리고 직업력 자료로 나뉜다. <표 2-2>를 통해서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자료 명		내용	
가구용 자료	KLIPS_H	가구의 기본정보 가구 특성 관련 설문(소득, 소비, 주거 등)	
개인용 자료	KLIPS_P	주된 일자리의 특성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응답자 공통	취업자
			미취업자
		신규 조사자 문항	
부가조사 자료	KLIPS_A	청년층 조사(3차) 건강과 은퇴(4차) 중고령자 조사(6차) 근로시간과 여가(7차)	노동조합과 노사관계(8차) 청년층 조사(9차) 고용형태 조사(10차) 교육(11차)
직업력 자료	KLIPS13W	개인이 가졌던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	

우선 가구용 자료는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의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 및 소득, 소비, 거주형태, 자산, 부채 등 가구 단위의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개인용 자료는 크게 조사 당시 갖고 있던 주된 일자리의 특성과 관련된 문항,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 응답자에 관련된 문항, 그리고 조사

에 진입할 당시에 한 번만 조사되는 문항들(출생지, 14세 당시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교육수준 등)로 나눌 수 있다.

직업력 자료는 개인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15세 이후 가졌던 모든 일자리의 산업, 직업,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에 대해 ‘일자리 단위’로 누적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들이 조사 차수별로 각각 존재하는 반면, 직업력 자료는 1개의 데이터셋만을 가지게 된다.

가구용 및 개인용으로 구성되어 매년 비슷한 내용을 반복 조사하는 본조사 자료와는 달리 3차년도부터는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3차년도 조사가 행해진 2010년에는 별도의 부가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2. 설문 내용

KLIPS의 13차년도 설문지는 가구용 설문, 예비조사 설문, 유형 설문, 취업 및 미취업자용 설문, 예비조사용 설문, 교육 부가설문으로 구성된다.⁹⁾ 13차년도 설문은 12차 설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12차 조사 이전 조사와 비교하여 12차·13차년도 설문의 주요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2-3 참조).

12차·13차년도 설문의 주요 특징은 농림업 및 종교 관련 문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가구 설문에서는 해당 가구가 농림업 종사 가구 여부 및 전채가구 수입 중 농업수입의 비중을 질문하였다. 유형 설문에서는 지난조사당시 농림업 종사여부 및 경작지 면적 등에 관한 설문이 추가되었다. 또한 개인용(취업자/미취업자/신규) 설문에 종교여부 및 종교활동참여도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여, 응답자들의 종교생활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키와 몸무게 관련 문항은 삭제하였다.

9) 1~11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 내용은 ‘통합 설문지 및 KLIPS 1~11차 User's Guide’를 참조.

〈표 2-3〉 2009년 설문 변동 내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업 가구에 해당 여부 문항 추가 ▪ 전채가구 수입중 농업수입의 비중 문항 추가 ▪ 건강보험료 문구 조정
유형설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조사당시 농림업 종사 여부 문항 추가 (유형 3, 7) ▪ 경작지 면적, 과수원여부 및 면적, 시설면적여부 문항 추가 (유형 3, 7) ▪ 가장 수입이 많았던 농업형태 문항추가 (유형 3, 7) ▪ 이전 설문용어 오류 수정(유형 6)
응답자 공통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문항 보강(임금근로자) ▪ 실질적인 휴가일수 문항추가(비임금근로자) ▪ 종교여부 문항 추가 ▪ 종교활동 참여도 문항 추가 ▪ 키, 몸무게 문항 삭제 ▪ 혼인상태 문항 재배열
응답자 공통 (미취업자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여부 문항 추가 ▪ 종교활동 참여도 문항 추가 ▪ 키, 몸무게 문항 삭제 ▪ 혼인상태 문항 재배열
신규조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 미취업자용 설문의 수정 내용을 동일하게 반영

제 3 절 조사 방법과 조사 결과

1. 조사 과정 및 조사 방법¹⁰⁾

KLIPS의 실사는 민간 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13차년도 조사는 2010년 7월에서 11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face-to-face interview)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

10)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 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klips>)를 참고.

야 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원칙은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 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 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KLIPS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하였다. 첫째, 실사 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 조사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전화조사를 하였다. 셋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 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소년원·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 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 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 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표 2-4>는 각 연도별 조사 방식이 어떤 비중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면접조사의 비중이 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당시 면접조사의 비중은 64.4%에 그쳤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13차년도에는 94.0%에 이르렀다. 반면 유치조사는 1차년도에 21.8%나 되었지만 13차년도에는 0.5%에 불과했다.

<표 2-4> 각 연도별 조사 방식(면접, 유치, 전화조사)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면접	유치	전화	면접+ 전화	유치+ 전화	면접+ 유치	면접+ 유치+ 전화
1차년도	13,321	100.0	64.4	21.8	1.5	2.6	3.7	2.6	0.1
2차년도	12,037	100.0	77.8	7.6	7.4	4.7	2.5	0.1	0.0
3차년도	11,205	100.0	83.0	5.1	5.3	3.9	1.5	0.9	0.2
4차년도	11,051	100.0	83.7	3.4	4.6	4.9	1.2	1.8	0.5
5차년도	10,966	100.0	83.8	2.6	3.9	6.4	1.0	1.0	1.3
6차년도	11,541	100.0	86.3	1.7	3.8	5.7	0.9	1.3	0.4
7차년도	11,661	100.0	88.0	1.8	4.1	3.7	0.4	1.6	0.5
8차년도	11,580	100.0	85.4	1.6	2.8	6.1	1.4	1.7	1.0
9차년도	11,756	100.0	89.7	1.5	2.9	2.8	0.7	2.3	0.3
10차년도	11,855	100.0	91.3	1.1	3.2	3.1	0.6	0.6	0.1
11차년도	11,734	100.0	95.7	0.6	1.8	1.3	0.3	0.2	0.1
12차년도	11,739	100.0	92.4	1.7	2.7	2.2	0.6	0.3	0.1
13차년도	11,582	100.0	94.0	0.5	2.7	2.4	0.3	0.1	0.1

주: 1차년도와 3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표 2-5>는 대리응답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조사 당시 대리 응답의 비중은 19.7%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11.3%로 낮아졌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6차년도 조사이후 대리응답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13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면접원 방문 횟수는 평균 1.3회로 12차년도와 동일하였다(표 2-6 참조). 조사성공가구의 방문횟수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KLIPS 조사에 대한 응답

자들의 인식제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5〉 각 연도별 대리응답 분포

(단위: 명, %)

	개인 응답자수	전체 비중	본인	대리인	본인+대리인
1차년도	13,321	100.0	74.0	19.7	0.4
2차년도	12,037	100.0	88.7	11.3	0.0
3차년도	11,205	100.0	88.3	8.1	3.6
4차년도	11,051	100.0	83.3	11.0	5.5
5차년도	10,966	100.0	83.8	9.8	6.4
6차년도	11,541	100.0	83.1	11.2	5.8
7차년도	11,661	100.0	85.7	9.7	4.7
8차년도	11,580	100.0	87.3	5.0	7.7
9차년도	11,756	100.0	90.0	3.0	7.1
10차년도	11,855	100.0	90.7	5.6	3.7
11차년도	11,734	100.0	91.7	5.8	2.6
12차년도	11,739	100.0	91.4	4.0	4.6
13차년도	11,582	100.0	93.3	3.9	2.8

주: 1차년도의 전체 비중이 100%가 안되는 것은 '모름' 비중 때문임.

〈표 2-6〉 조사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

(단위: 회)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전 체	3.0	3.3	3.1	2.6	2.3	1.3	1.3
서울	3.3	3.5	3.2	2.5	2.4	1.2	1.2
부산	3.3	3.5	3.3	3.3	2.3	1.6	1.5
대구	4.2	3.8	3.3	2.9	1.3	1.3	1.8
대전	2.2	3.3	3.2	1.9	2.6	1.3	1.3
인천	2.3	2.5	3.0	2.8	2.3	1.4	1.7
광주	3.1	3.4	3.9	3.2	3.0	1.5	1.3
울산	2.8	3.6	3.0	3.5	2.7	1.5	1.4
경기	2.5	2.9	2.6	2.3	2.1	1.3	1.3
강원	2.4	2.7	1.8	2.1	1.3	1.1	1.2
충북	1.9	3.7	3.6	2.6	3.1	1.5	1.3
충남	2.9	4.0	3.2	2.4	2.9	1.2	1.2
전북	3.1	3.5	3.1	2.5	1.8	1.1	1.2
전남	2.9	4.0	3.9	3.4	2.9	1.2	1.1
경북	4.1	3.3	2.4	2.2	1.5	1.2	1.2
경남	3.2	3.6	3.3	3.2	2.7	1.7	1.4
제주	3.7	3.5	5.5	1.5	2.0	1.0	1.2

한편 방문 횟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지역의 방문 횟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성공률과 방문횟수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표 2-7>은 조사 시기별 진행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7> 시기별·지역별 조사진행률 추이 : 원가구

(단위: %)

	08월 23일	09월 06일	09월 27일	10월 11일	10월 25일	11월 8일	11월 29일	12월 20일
서울	17.4	28.6	39.6	49.7	57.5	61.0	66.5	69.1
부산	28.3	33.7	42.5	47.0	64.5	70.4	71.5	71.9
대구	27.7	37.6	42.5	48.8	54.8	55.7	64.4	65.8
인천	25.3	39.3	49.0	58.8	70.7	73.2	79.1	79.5
광주	14.9	25.5	40.9	49.5	58.2	60.1	72.0	77.8
대전	23.6	36.8	43.9	51.9	60.8	63.5	67.8	78.6
울산	19.4	38.3	47.4	49.7	63.4	73.1	76.0	76.1
경기	15.9	28.1	37.2	47.8	64.9	68.6	73.1	73.6
강원	23.0	31.7	41.0	49.7	57.9	62.3	68.3	68.9
충북	17.2	32.3	35.5	48.9	57.5	57.5	69.7	73.5
충남	26.8	39.7	57.6	60.3	73.7	74.1	82.5	85.7
전북	24.5	41.5	50.2	58.5	70.2	71.3	75.5	75.8
전남	15.3	23.7	37.4	48.9	58.9	64.2	80.4	83.0
경북	27.7	35.9	40.3	50.7	58.9	61.5	70.6	72.3
경남	22.5	28.1	39.8	49.7	65.1	70.8	74.5	75.1
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주: 1차년도 조사 당시 제주도의 지역 거주자가 제주도로 이사한 경우가 포함

13차년도 조사는 2010년 6월 30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7월1일에는 대전/광주, 7월2일에는 대구/부산에서 면접원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별도의 CAPI 조사 교육은 2010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지역별로 실시되었다. 조사의 시작은 면접원 교육이 종료된 직후부터 이루어졌으며, 조사진행 상황에 대한 집계는 8월 첫째주부터 이루어졌다. 13차년도 조사 초기에는 여름 휴가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더딘

조사진척률을 보였으나, 조사진행이 본격화되는 9월~10월 사이에는 성공적인 조사진행률을 보였다.

질적으로는 조사 수행 정도가 시기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 초기에는 지속적으로 응답에 응하거나 조사가 용이한 가구부터 진행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 후기에는 응답을 거부하거나 이사 추적 등, 보다 높은 면접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가구들이 조사된다.

2. 조사 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3차년도 KLIPS의 총 조사표본은 5,306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1,582명이다.

<표 2-8>은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한 것인데, KLIPS의 표본유지율은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다.

원표본유지율은 두 가지 기준에서 산출할 수가 있다. 첫째, 1차년도 당시 원표본이었던 5,000가구를 기준으로 조사성공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멸가구를 고려하여 성공률을 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1인 단독가구에서 그 가구원의 사망이나 이민 등으로 인해 가구가 소멸한 경우, 이를 분모가 되는 원표본가구수에서 빼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편의상 전자를 원표본유지율, 후자를 유효표본유지율이라고 하겠다.

KLIPS의 13차년도 원표본유지율은 72.1%, 유효표본유지율은 75.1%였다. 원표본유지율의 추세를 살펴보면, KLIPS 뿐 아니라 다른 패널조사의 경우에도 2차년도에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후 3차~5차년도 KLIPS는 외국의 패널조사에 비해 그 하락 폭이 컸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 유지율이 안정세를 찾으면서 다른 패널조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6차년도부터는 원가구원의 사망이나 해외이민 등으로 조사 대

상이 되는 가구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들 소멸 가구는 6차년도에는 불과 7가구에 지나지 않았으나, 매년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198가구에 달했다.

〈표 2-8〉 각국의 가구패널조사와 KLIPS 원표본유지율

(단위: %, 연도, 가구)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원표본 유지율	유효표본 유지율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수
2차 년도	89.0 (1969)	89.9 (1985)	87.7 (1992)	79.0 (1994)	87.6 (1999)	87.6 (1999)	4,378
3차 년도	86.3 (1970)	86.0 (1986)	81.5 (1993)	66.0 (1995)	80.9 (2000)	80.9 (2000)	4,044
4차 년도	83.7 (1971)	84.9 (1987)	79.9 (1994)	59.0 (1996)	77.3 (2001)	77.3 (2001)	3,866
5차 년도	82.5 (1972)	81.3 (1988)	76.8 (1995)	56.0 (1997)	76.0 (2002)	76.0 (2002)	3,798
6차 년도	81.2 (1973)	79.2 (1989)	77.3 (1996)	44.0 (1998)	77.2 (2003)	77.3 (2003)	3,862
7차 년도	79.6 (1974)	78.4 (1990)	76.0 (1997)	종료	77.3 (2004)	78.0 (2004)	3,863
8차 년도	78.3 (1975)	78.9 (1991)	74.1 (1998)	-	76.4 (2005)	77.4 (2005)	3,822
9차 년도	76.8 (1976)	78.4 (1992)	72.1 (1999)	-	76.4 (2006)	77.5 (2006)	3,820
10차 년도	75.2 (1977)	78.8 (1993)	70.4 (2000)	-	75.5 (2007)	77.1 (2007)	3,775
11차 년도	74.0 (1978)	77.7 (1994)	68.4 (2001)	-	74.2 (2008)	76.3 (2008)	3,709
12차 년도	72.6 (1979)	76.1 (1995)	66.6 (2002)	-	73.1 (2009)	75.7 (2009)	3,657
13차 년도	71.2 (1980)	75.1 (1996)	64.9 (2003)	-	72.1 (2010)	75.1 (2010)	3,606

주: 1) 괄호안의 숫자는 조사년도를 의미함.

2) PSID 표본유지율은 응답유형 가운데 이전 차수 응답자(reinterview family) 기준.

3) 유효표본유지율 계산에 사용된 분모는 6차년도 4,993가구, 7차년도는 4,950가구, 8차년도 4,935가구, 9차년도 4,926, 10차년도 4,899가구, 11차년도 4,862, 12차년도 4,832, 13차년도 4,802가구임.

지역별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 표본추출당시의 거주지를 기준¹¹⁾으로 하여 살펴보겠다(<표 2-9> 참조). 지역적으로 서울, 대구, 대전 지역의 표본 유지율이 13차년도 기준 70% 미만이었고, 전남지역이 80% 이상의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원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도 지역이 광역시 지역에 비해 표본유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도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자주 이사를 하는 등 패널추적시 애로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응답자의 성향, 면접원의 특성과 숙련도, 지역의 실사 단위의 체계, 지역별 정치적·문화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유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표 2-9〉 지역별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가구, %)

	원 표본수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전체	5,000	77.3	76.0	77.2	77.3	76.4	76.4	75.5	74.2	73.1	72.1
서울	1,353	72.4	70.7	74.0	72.9	72.4	72.0	71.8	71.4	69.5	69.2
부산	486	88.3	84.4	80.2	78.4	77.8	77.2	77.8	76.1	74.7	72.9
대구	314	67.5	71.0	77.4	70.1	73.6	72.3	71.3	68.2	69.4	66.6
대전	153	79.7	76.5	80.4	79.7	75.8	73.9	69.9	69.3	70.6	68.6
인천	298	73.2	77.9	75.8	79.5	78.2	79.9	75.8	74.8	75.2	77.2
광주	158	77.2	80.4	79.1	77.2	76.6	75.3	73.4	74.7	70.9	74.1
울산	116	89.7	86.2	83.6	82.8	79.3	79.3	74.1	72.4	74.1	75.0
경기	856	72.7	70.2	75.5	79.7	78.3	77.6	77.3	74.8	73.9	71.6
강원	130	73.8	65.4	63.8	67.7	71.5	73.8	75.4	75.4	72.3	71.1
충북	113	77.0	75.2	70.8	69.9	67.3	70.8	68.1	69.0	68.1	71.4
충남	131	84.0	83.2	80.9	80.9	79.4	79.4	81.7	80.2	79.4	77.7
전북	199	84.9	83.4	81.9	81.9	80.4	81.9	82.4	81.9	79.4	78.2
전남	127	89.8	89.0	84.3	89.0	86.6	87.4	88.2	86.6	85.8	84.3
경북	274	80.3	82.1	83.6	84.3	82.1	83.2	77.7	76.3	75.9	75.4
경남	292	89.4	84.9	83.2	81.2	79.8	80.8	79.8	77.1	76.0	75.7

주: 지역구분은 1차년도 조사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당해연도조사가구수/원표본가구수)*100.

11)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성공 하였더라도, 1차 당시 서울 거주자였다면, 서울지역으로 계산함.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응답 가구의 특성

패널조사의 조사성공률과 함께 패널응답가구의 지속응답여부 또한 자료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표 2-10>은 1~13차년도 기간 동안 조사성공가구들이 조사에 몇 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지금까지 한 번 이상 조사에 응답했던 가구의 수는 7,315가구이며, 이 중 원가구는 68.4%(5,000가구), 2차년도 이후 분가한 비원가구는 31.6%(2,315가구)이다.

<표 2-10> 조사성공가구의 응답 횟수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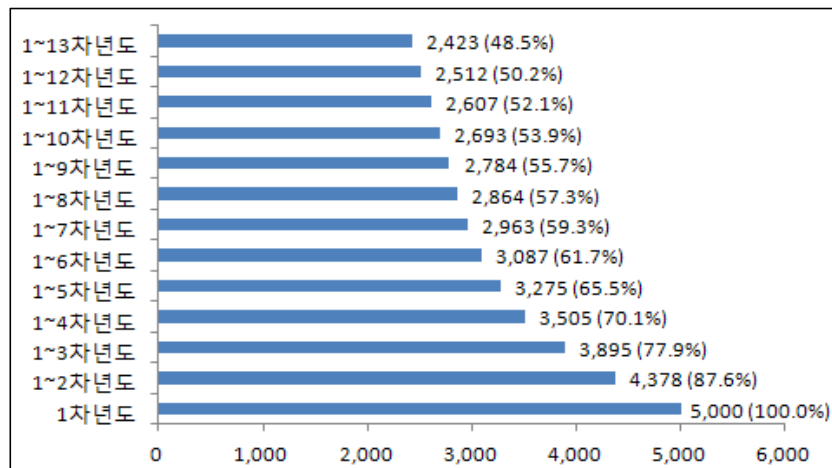
	전 체		원가구		비원가구	
	가구수	%	가구수	%	가구수	%
1회	587	8.0	185	3.7	402	17.4
2회	524	7.2	167	3.3	357	15.4
3회	409	5.6	180	3.6	229	9.9
4회	390	5.3	160	3.2	230	9.9
5회	342	4.7	162	3.2	180	7.8
6회	297	4.1	114	2.3	183	7.9
7회	346	4.7	150	3.0	196	8.5
8회	329	4.5	154	3.1	175	7.6
9회	311	4.3	199	4.0	112	4.8
10회	380	5.2	259	5.2	121	5.2
11회	394	5.4	318	6.4	76	3.3
12회	583	8.0	529	10.6	54	2.3
13회	2,423	33.1	2,423	48.5	0	0.0
전 체	7,315	100.0	5,000	100.0	2,315	100.0

원가구 중에서는 1~13차년도 기간 동안 모두 응답한 가구가 48.5% (2,423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차년도에 응답한 후 아직 까지 조사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원가구는 3.7%(18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기할만한 점은 1차년도 응답 이후 계속 조사되지 않던 원가구는 12차년도에 192가구였는데 이들 중 7가구가 12년 만에 다시 조사에 응했다는 점이다.

분가가구들은 2차년도 이후 새롭게 형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13회 모두 응답한 가구가 존재할 수 없다.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분가가구 중 원가구에서 분가한 이후 매해 조사에 모두 응답한 가구는 총 1,017가구(43.9%)¹²⁾였으며, 1회만 응답한 가구는 259가구¹³⁾였다. 참고로 2차년도에 분가하여 조사에 성공한 가구의 수는 총 231가구였으며, 이 중에서 54가구(23.4%)가 13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하였다. 분가차수가 최근일수록 매해 지속 응답하는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1) 노동패널조사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수

(단위: 가구, %)



12) 12차년도 분가가구는 1회 응답가구이지만, 모두 응답한 가구로 계산하였으며, 전체 분가가구 수는 2,315가구임.

13) 13차년도 분가가구는 1회 응답가구이면서 모두 응답가구이므로 제외.

[그림 2-1]은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원가구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13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2,423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48.5%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87.6%로, 3차년도 77.9%, 4차년도 70.1%로 매년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3차년도 계속응답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가구주의 77.5%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 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8.4%p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9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 40대(28.4%) > 30대(26.7%) > 50대(20.2%) > 60세 이상(18.4%) > 30세 미만(6.4%) 순으로 나타난 데 반해, 1~13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60대 이상이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와 40대가 각각 28.5%, 21.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경우는 0.2%에 그치고 있어, 조사 차수에 따른 연령 증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계속응답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육수준별 분포에서는 가구주가 고학력자일수록 지속응답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응답가구 중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는 1차년도(39.9%)였으나, 지속응답 가구 중에서는 48.6%가 가구주가 고졸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상태별로는 1차년도 조사 당시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데 비해, 미취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13차년도 계속응답가구주 중 임금근로자는 38.5%, 비임금근로자는 27.3%, 미취업자는 34.3%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고연령, 저학력, 미취업자일수록 지속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2-11〉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13차년도 계속응답가구 ²⁾	
전 체		4,989	100.0	2,372	100.0
성 별	남 성	4,283	85.9	1,838	77.5
	여 성	706	14.1	534	22.5
혼인 상태 ³⁾	기혼(무배우 포함)	4,644	93.2	2,310	97.4
	미 혼	330	6.6	62	2.6
연 령	30세 미만	318	6.4	5	0.2
	30대	1,332	26.7	53	2.2
	40대	1,417	28.4	509	21.5
	50대	1,006	20.2	675	28.5
	60세 이상	916	18.4	1,130	47.6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88	39.9	1,152	48.6
	고 졸	1,750	35.1	741	31.2
	대학 재학 및 중퇴	143	2.9	49	2.1
	전문대졸	245	4.9	108	4.6
	대졸 이상	862	17.3	322	13.6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7	44.6	912	38.5
	비임금	1,440	28.9	647	27.3
	미취업자	1,322	26.5	813	34.3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개인설문 응답자를 기준으로 함.

2)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례는 제외함.

3) 1차년도 원표본가구의 가구주 혼인상태의 합이 100이 아닌 이유는 모름/무응답 때문임.

2. 조사성공가구원의 특성

KLIPS는 조사 대상 가구에 소속된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3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원과 1차부터 13차까지 계속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12>와 같다. 13차년도에 조사 성공한 가구원은 모두 11,582

명이고, 13차 조사에 계속 응답한 가구원은 모두 4,842명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13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원은 여성이 51.7%로 남성에 비해 근소하게 많은 반면, 지속적으로 응답한 가구원의 성비는 여성이 56.4%로 남성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3차 조사 성공 가구원 중에서 60세 이상이 2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0대가 22.1%, 40대가 18.3%, 50대가 16.7%, 20대가 12.8%, 10대가 7.2%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 응답 가구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비율이 36.1%로 가장 많은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속적 참여 가구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졸이 36.1%로 13차 조사 성공 가구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계속 응답 가구원의 경우에는 고졸 미만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조사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조사성공가구원의 개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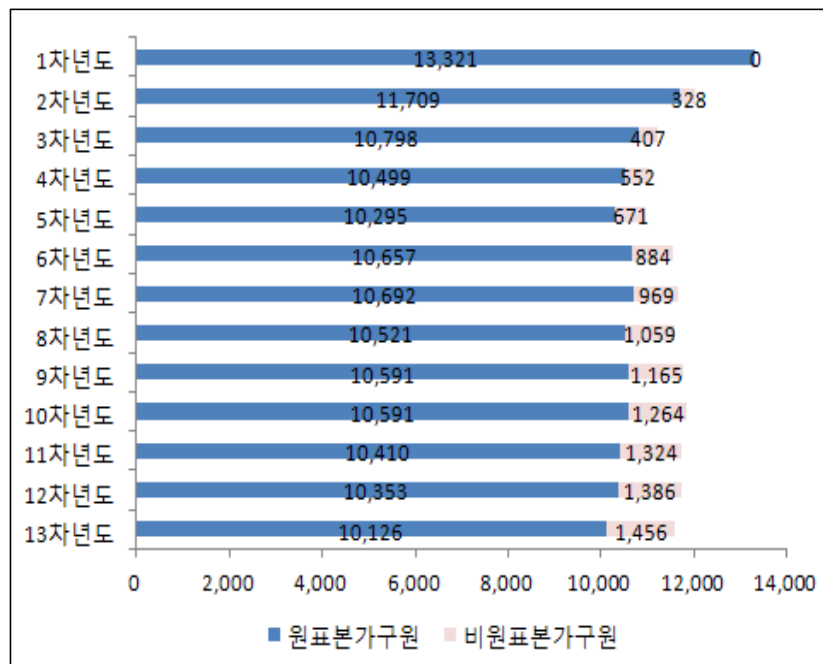
(단위: 명, %)

		13차년도 조사 성공 가구원		1~13차년도 계속 응답 가구원	
전 체		11,582	100.0	4,842	100.0
성 별	남 성	5,594	48.3	2,109	43.6
	여 성	5,988	51.7	2,733	56.4
연 령	10대	834	7.2	-	-
	20대	1,479	12.8	141	2.9
	30대	2,561	22.1	622	12.8
	40대	2,122	18.3	1,158	23.9
	50대	1,936	16.7	1,171	24.2
	60세 이상	2,650	22.9	1,750	36.1
교육수준	고졸 미만	3,916	33.8	2,147	44.3
	고 졸	4,186	36.1	1,661	34.3
	전문대졸	1,262	10.9	375	7.7
	대졸 이상	2,218	19.2	659	13.6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2]와 같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총 가구원인 17,50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이었다. 2차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7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0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가구원의 수는 점차 감소하다가, 6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증가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3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582명 중 87.4%에 해당하는 10,126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그림 2-2]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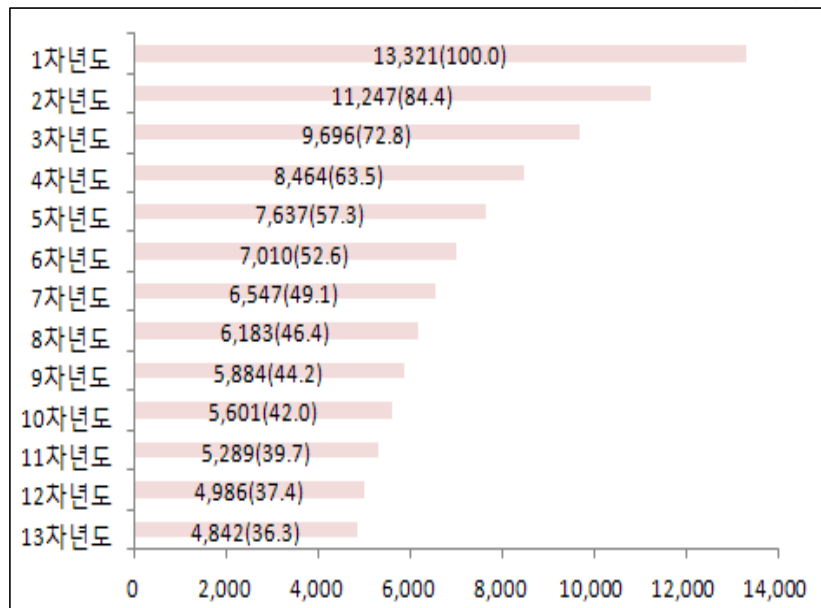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다. 1차년도 총 조사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p가 감

소한 9,696명이 지속응답하였다. 지속응답가구원의 숫자는 계속 감소하여, 13차년도에는 4,842명(36.3%)만이 응답하였다. 차수가 거듭될수록 지속응답가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감소 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KLIPS의 설문은 지난조사 이후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떤 개인응답자가 중간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복귀할 경우 공백기간의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직접조사할 경우와 비교할 때, 중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답자의 회고 에러 등으로 인해 일관성 측면에서 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림 2-3) 각 연도별 지속응답가구원수 추이

(단위: 명, %)



제 5 절 이사·분가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가구의 특성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 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 성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KLIPS 1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의 이사 여부에 대한 설문은 2010년에 새롭게 분가한 가구를 제외한 4,93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13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909가구로 분가가구를 제외한 전체 성공가구의 18.4%이다.

〈표 2-13〉 이사가구 분포

(단위: %)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전 체	18.8	15.0	16.2	15.2	14.2	13.9	18.4
서 울	21.8	15.2	18.9	17.5	17.2	14.2	18.1
부 산	11.7	9.4	12.0	11.6	11.6	10.6	15.9
대 구	16.9	12.5	14.0	14.1	8.0	10.2	17.7
대 전	18.0	21.4	11.3	14.0	10.8	10.2	23.8
인 천	22.5	13.1	13.0	15.9	12.9	18.5	17.7
광 주	13.3	6.9	15.0	11.4	11.8	10.4	17.7
울 산	12.7	15.9	11.2	13.2	12.7	18.8	16.0
경 기	27.1	20.3	21.2	17.7	17.4	16.5	21.0
강 원	15.0	10.8	14.3	16.0	11.5	10.0	8.9
충 북	12.2	21.2	17.2	16.5	15.0	15.6	23.0
충 남	9.0	15.6	13.6	15.4	13.1	15.8	21.9
전 북	12.8	12.9	12.8	14.3	12.4	8.4	13.8
전 남	14.7	12.3	12.1	13.8	8.8	13.7	19.2
경 북	11.2	8.9	12.2	12.2	12.5	10.7	16.4
경 남	15.1	14.9	15.4	9.9	11.9	13.8	17.7

〈표 2-13〉를 통해 보는 바와 같이 13차년도에는 대전이 23.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충북이 23.0%, 충남이 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강원(8.9%)과 전북(13.8%)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의 경우, 대전과 충청 등 신행정도시 및 신도시 등 지방이전이 많이 포함된 충청권의 인구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비원표본가구(분가가구)의 특성

KLIPS 13차년도 조사성공가구(5,379가구) 중에는 원표본 3,606가구 이외에 1차년도 조사 당시 원표본가구는 아니었지만, 2차년도 이후 분가하여 새롭게 조사에 진입한 비원표본 1,773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분가성공가구 중 2차년도에 진입한 가구는 231가구이며, 13차년도에 143가구가 새롭게 진입하였다(표 2-14 참조).

〈표 2-14〉 각 연도별 비원표본가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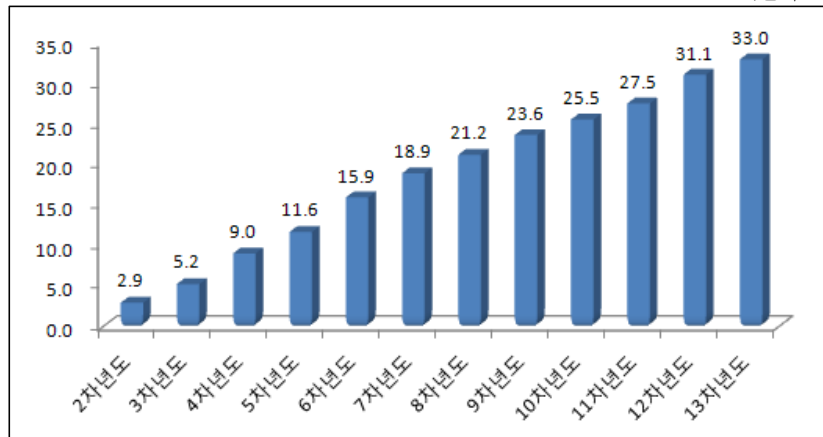
(단위: 가구, %)

진입시점	전 체		응답가구		비응답가구	
전체	2,335	100.0	1,773	100.0	562	100.0
2차년도	231	9.9	154	8.7	77	13.7
3차년도	156	6.7	102	5.8	54	9.6
4차년도	200	8.6	139	7.8	61	10.9
5차년도	190	8.1	127	7.2	63	11.2
6차년도	227	9.7	149	8.4	78	13.9
7차년도	200	8.6	149	8.4	51	9.1
8차년도	191	8.2	149	8.4	42	7.5
9차년도	211	9.0	162	9.1	49	8.7
10차년도	201	8.6	170	9.6	31	5.5
11차년도	218	9.3	184	10.4	34	6.0
12차년도	167	7.2	145	8.2	22	3.9
13차년도	143	6.1	143	8.1	0	0.0

한편,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이들 분가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에서 볼 수 있듯이, 2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 중에서 비원표본가구의 비중이 2.9%에 그치고 있으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6차년도 15.9%, 13차년도에는 33.0%에 이르고 있다.

[그림 2-4] 각 연도별 전체응답가구 대비 비원표본가구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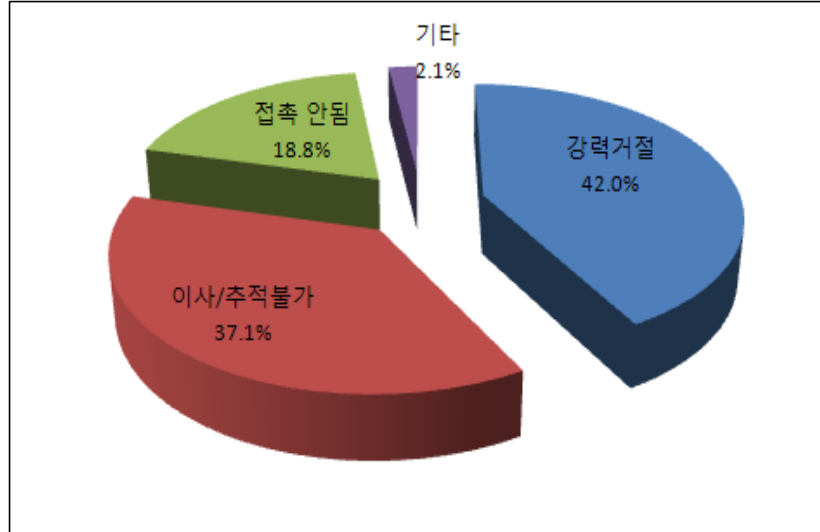
3. 비성공가구의 특성

13차년도까지 파악된 전체 조사 대상 가구는 모두 7,391가구(소멸가구 제외)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13차년도 응답가구를 제외한 비성공 가구는 2,012가구이다. 이 중에서 원가구는 1,394가구이며, 당해 연도에 분가했으나 조사에 성공하지 못한 가구가 104가구이다.

[그림 2-5]는 13차년도 비성공가구의 비성공 사유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비성공가구들의 비성공 사유를 살펴보면, ‘강력 거절’이 가장 많은 42.0%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사를 하였으나 연락처나 주소를 알 수 없어서 추적할 수 없었던 ‘이사/추적 불가’가 37.1%, ‘접촉 안됨’이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항목은 합가, 해외 체류중, 이민, 원가구 사망, 군입대, 병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5] 13차년도 비성공가구의 비성공사유

(단위: %)



주: 당해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108가구는 거절사유가 기록되지 않음.

비성공가구에 대한 면접원의 접촉 횟수는 평균 3.4회로 성공가구의 평균 면접 횟수 1.3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공가구와 비성공가구간에 체계적인 방문 횟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 11차년도나 9차년도의 경우에는 13차년도와 마찬가지로 비성공가구의 방문횟수가 많았지만, 10차년도에는 성공가구의 방문 횟수가 오히려 많았기 때문이다. 가구의 방문 횟수가 체계적으로 성공률을 높인 다든지 혹은 낮춘다기보다는 면접원 개인의 성향, 기록의 성실성 여부 등에 따라 편차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13차년도에는 면접원들의 가구 방문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성공가구를 성공가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독려를 했기 때문에 비성공가구에 대한 방문횟수가 전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비성공가구의 평균 방문 횟수는 3회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성공가구는 1회인 경우가 79.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비성공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접촉 노력을 하기 때문에 방문 횟수가 성공가구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는 비성공 이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표 2-15〉 성공가구 및 비성공가구 방문 횟수

(단위: 가구, %)

	가구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전 체	7,391	59.7	11.7	14.7	6.8	5.0	2.2
비성공가구	2,012	13.3	6.9	38.8	18.4	15.8	6.6
성공가구	5,379	79.1	13.7	4.6	1.9	0.5	0.2

주: 당해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108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표 2-16>은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횟수를 보여준다. 강력 거절의 51.0%, 접촉 안됨의 24.7%가 4회 이상 방문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10차년도에는 이사/추적불가 중 88.0%가 1회 방문에 그친데 반해, 13차년도에는 이사/추적 불가일 경우라 하더라도 3회 방문이 41.9%, 4회 방문이상이 38.2%로 응답 패널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표 2-16〉 각 비성공사유별 평균 방문 횟수

(단위: %)

비성공 이유	전 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강력 거절	100.0	15.7	6.8	26.5	19.3	24.0	7.7
이사/추적 불가	100.0	14.0	5.8	41.9	20.5	10.4	7.3
접촉 안됨	100.0	7.8	9.8	57.7	11.9	8.7	4.1
기 타	100.0	4.3	2.2	54.3	23.9	15.2	0.0

주: 당해연도 분가 비성공가구인 108가구는 방문 횟수가 기록되지 않음.

제 6 절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표본조사 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KLIPS의 경우에도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 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매년도 가중치를 산출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중치의 부여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KLIPS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 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 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KLIPS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 않았다. 우선 KLIPS의 1차조사가 1998년임을 고려할 때 가구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없다. 개인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가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 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2차~12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KLIPS와 같은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는 자료의 특성상 1차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원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여되었다. 1단계로 이미 산출된 1차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 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 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 조사의 개인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때 결혼·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원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 차원의 무응답 조정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나머

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2005년)의 5년간 총 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 합계에서부터 매년 누적적으로 곱해 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년)의 5년간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가중치 합계에 매년 누적적으로 곱해 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 값은 <표 2-17>에 표기하였다.

3. 13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2차년도 조사까지의 가중치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부여하였다. 하지만 12차 조사 이후 조사 주관기관이 변경되고 추가 패널에 대한 가중치가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가중치를 생성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3차년도 노동패널 가중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원리는 원 패널가구 및 원 가구원에 부여된 원 가중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13차에 새로 유입된 비 원 패널가구(혹은 가구원)의 경우, 이미 이들을 대표하는 표본 가중치가 원 패널 가구 혹은 가구원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가중치 팽창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13차년도 노동패널 가중치 산출은 총 3단계(단계 1-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단계 2-가구가중치 산출; 단계 3-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각 단계 별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종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은 기본적으로 무응답 보정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응답 보정을 위해 13차년도의 각 가구원의 응답여부를 종속변수로, 12차년도의 변수(성, 연령, 지역, 교육수준, 주된 활동, 가구소득)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무

응답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가중치는

$$\hat{p}_i^{-1} w_i^{12}, \quad \hat{p}_i = [1 + \exp(\mathbf{x}_i' \hat{\boldsymbol{\beta}})]$$

로서 여기서 w_i^{12} 는 12차 년도에 개인(가구원) i 에 부여된 최종 종단면 가중치를 의미한다. 또한 \mathbf{x} 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사용된 설명변수 벡터를 나타낸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사용된 개인(가구원)은 원 패널 가구의 가구원이면서 동시에 12차 년도에 응답한 가구원의 집합이다. 즉 추정하는 응답확률은 $P(R_i = 1 \mid \text{원 패널 가구원, 12차 응답가구원})$ 로 표기할 수 있다. 여기서 R_i 는 13차년도 응답여부를 나타내는 지시변수이다. Duncan(1995)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서 원 패널 가구원(원 패널 가구의 가구원)의 해당 시점 응답여부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최초 시점의 관측된 원 패널 가구원의 특성변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원 가구 패널의 가구원이면서 12차년도 이전 1회 이상 응답하였고 12차 년도에 응답하지 않고 13차 년도에 다시 응답한 가구원에게는 최근 개인이 응답한 시기의 가구원의 소속 가구 가중치를 가구원 종단면 가중치로 부여함.¹⁴⁾

13차 년도에 유입된 비원가구 가구원의 경우, 종단면 가중치로 0을 부여함.

원 패널가구에 속하며 13차 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의 경우, 단계 2에서 산출된 가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가구의 가중치를 종단면 가중치로 정의하고 이 후 지속적으로 종단면 가중치를 산출함.

단계 2. 가구 가중치 산출

가구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1 단계에서 산출된 개인(가구원) 가중치들의 각 가구 별 평균으로 정의되며 가구 별 평균 산출 시 13차년도 가구 아이디가 사용되었다. 가구 가중치 부여 결과 한 명 이상의 원 가구

14) Duncan(1995)의 방법에 의하면 해당 시점에 관측된 원 패널가구원은 무응답 보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받게 됨.

가구원이 13차 년도에 조사된 경우, 해당 가구는 0이 아닌 가구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13차 년도에 조사된 가구 내의 가구원이 모두 원가구의 가구원이 아닌 경우, 즉 원년 이후 새로이 유입된 가구원들만이 조사된 경우, 각 가구원들의 종단면 가중치는 0이 되고 따라서 해당 가구의 가구 가중치 역시 0으로 부여된다. 가구 별 가구원의 종단면 가중치 평균 산출 시 주의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원 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3차 년도에 새롭게 패널에 유입되어 조사된 개인의 경우(예: 결혼, 입양 등), 평균 계산을 위한 신규 유입 가구원(개인)의 종단면 가중치로는 0을 사용한다. [단계 1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

원 패널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가 되어 패널에 새로이 유입된 경우, 평균 계산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 해당 가구원의 종단면 가중치로는 이 단계에서 계산되어진 가구 가중치가 개인 종단면 가중치로 부여되고 이 시점 이후의 종단면 가중치는 지속적으로 산출함.

단계 3. 횡단면 가구원 가중치 산출

13차 년도에 조사된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횡단면 가중치는 각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2 단계에서 산출된 가구 가중치로 정의된다. 언급한 바와 같이 13차 년도에 조사된 가구 내 가구원 중 원 패널가구 가구원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구의 가중치로 양의 값이 부여되기 때문에 원가구원이 조사되지 않은 가구에 속한 비원가구원을 제외하고 13차 년도에 조사된 모든 가구원은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4.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가중치는 KLIPS의 분석 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단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 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원표본가구원의 추출 확률이 원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원표본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원표본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는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 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 장부터 제시될 요약 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표 2-17〉 KLIPS 가중치의 사례 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전 체	평균	s.d.	전 체	종단면		횡단면	
					평균	s.d.	평균	s.d.
1차년도	11,276,899	2,255	415	30,039,370	2,255	417	2,255	417
2차년도	11,453,518	2,541	575	30,501,162	2,534	675	2,534	576
3차년도	11,632,899	2,727	721	30,974,696	2,764	879	2,764	726
4차년도	11,815,100	2,781	851	31,453,224	2,846	1,055	2,846	854
5차년도	12,000,165	2,792	946	31,939,145	2,912	1,215	2,912	964
6차년도	12,188,092	2,654	1,001	32,432,573	2,810	1,314	2,810	1,028
7차년도	12,378,982	2,599	1,063	32,933,624	2,824	1,447	2,824	1,117
8차년도	12,572,862	2,593	1,124	33,442,416	2,888	1,608	2,888	1,210
9차년도	12,769,778	2,553	1,175	33,959,067	2,889	1,720	2,889	1,277
10차년도	12,969,778	2,558	1,216	34,486,033	2,909	1,811	2,909	1,327
11차년도	13,174,121	2,575	1,321	35,016,440	2,984	2,022	2,984	1,459
12차년도	13,379,225	2,522	1,389	35,559,717	3,029	2,216	3,029	1,600
13차년도	13,582,499	2,526	1,550	36,093,293	3,116	2,508	3,116	1,818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본장에서는 13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 성공한 5,379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 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지난 13년간의 노동패널 조사 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 변동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 중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본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본다. KLIPS에서 가구를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같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교육, 군복무, 시설 및 친지 위탁 등의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미혼 자녀의 경우와 미혼 자녀 중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와 기혼 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¹⁵⁾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은 1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수 변화를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평균 가구원수는 2.9인으로 나타난다.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평균 가구원수는 2.9명, 광역시와 도지역도 평균 가구원수는 2.9명으로 거주지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가구원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인(20.9%), 1인(20.4%), 2인(19.8%)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명)

	전 체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명)
1차년도	5,000	10.2	13.1	19.4	38.0	13.8	5.5	3.5
2차년도	4,508	9.8	13.0	19.7	38.3	14.3	4.9	3.5
3차년도	4,266	10.3	13.7	19.7	38.0	13.6	4.7	3.5
4차년도	4,248	10.9	14.3	18.7	38.7	13.3	4.2	3.4
5차년도	4,298	11.2	15.2	19.4	38.4	12.3	3.6	3.4
6차년도	4,592	12.4	16.1	20.0	37.1	11.4	3.2	3.3
7차년도	4,762	13.4	16.4	20.8	36.4	10.5	2.7	3.2
8차년도	4,849	14.3	16.9	21.5	35.5	9.5	2.3	3.2
9차년도	5,001	16.2	17.5	20.8	34.4	9.0	2.2	3.1
10차년도	5,069	17.6	17.2	21.3	33.6	8.5	1.9	3.0
11차년도	5,116	18.3	18.2	21.7	32.6	7.6	1.6	3.0
12차년도	5,306	19.8	18.6	21.3	32.0	6.7	1.5	2.9
13차년도	5,379	20.4	19.8	20.9	30.7	6.9	1.4	2.9

15) 이들은 원가구원일 경우 분가가구 및 분가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13차년도 가구원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하락한 반면, 1~2인 가구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비중을 볼 때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자료¹⁶⁾에서 추정된 1인 가구의 비중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KLIPS의 경우 표본설계 당시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표본추출과정에서 1인 가구가 인구센서스에 비해 과소표집된 탓으로 보인다.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전체 (가구수)	1인 가구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
1차년도	5,000	10.2	10.1	69.8	9.8	0.1
2차년도	4,508	9.8	10.2	70.2	9.8	0.1
3차년도	4,266	10.2	10.7	69.7	9.4	0.1
4차년도	4,248	10.9	11.0	69.2	8.9	0.2
5차년도	4,298	10.9	11.8	68.9	8.3	0.1
6차년도	4,592	12.4	12.1	67.9	7.6	0.1
7차년도	4,762	13.4	12.1	67.7	6.8	0.1
8차년도	4,849	14.3	12.6	66.5	6.6	0.1
9차년도	5,001	16.2	12.9	64.5	6.3	0.0
10차년도	5,069	17.6	12.7	63.6	6.0	0.0
11차년도	5,116	18.3	13.0	62.8	5.8	0.0
12차년도	5,306	18.4	15.3	61.5	4.9	0.0
13차년도	5,379	20.4	14.7	59.6	5.2	0.0

〈표 3-2〉에서 보듯이 조사가구의 세대 구성¹⁷⁾을 살펴보면 다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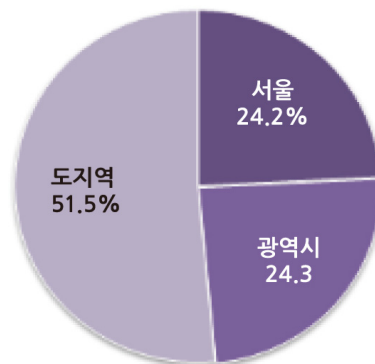
- 16) 장래가구추계에 의한 1인 가구 비중은 2002년 17.3%, 2003년 18.2%, 2004년 19.1%, 2005년 20.0%, 2006년 20.7%, 2007년 21.5%, 2008년 22.3%, 2009년 23.1%, 2010년 23.9%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 17)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인가구 : 가구 구성원이 1명인 가구.
-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 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이에 속한다.
-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같다. 가구주와 그의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5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4.7%를 차지하였다. 한편 1인가구가 20.4%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5.2%였다.

세대 구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차년도에서 10.2%였던 것이 13차년도 조사에서는 10.2%p가 증가한 20.4%였고,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서 4.6%p 감소한 5.2%로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1]은 제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보듯이 13차년도 조사에서 3세대 가구라고 응답한 가구 중 51.5%가 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지역에는 24.2%, 광역시 지역에는 24.3%만이 거주해 중소도시일수록 확대가족 형태를 지닌 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13차년도 3세대 가구의 지역별 비중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4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표 3-3>은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핵가족이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 단독),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한다. 먼저 부모+미혼자녀 가구가 49.9%로 가장 높았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 단독 가구가 13.9%,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7.6%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에서 조금씩 증가하다, 6차년도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13차년도에 71.5%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의 가구추계 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7.6%, 2002년 67.0%, 2003년 66.4%, 2004년 65.7%, 2005년 65.0%, 2006년 64.4%, 2007년 63.7%, 2008년 63.0%, 2009년 62.3%, 2010년 61.6%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KLIPS의 핵가족 비중이 약 6~9%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1~2인 가구에서의 비중 증가로 가구형태는 핵가족화에서 초핵가족화로 변지고 있으며, 최근 10년사이 '부부+자녀' 가구의 비중이 약 10%p정도 하락한 결과와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표 3-3> 연도별 가족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전체 (가구수)	핵가족 가구				1인가구	비핵가구
			부부단독	부모 + 미혼자녀	편부모+ 미혼자녀		
1차년도	5,000	74.4	9.0	59.3	6.1	10.2	15.4
2차년도	4,508	74.8	9.1	59.6	6.1	9.8	15.5
3차년도	4,266	75.0	9.5	59.1	6.5	10.2	14.8
4차년도	4,248	75.8	10.2	59.2	6.4	10.9	13.4
5차년도	4,298	76.0	10.8	58.6	6.6	10.9	13.1
6차년도	4,592	75.6	11.2	56.6	7.7	12.4	12.1
7차년도	4,762	75.6	11.2	56.4	8.0	13.4	11.0
8차년도	4,849	75.0	11.7	55.0	8.2	14.3	10.7
9차년도	5,001	73.6	12.1	53.6	8.0	16.2	10.2
10차년도	5,069	72.7	12.0	52.9	7.8	17.6	9.8
11차년도	5,116	72.7	12.3	52.4	8.0	18.3	9.0
12차년도	5,306	71.7	12.8	51.3	7.7	19.8	8.4
13차년도	5,379	71.5	13.9	49.9	7.6	20.4	8.1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본절에서는 KLIPS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다. KLIPS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⁸⁾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KLIPS의 경우 비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1. 가구주의 특성

<표 3-4>에서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0.6세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78.8%로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 이후 남성 가구주의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감소추세였고, 미혼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전체 연령 계층 중 가장 많은 비중인 27.3%를 차지하였다. 9차년도(26.1%)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40대는 9차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3.2%를 차지하였고, 30대와 동비중을 보였다. 패널이 장기화되면서 가구주의 연령도 비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

18) 인구주택총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가계조사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가구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43.3%까지 증가하였다.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 %, 세)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성별	남 성	86.1	86.1	86.1	85.9	85.4	83.5	83.2	82.0	81.5	81.0	80.2	79.6	78.8
	여 성	14.0	13.9	13.9	14.1	14.6	16.5	16.8	18.0	18.5	19.0	19.8	20.4	21.2
혼인 상태	미 혼	6.5	6.0	6.5	5.8	6.0	6.7	7.4	8.0	9.0	9.8	10.0	11.5	12.0
	기혼유배우	79.6	79.5	78.8	79.1	78.8	77.0	75.6	74.2	72.8	72.1	71.6	70.5	70.7
	기혼무배우	13.9	14.5	14.7	15.1	15.2	16.4	17.0	17.8	18.2	18.2	18.3	18.0	17.3
연령	30세 미만	6.3	5.1	4.3	4.7	4.3	5.0	4.7	5.2	5.0	5.1	5.4	6.3	6.2
	30대	26.9	26.8	25.4	23.1	22.9	22.9	22.8	22.4	22.5	22.6	22.3	22.6	23.2
	40대	28.4	28.2	28.7	30.0	28.9	28.7	28.2	27.0	26.1	25.6	25.0	24.4	23.2
	50대	20.1	19.7	19.8	19.2	19.3	18.8	19.5	20.2	20.8	20.5	20.3	20.0	20.1
	60세 이상	18.3	20.3	21.8	23.0	24.5	24.6	24.8	25.3	25.5	26.3	27.0	26.6	27.3
	평균(세)	46.8	47.5	48.2	48.7	49.1	49.1	49.4	49.6	49.8	50.0	50.1	50.5	50.6
교육 수준	무 학	6.3	6.2	6.2	6.0	6.1	5.8	5.6	5.6	5.3	5.1	5.0	4.6	4.4
	고졸 미만	33.7	33.1	32.7	33.4	31.9	30.4	29.2	28.1	26.6	25.5	24.4	22.9	21.8
	고 졸	34.9	34.4	34.3	32.8	32.6	32.6	31.6	30.8	30.3	29.4	27.9	27.2	26.5
	대재및중퇴	2.8	2.8	2.6	2.8	2.6	2.8	3.2	3.2	3.5	3.8	3.9	4.1	4.1
	(전문)대졸이상	22.3	23.5	24.2	25.1	26.8	28.4	30.4	32.3	34.2	36.2	38.8	41.1	43.3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 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1,582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표 3-5>에서는 13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보여준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 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6차부터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조사에서는 여성이 46.3%, 남성이 53.7%로 전년도에 비해 그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표 3-5〉 조사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세)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전 체		13,321	12,037	11,205	11,051	10,966	11,541	11,661	11,580	11,756	11,855	11,734	11,739	11,582
성 별	남 성	48.6	48.9	49.3	49.6	49.9	50.1	50.8	51.1	51.8	52.3	52.6	53.2	53.7
	여 성	51.4	51.1	50.7	50.4	50.1	49.9	49.2	48.9	48.2	47.7	47.4	46.8	46.3
연 령	15~19세	10.9	11.0	10.1	9.4	8.9	8.9	8.9	8.7	8.7	8.8	9.3	8.7	8.7
	20~29세	20.2	19.9	20.4	20.9	20.2	20.5	20.2	19.9	19.7	19.4	19.0	19.5	18.0
	30~39세	23.0	22.7	22.2	21.4	21.7	21.3	21.5	21.6	21.1	21.4	20.9	21.2	22.5
	40~49세	19.7	19.5	19.6	20.5	20.4	20.5	20.5	20.4	20.1	19.5	19.4	19.0	18.6
	50~59세	12.8	12.5	12.6	12.4	12.6	12.6	12.8	13.3	13.9	14.0	14.1	14.2	14.4
	60세 이상	13.5	14.5	15.1	15.5	16.2	16.1	16.0	16.3	16.5	16.9	17.3	17.3	17.8
	평균(세)	39.7	39.9	40.3	40.6	40.9	41.0	41.1	41.4	41.6	41.8	41.9	42.0	42.2
혼인 상태	미 혼	28.8	29.7	30.9	30.9	31.1	31.9	32.6	33.0	33.5	34.4	35.1	35.7	35.6
	기혼유배우	62.6	61.6	60.6	60.5	60.2	59.2	58.3	57.5	56.8	56.0	55.3	54.8	55.2
	기혼무배우	8.7	8.7	8.6	8.6	8.7	8.9	9.1	9.5	9.7	9.7	9.6	9.5	9.2
교육 수준	무 학	6.5	6.3	6.0	5.7	5.6	5.2	5.0	4.8	4.5	4.3	4.1	3.8	3.6
	고졸 미만	35.4	34.3	33.2	32.8	31.5	30.5	29.4	28.6	27.6	26.6	26.2	25.0	24.1
	고 졸	31.9	31.8	31.6	30.0	29.6	29.1	28.2	27.7	26.8	26.1	24.7	24.1	23.5
	대제및중퇴	8.5	8.8	9.1	9.9	9.6	9.6	10.0	9.6	10.3	10.7	10.9	10.8	10.7
	전문대졸	5.4	5.9	6.5	7.2	8.0	8.6	9.1	9.7	10.0	10.5	11.2	11.8	12.3
	대졸 이상	12.2	12.8	13.5	14.4	15.6	17.1	18.4	19.6	20.7	21.7	23.1	24.6	25.8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42.2세로 나타났다. 13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7.8%로 1차년도(13.5%)에 비해 4.3%p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2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10.9%)에 비해 2.2%p가 하락한 8.7%로 나타났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30대(22.5%)이고, 40대(18.6%)와 20대(18.0%)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과 고졸 미만에서는 그 비중이 감소추세였으며, 고졸에서도 최근 조사결과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무학 1차 6.5% → 13차 3.6%, 고졸미만 1차 35.4% → 13차 24.1%, 고졸 1차 31.9% → 13차 23.5%). 반면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차년도에 12.2%에 불과하던 대졸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13차년도에 25.8%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KLIPS의 조사 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 군입대,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 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¹⁹⁾

〈표 3-6〉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전체	2,362	148	122	191	150	217	206	172	187	217	247	238	267
남성	1,236 (52.3)	76 (51.4)	64 (52.5)	86 (45.0)	82 (54.7)	112 (51.6)	100 (48.5)	93 (54.1)	108 (57.8)	105 (48.4)	143 (57.9)	131 (55.0)	136 (50.9)
여성	1,126 (47.7)	72 (48.7)	58 (47.5)	105 (55.0)	68 (45.3)	105 (48.4)	106 (51.5)	79 (45.9)	79 (42.3)	112 (51.6)	104 (42.1)	107 (45.0)	131 (49.1)

주: ()안은 전체 대비 비중임.

먼저, 출생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1~13차년도 기간 동안 총 출생아는 2,362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 150명, 6차년도 217명, 7

19)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 단위의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13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차년도 206명, 8차년도 172명, 9차년도 187명, 10차년도 217명, 11차년도 247명, 12차년도 238명, 13차년도 252가구에 26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차, 7차, 10차년도의 경우에는 여아의 비중이 남아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 연도에는 남아의 비중이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1~13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사망한 표본에 대한 특성을 살펴본다. 총 사망자는 859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 59명, 4차년도 92명, 5차년도 60명, 6차년도 80명, 7차년도 72명, 8차년도 80명, 9차년도 76명, 10차년도 54명, 11차년도 63명, 12차년도 70명, 13차년도 사망자 89명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표 3-7> 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체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전 체		859	64	59	92	60	80	72	80	76	54	63	70	89
성 별	남 성	516 (60.1)	44 (68.8)	36 (61.0)	41 (44.6)	36 (60.0)	50 (62.5)	51 (70.8)	47 (58.8)	47 (61.8)	34 (63.0)	34 (54.0)	38 (54.3)	58 (65.2)
	여 성	343 (39.9)	20 (31.3)	23 (39.0)	51 (55.4)	24 (40.0)	30 (37.5)	21 (29.2)	33 (41.3)	29 (38.2)	20 (37.0)	29 (46.0)	32 (45.7)	31 (34.8)
사 망 당 시 연 령	50세 미만	107 (12.5)	12 (19.1)	6 (10.3)	10 (10.9)	12 (20.0)	15 (18.8)	11 (15.3)	7 (8.8)	8 (10.5)	3 (5.6)	5 (7.9)	7 (10.0)	11 (12.4)
	50~ 59세	91 (10.6)	6 (9.5)	6 (10.3)	12 (13.0)	6 (10.0)	9 (11.3)	12 (16.7)	11 (13.8)	5 (6.6)	5 (9.3)	4 (6.4)	6 (8.6)	9 (10.1)
	60~ 69세	171 (19.9)	18 (28.6)	15 (25.9)	11 (12.0)	10 (16.7)	20 (25.0)	16 (22.2)	14 (17.5)	18 (23.7)	8 (14.8)	16 (25.4)	11 (15.7)	14 (15.7)
	70~ 79세	228 (26.5)	14 (22.2)	17 (29.3)	26 (28.3)	23 (38.3)	14 (17.5)	20 (27.8)	19 (23.8)	19 (25.0)	13 (24.1)	18 (28.6)	21 (30.0)	24 (27.0)
	80세 이상	200 (30.3)	13 (14.1)	14 (24.1)	33 (35.9)	9 (15.0)	22 (27.5)	13 (18.1)	29 (36.3)	26 (34.2)	25 (46.3)	20 (31.8)	25 (35.7)	31 (34.8)
평균연령		-	65.5	69.3	70.7	66.8	67.2	65.4	72.2	72.5	75.3	72.4	72.3	70.4

주: 사망 시기를 응답하지 않아 사망 당시 연령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명 있음.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전체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60.1%(516명), 여성이 39.9%(343명)로 남성이 20.2%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자의 성별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사망 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조사 기간 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 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2.5%이며, 50~59세가 10.6%, 60~69세는 19.9%, 70~79세는 26.5%, 80세 이상은 30.3%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였는데, 이후 증감을 되풀이하며 13차년도에는 70.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연령 또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을 통해 13차년도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질병이 46.1%(4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노환이 42.7%(38명), 기타(사고 포함)가 11.2%(10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3-8>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명, %)

	노 환	질 병	기타
2차년도	45.3	40.6	10.9
3차년도	50.9	37.3	11.8
4차년도	53.3	40.2	6.5
5차년도	40.0	43.3	6.7
6차년도	40.0	42.5	8.8
7차년도	33.3	50.0	5.6
8차년도	40.0	52.5	5.0
9차년도	51.3	36.8	7.9
10차년도	55.6	38.9	3.7
11차년도	54.0	42.9	0.0
12차년도	37.1	50.0	12.9
13차년도	42.7	46.1	11.2

제 4 장

가계경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13차년도(2010년)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에 이어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절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 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지출을 생활비와 저축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 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또한, 2~13차년도의 연간총소득 및 월평균생활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제시하였다.

제 1 절 가구소득

KLIPS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특별히 9차년도 조사에서부터는 친척·친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보다 세분화하여, 따로 사는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도움, 따로 사는 자녀의 도움, 그 외 친척·친지 보조금으로 나누어 물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은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 또한 9차년도 조사에서는 그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므로, 연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²⁰⁾.

20) 13차년도에 조사된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금-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손해보험을 받은 금액 포함) (2) 보험금-저축성 보험의 만기지급금 및 중도해약으로 받은 금액, (3) 보험금 - 종신보험, (4) 퇴직금, (5) 증여·상속, (6) 축의금·조의금, (7) 복권이나 경마,

한편, KLIPS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13차년도의 경우 2009년 한 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와의 비교가능성을 생각하여 소득 중에서 보험금과 기타소득 항목은 제외하였다. 또한 당해 연도 분가한 가구의 소득은 온전한 지난해 1년간의 소득이 아니라 분가한 이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소득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의 소득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²¹⁾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연간 평균 총소득²²⁾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차년도의 명목 연간 총소득은 3,957만원(월평균 33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55만원 정도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²³⁾하면, 12차년도에 비해 146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차년도(1998년 소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0년에는 다시 증가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오락 경기 등의 당첨 상금/상으로 받은 상금, (8) 교통사고나 폭설, 폭우 등 재해로 인해 받은 보상금, (9) 기타.

21) 성재민,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소득자료 특성」, 『노동리뷰』 2006년 2월호 (통권 14호) 참조.

22) 소득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소득액을 0으로 처리함.

23) 실질소득 = (명목소득 / 당해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 100으로 산출하였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조사」의 물가지수(2010년 = 100 기준)를 사용하였다.

〈표 4-1〉 연간 가구의 총소득

(단위: 만원)

	2차년도 (1999년)	3차년도 (2000년)	4차년도 (2001년)	5차년도 (2002년)	6차년도 (2003년)	7차년도 (2004년)	8차년도 (2005년)	9차년도 (2006년)	10차년도 (2007년)	11차년도 (2008년)	12차년도 (2009년)	13차년도 (2010년)
명목소득	1,894 (0.016)	2,019 (0.021)	2,173 (0.015)	2,663 (0.016)	2,818 (0.018)	2,966 (0.017)	3,111 (0.016)	3,372 (0.017)	3,599 (0.017)	3,755 (0.017)	3,702 (0.014)	3,957 (0.018)
실질소득	2,649	2,762	2,856	3,406	3,482	3,538	3,612	3,829	3,986	3,973	3,811	3,957

주: ()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4-2>를 통해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에 대해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6.1%였으며, 그 금액도 가장 큰 것(3,8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기타소득과 부동산소득이 각각 연평균 2,570만원과 1,752만원으로 비교적 가계소득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평균 소득액이 가장 낮은 소득원천은 이전소득으로 연간 평균 438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득액 기준이 아닌 소득 유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41.9%의 가구가 이전소득이 있다고 응답해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4-2〉 소득원천별 연간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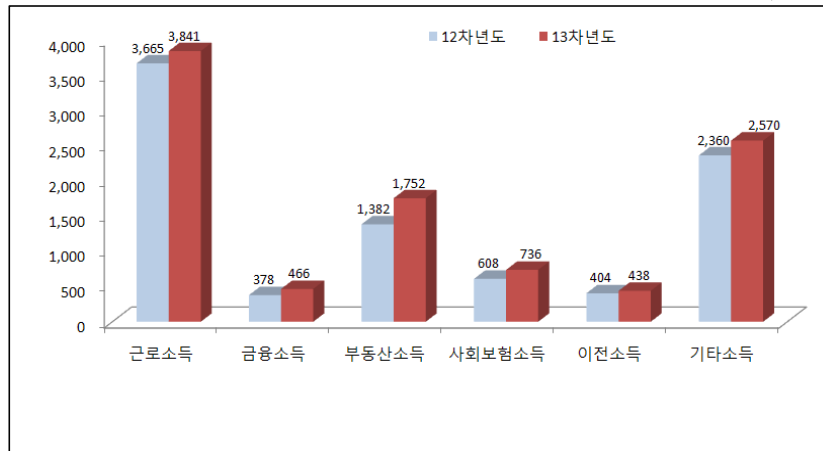
(단위: 만원,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연평균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연평균소득	해당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근로소득	3,665	84.7	3,841	86.1
금융소득	378	12.3	466	9.8
부동산소득	1,382	9.9	1,752	9.8
사회보험소득	608	7.1	736	15.8
이전소득	404	44.1	438	41.9
기타소득	2,360	7.2	2,570	6.5

한편 12차년도와 13차년도의 각 소득별 차이를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모든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소득은 부동산 소득이었다.

(그림 4-1) 각 소득별 비교

(단위: 만원)



제 2 절 가구지출

이 절에서는 13차년도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지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KLIPS에서 가구지출은 작년 한 해(13차년도의 경우 2009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 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부터는 1~3차년도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항목별 생활비를 묻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외식비,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사교육

비(학원, 과외비 등),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주거비(주택 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용돈, 피복비,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 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고, 6차년도 조사에서는 피복비 항목, 그리고 7차년도 조사에는 현금 및 각종 기부금,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대중교통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9차년도 조사부터는 용돈 항목을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 자녀 용돈, 그 외 가구원의 용돈으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11차년도 조사부터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로 각각 분리하여 조사하고 있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예·적금, 개인연금,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계, 기타로 구성되었다. 이후 9차년도 조사부터는 종신보험 항목을, 10차년도 조사부터는 적립식 펀드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하고 있다.

1. 생활비

<표 4-3>은 2~13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제시하였다. 13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4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증가폭은 4차년도까지 점차 커지다가 5차년도부터는 완만해진 이후, 10차년에 다시 대폭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로는 도로 완만해졌다.

생활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2차년도 16.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3차년도 조사에서는 6.2%까지 감소한 반면, 월 3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2차년도에는 1.8%에 불과했으나 5차년도부터는 크게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2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만원)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전 체	4,474	4,248	4,212	4,290	4,567	4,746	4,804	4,954	5,032	5,114	5,306	5,379
50만원 미만	16.7	15.6	13.8	11.6	10.7	9.4	8.6	8.7	8.2	6.7	6.7	6.2
50만~100만원 미만	34.9	31.1	28.7	21.3	20.3	18.3	17.6	16.5	15.8	15.0	12.8	13.1
100만~150만원 미만	28.4	25.9	28.1	26.3	23.9	21.6	21.3	20.1	18.3	16.8	15.2	16.0
150만~200만원 미만	11.3	14.5	15.5	19.0	18.7	19.7	18.7	17.8	16.9	17.1	16.2	15.9
200만~250만원 미만	5.8	7.8	8.0	11.5	12.8	13.7	14.7	14.8	14.5	15.5	16.0	14.7
250만~300만원 미만	1.1	2.4	2.5	4.8	5.6	6.9	7.1	7.9	9.5	9.8	10.7	10.0
300만원 이상	1.8	2.8	3.5	5.5	7.9	10.4	12.0	14.2	16.8	19.2	22.4	24.1
월평균 생활비	101	108	118	137	151	163	169	177	190	194	203	207

주요 항목별 생활비²⁴⁾를 살펴보면(그림 4-2 참조), 월평균 식비는 35만원으로, 식비가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유지비 19만원, 그 외 가구원의 용돈 19만원, 주거비 18만원 등이었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월평균 공교육비는 13만원, 사교육비는 18만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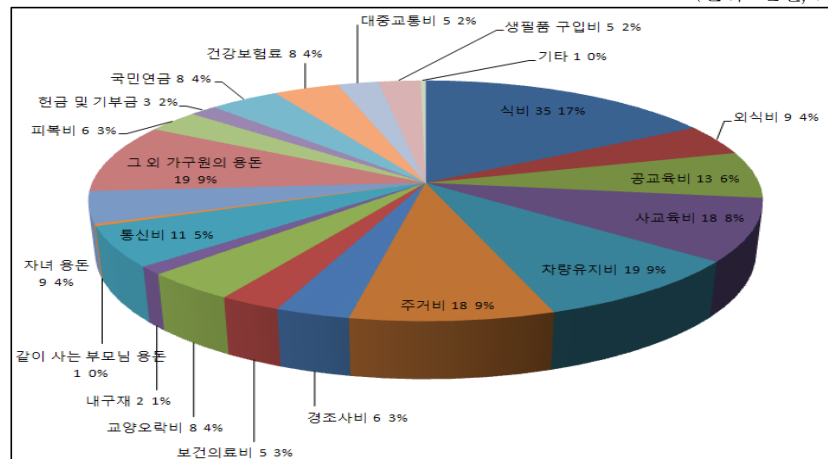
그 외 9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생필품 구입비는 월평균 5만원이었고, 9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하고 있는 용돈의 경우에는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이 1만원, 자녀용돈이 9만원, 그 외 가구원의 용돈이 19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이 사는 부모님 용돈의 액수가 낮은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2차년도부터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은 각각 8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12차년도와 13차년도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을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한국노동패널 2, 4~13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평균 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그림 4-2] 13차년도 주요항목별 생활비

(단위: 만원, %)



<표 4-4> 주요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만원,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항목별 월평균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항목별 월평균생활비	생활비에서의 비중
식비	33	16.0	35	16.6
외식비	8	3.8	9	4.1
공교육비	15	6.9	13	6.3
사교육비	17	8.1	18	8.4
차량유지비	18	8.8	19	9.2
주거비	19	9.0	18	8.5
경조사비	7	3.3	6	3.1
보건의료비	6	3.0	5	2.6
교양오락비	9	3.0	8	3.9
내구재	2	1.0	2	1.1
통신비	11	5.3	11	5.5
같이사는 부모님 용돈	1	0.3	1	0.3
자녀용돈	9	4.3	9	4.3
그 외 가구원의 용돈	19	9.0	19	9.2
피복비	6	2.9	6	3.0
현금 및 기부금	4	1.7	3	1.5
국민연금	8	3.6	8	3.9
의료보험	7	3.4	8	3.6
대중교통비	5	2.5	5	2.3
생활품구입비	4	2.0	5	2.3
기 타	2	0.8	1	0.3

2. 저 축

13차년도 조사가구 중에서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61.1%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50만 7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5 참조).

2~13차년도 기간 동안 저축을 한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각각 52.1%와 51.3%로 다소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5차년도에는 73.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6차년도에 저축을 하는 가구의 비중은 65.6%, 7차년도에는 64.9%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8차년도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다가 11차년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는 2차년도 24만 6천원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3차년도에는 50만 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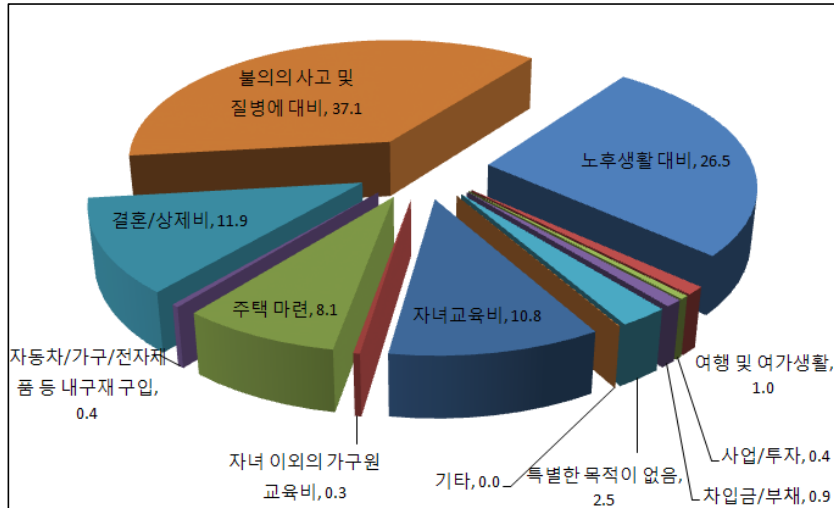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98	4,592	4,762	4,849	5,001	5,069	5,116	5,306	5,379
저축안함	47.9	48.7	31.1	26.9	34.4	35.1	31.5	31.2	30.3	39.2	40.8	38.9
저축함	52.1	51.3	68.9	73.1	65.6	64.9	68.5	68.8	69.7	60.8	59.2	61.1
월평균 저축액	24.6	28.6	34.1	41.7	40.7	42.9	44.8	46.1	52.6	47.9	49.5	50.7

다음으로 13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다.²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37.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 26.5%, ‘결혼/상제비’ 11.9%, ‘자녀 교육비’ 10.8%로 이들 네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와 비교하면, ‘불의의 사고 및 질병’과 ‘결혼/상제비’는 각각 1.3%p와 4.1%p 감소한 반면에 ‘노후생활 대비’는 7.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 복수 응답 결과를 비율로 나타냄

[그림 4-3]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3.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따로 사는 가족들과의 경제적 교류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KLIPS는 4차년도 이후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에 관해 조사해 왔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존재 여부,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따로 사는 부모님과의 교류에 대해서만 파악이 가능할 뿐, 따로 사는 자녀들과의 교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9차년도 조사부터는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과의 교류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여, 가구의 사적 이전에 관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던 8차년도 이전 조사와는 달리 9차년도 부터는 현금 교류액과 현물 교류액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었는지는 <표 4-6>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가구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19.9%였으며,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도움이 있었던 경우는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의 22.8%와 20.9%에 비해 낮아진 수치이다. 반면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도움이 있다는 응답이 62.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전년의 59.3%에 비해 많이 높아진 수치이다. 반대로 가구주의 부모님과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께 드린 경제적 도움은 각각 66.2%와 63.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도움은 21.3%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자녀세대에서 부모세대로의 도움을 주는 경제적 교류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6〉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가구, %)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드리는 도움	받은 도움	주는 도움
12차년도 (2009년)	전 체	2,553		2,235		1,778	
	없었음	77.2	31.4	79.1	35.1	40.7	75.9
	있었음	22.8	68.6	20.9	64.9	59.3	24.1
13차년도 (2010년)	전 체	2,630		2,293		1,851	
	없었음	80.1	33.8	81.3	36.1	37.5	78.7
	있었음	19.9	66.2	18.7	63.9	62.5	21.3

그렇지만 횟수와 달리 경제적 교류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즉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드린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연간 평균 483만 3천원,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83만 7천 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따로 사는 자녀에게 준 금액 또한 668만 5천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주와 그 배우자의 부모

님께 드렸던 금액은 각각 183만 9천원, 115만 6천원에 그쳤으며, 따로 사는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 또한 344만원에 그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에게 이전되는 소득이 적은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형태인 데 반해, 부모 세대의 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은 결혼자금, 학자금과 같이 목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대체적으로 현물보다는 현금을 통한 교류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이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액에 비해 현격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 따로 사는 가족과의 경제적 교류 액수

(단위 : 만원)

		가구주의 부모님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님		따로 사는 자녀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드렸던 금액	받은 금액	주었던 금액
12차년도 (2009년)	지난해 연간총금액	416.3	184.7	226.2	115.4	358.7	613.1
	현금	368.3	165.5	164.7	100.7	323.0	560.8
	현물	48.0	19.2	61.5	14.7	35.7	52.3
13차년도 (2010년)	지난해 연간총금액	483.3	183.9	283.7	115.6	344.0	668.5
	현금	431.0	164.4	208.2	99.9	310.0	625.1
	현물	52.3	19.5	75.5	15.7	34.0	43.4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하여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는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오게 된 동기를 묻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주택을 의미한다. 또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이하의 4층 이하의 주택을, 상가주택은 1·2층은 점포나 사무실이고 3층 이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고층의 병용주택(빌딩)을 뜻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 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가 아닌지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먼저 <표 4-8>을 통해 13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56.0%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4.5%, 월세 12.7%로 나타났다. 2~13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 소유자의 비중이 2차년도 56.6%에서 6차년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7차년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으로 보이고 있다. 반면, 전세의 비중은 3차년도 30.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차년도에 21.7%로 가장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월세는 5차년도에 7.3%로 가장 낮아졌다가 등락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8〉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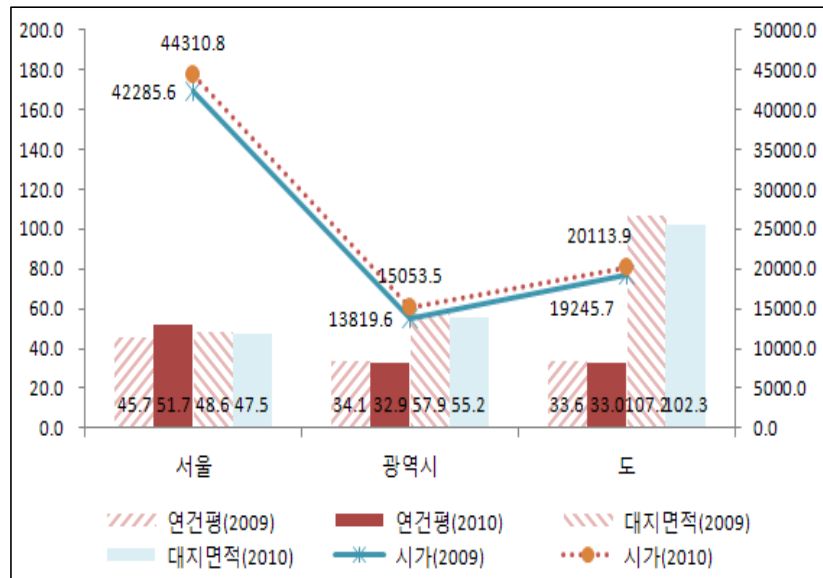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전체	4,508	4,258	4,247	4,286	4,592	4,762	4,849	5,001	5,069	5,116	5,306	5,379
자가	56.6	56.8	59.2	60.1	61.1	60.7	60.7	59.7	59.1	59.1	56.5	56.0
전세	30.1	30.4	28.6	27.7	23.8	23.1	23.3	22.8	21.7	22.8	24.6	24.5
월세	9.1	8.4	7.6	7.3	9.2	10.6	11.3	11.7	13.1	12.6	13.0	12.7
기타	4.2	4.3	4.6	5.0	5.9	5.7	4.7	5.7	6.1	5.5	5.9	6.8

[그림 4-4]를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 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4)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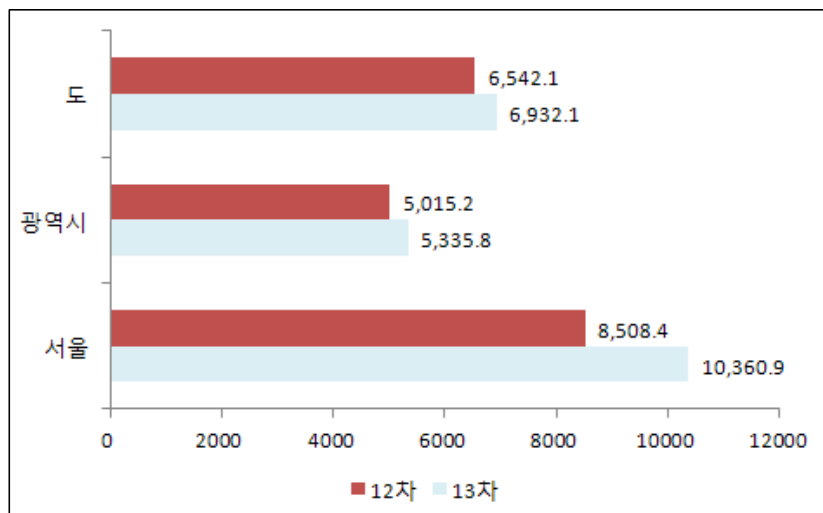
(단위: 평, 만원)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102.3평인 데 비해서 광역시는 55.2평, 서울은 47.5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51.7평인 데 비해서 도 지역과 광역시는 각각 32.9평, 33.0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이 가장 높은 4억 4,311만원인 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34.0%에 해당하는 1억 5,054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 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2억 1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지난해 4억 2,286만원에 비해 4.8%p, 광역시는 지난해 1억 3,820만원에 비해 8.9%p, 도 지역은 지난해 1억 9,246만원에 비해 4.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시 지역의 시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거주지별 전세거주자 임대보증금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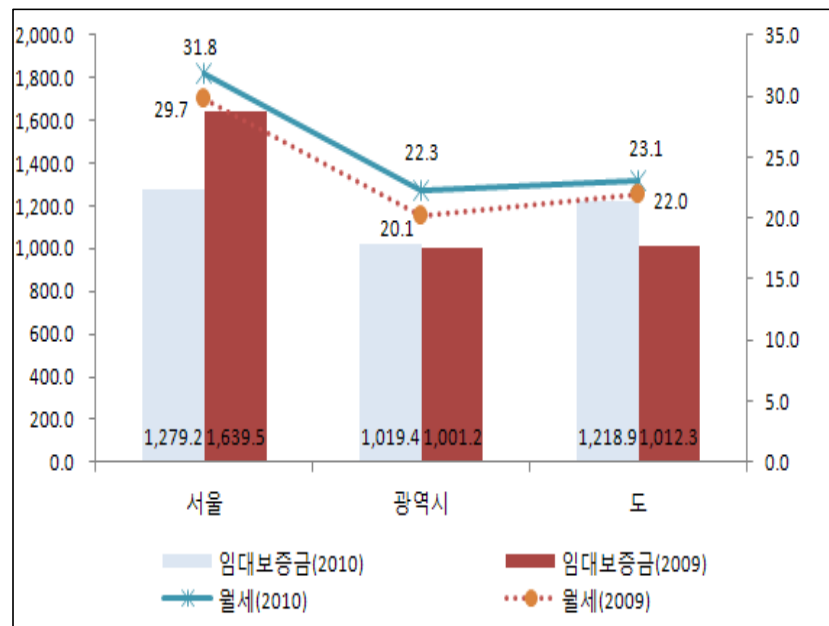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4-5]는 거주지가 전세인 경우 임대보증금을 비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전세거주 응답자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361만원으로 광역시(5,336만원)보다 약 94% 정도 높으며, 도 지역(6,932만

원)보다도 약 1.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년대비 서울은 21.8%p, 광역시는 6.4%p, 도 지역은 6.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 지역의 상승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에서 월세거주자의 거주지별 임대 보증금 및 월세를 살펴 보면, 월세는 서울이 월 32만원으로 광역시(22만원)와 도 지역(23만원)에 비해 약 10만원 가량 높았다. 임대보증금은 서울이 1,279만원으로 광역시 1,019만원에 비해 25.5%p, 도 지역 1,219만원에 비해 5.0%p 높았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월세는 모든 지역에서 조금씩 증가했으나, 임대보증금은 광역시와 도만 증가하고 서울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림 4-6] 거주지별 월세거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세

(단위 : 만원)



2. 주택의 종류

<표 4-9>는 2~13차년도 주택 종류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13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49.6%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이 24.8%, 연립주택이 10.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8차년도부터 기타에서 분리하여 질문하고 있는 상가주택은 2.9%를 차지했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2차년도 33.5%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차년도에 이르러 49.6%p 증가하여 전체 주택 종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립주택도 약간씩 증가하는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 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10년 39.6%), 아파트의 비중 증가(1970년 0.7% → 2010년 47.1%)라는 추세가 KLIPS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9> 가구의 주택 종류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전체	4,508	4,258	4,247	4,286	4,592	4,762	4,849	5,001	5,069	5,116	5,306	5,379
단독주택	38.4	37.7	38.0	36.5	36.6	34.1	32.0	29.1	28.4	26.7	26.1	24.8
아파트	33.5	34.4	35.7	7.3	39.6	41.4	43.6	44.3	45.6	47.1	48.1	49.6
연립주택	7.8	8.0	7.8	7.7	7.5	8.3	8.7	8.4	8.7	9.0	10.7	10.8
다세대주택	15.3	15.1	12.0	12.3	10.2	10.1	11.2	13.5	12.5	12.9	10.5	10.1
상가주택	-	-	-	-	-	-	3.4	3.5	3.3	3.4	3.3	2.9
기타	5.0	4.9	6.6	6.1	6.2	6.1	1.1	1.2	1.6	0.9	1.3	1.8

주: 상가주택은 8차년도 조사부터 세분화하여 질문한 항목으로, 이전 연도 조사에서는 기타로 분류되어 왔음.

제4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지출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13차년도의 경우 2010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KLIPS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좌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갯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자산

먼저 부동산자산을 살펴보면, 13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0.8%로 전년도에 비해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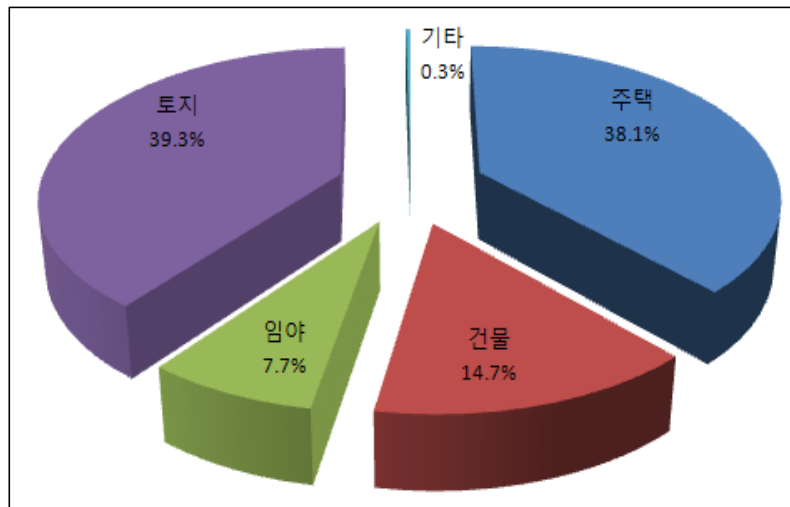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자산에 대한 시가 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13차년도의 경우 1억~3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4.2%로 전년도에 이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소유여부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10차년도 조사 이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과 부동산 자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시장이 최근 침체되어 있는 것이 KLIPS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0〉 부동산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전 체	4508	4266	4248	4238	4532	4762	4849	5001	5089	5116	5306	5379
부동산 없음	78.7	80.0	77.7	77.7	78.8	78.7	77.2	76.6	76.3	76.5	77.8	79.2
부동산 있음	21.3	20.0	22.3	22.3	21.2	21.3	22.8	23.4	23.7	23.5	22.2	20.8
1천만원 미만	8.7	6.3	8.3	5.8	6.8	6.1	4.1	3.0	4.0	2.9	4.6	5.1
1천~5천만원 미만	28.9	30.2	27.7	24.1	28.5	21.6	21.8	18.8	15.2	16.5	12.4	17.8
5천~1억원 미만	24.2	24.0	26.5	26.5	19.1	19.2	18.0	18.1	20.2	17.4	23.0	22.1
1억~3억원 미만	28.4	30.7	26.5	31.0	28.8	30.2	32.5	34.3	31.1	32.2	29.4	34.2
3억~5억원 미만		5.3	4.4	5.9	7.1	9.4	10.1	11.3	11.4	12.6	11.5	11.4
5억~10억원 미만	3.6	2.3	2.8	4.0	5.9	7.1	7.6	8.7	9.9	11.2	6.4	5.5
10억원 이상	1.5	1.3	1.8	1.8	2.8	3.2	4.5	4.8	7.7	7.2	5.8	3.6
잘 모르겠음	4.6	-	2.0	0.9	1.0	3.2	1.3	1.1	0.5	0.1	0.2	0.3

〈그림 4-7〉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13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 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 종류까지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7]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토지로 전체 응답 중 39.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38.1%, 건물이 14.7%, 임야가 7.7%, 기타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주택 비율은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자산

<표 4-11>을 통해서 13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13차년도 62.5%로 지난 12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11차년도 조사 이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7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8차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2,173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11> 금융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11차 년도	12차 년도	13차 년도
전 체	4,494	4,243	4,201	4,276	4,575	4,739	4,794	4,975	5,023	5,116	5,306	5,379
없음	28.8	35.1	34.1	33.7	36.7	39.0	34.5	37.6	34.2	40.5	39.4	37.5
250만원 미만	15.7	12.7	14.7	12.4	11.8	12.0	10.8	10.0	11.1	6.9	6.2	6.5
250만~500만원	8.6	7.4	6.1	5.6	5.3	5.7	5.6	6.2	5.9	4.8	4.1	4.5
500만~1,000만원	12.7	12.4	12.3	11.4	10.8	9.7	11.2	10.1	11.4	10.3	10.0	10.3
1,000만~5,000만원	27.8	25.2	25.4	27.7	27.2	24.7	28.0	26.2	26.6	27.4	29.6	29.5
5,000만~1억원	4.4	4.6	4.4	6.1	4.7	5.3	5.8	5.5	6.1	5.8	6.0	6.6
1억원 이상	2.0	2.7	3.1	3.0	3.6	3.6	4.2	4.4	4.8	4.3	4.7	5.1
평 균(만원)	1,344	1,396	1,582	1,598	1,674	1,670	1,906	1,912	2,084	2,079	2,078	2,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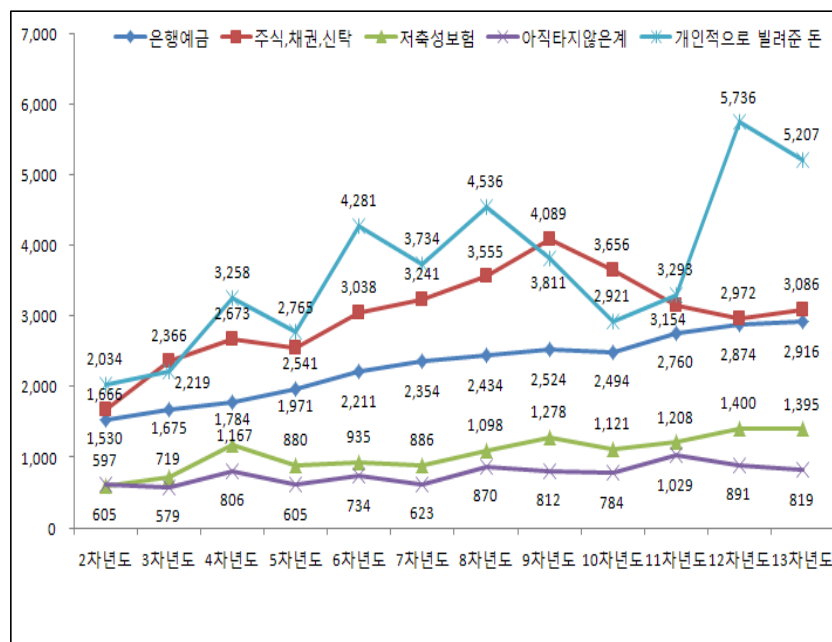
주: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13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6.5%, 250만~500만원 미만인 가구가 4.5%, 500만~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000만~5,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자산이 적은 가구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금융자산이 이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7차년도에 금융자산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늘고, 5,000만~1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이 6차년도에 다소 감소하였다가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4-8) 금융자산의 종류별 평균금액 추이

(단위 : 만원)



주 : 해당 자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 후 계산함.

다음으로 [그림 4-8]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속되어 온 완만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7~9차년도 동안 크게 증가했던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의 비중은 11차년도와 12차년도에 감소하다가 13차년도에 약간 상승함을 보였다.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은 여전히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격차는 연도별로 증가하다가 10차년도부터 감소하여 13차년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원으로 은행예금(1,530만원)보다 136만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1만원과 88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후 5차년도에는 조금 감소하여 570만원으로 좁혀졌으나, 6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다시 827만원이 되었고 7차년도에는 887만원으로, 9차년도에는 1천565만원으로 확대되었다가 10차년도에는 다시 1천162만원으로 좁혀졌으며 13차년도에 이르러서는 30만원까지 좁혀졌다.

한편 저축성보험금과 계의 경우에는 그 액수도 크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가구의 부채

13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4.8%를 차지하여 2차년도 조사(50.5%) 당시보다 약 5.7%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반면 평균 부채 잔액은 2차년도 1,843만 8천원이던 것이 3차년도에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13차년도에는 3,903만 5천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2차년도에는 49.5%였다가 3차년도에 53.3%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9차년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10차년도부터 다시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55.2%로 나타났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부채 잔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는 2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12.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부채 잔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11차년도	12차년도	13차년도
전 체	4,491	4,259	4,225	4,281	4,581	4,742	4,829	4,988	5,046	5,105	5,176	5,379
부채 없음	49.5	53.3	50.6	50.0	49.6	49.2	48.5	47.4	47.6	51.5	52.3	55.2
500만원 미만	7.1	5.5	5.5	5.2	4.5	3.8	4.1	4.3	3.9	2.8	4.0	2.7
500만~1천만원	7.1	6.1	6.5	6.2	5.7	5.0	4.4	4.4	4.5	4.1	3.4	3.3
1천만~5천만원	26.3	24.2	26.7	26.5	25.4	25.1	25.2	24.1	22.6	21.4	19.1	17.9
5천만~1억원	6.3	7.0	6.7	7.0	8.4	9.5	9.0	10.2	10.9	9.5	8.4	8.9
1억원 이상	3.8	4.0	4.1	5.2	6.4	7.5	8.7	9.7	10.5	10.7	9.1	12.2
평 균(만원)	1,843.8	1,745.6	1,817.1	2,123.8	2,583.2	2,702.5	2,989.7	3,211.3	3,682.8	3,603.0	3,085.8	3,903.5

주: 가구의 부채잔액 평균은 0을 포함한 평균값임.

제 5 절 자녀 교육비

KLIPS는 자녀의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항목을 측정해 오고 있다. KLIPS 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사교육 및 탁아서비스의 이용 여부, 이용하는 종류와 이용횟수,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 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였으며, 자녀의 사교육과 탁아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들 항목에 대해서 2차년도(1999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고,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는 조사 대상이 재수생 이하 자녀로, 그리고 7차년도(2004년) 조사부터는 대학(원)생 자녀로까지 확대 조사하였다.

한편, 7차년도 조사에서 신설된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항목은 학교 또는 회사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한 정규학교 등록금과 그 외 지출비용(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기타 교육 관련 잡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11차년도 조사부터

는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등록금 외 지출비용 중 취업준비 등을 위한 사교육비를 따로 묻고 있다.

우선 각 가구의 자녀의 유무와 자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표 4-13>과 같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7.5%였으며, 2명인 경우가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14.6%의 가구만이 대학생자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학생 자녀는 1명인 경우가 8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4-13> 가구내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단위: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고등학생 이하 자녀	있음		38.0	고등학생 이하 자녀	있음		37.5
		1명	16.9(44.5)			1명	17.0(45.3)
		2명	18.4(48.3)			2명	17.9(47.7)
		3명 이상	2.7(7.2)			3명 이상	2.6(7.0)
	없음		62.0		없음		62.5
대학생 이상 자녀	있음		15.0	대학생 이상 자녀	있음		14.6
		1명	12.0(80.4)			1명	11.7(80.0)
		2명	2.9(19.1)			2명	2.8(19.2)
		3명 이상	0.1(0.6)			3명 이상	0.1(0.8)
	없음		85.0		없음		85.4

주 : () 안의 수치는 '있음' 내의 비중임.

다음으로 <표 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1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72.7%에 달해,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정의 대부분이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연평균 688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당 연평균 567만 1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고등학

교 이하 자녀를 둔 경우보다도 많은 76.3%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48.9%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구는 정규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14〉 자녀의 사교육비 및 부담 정도

(단위 : %, 만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 (월평균)	대학생 이상 자녀 (연평균)
12차년도 (2009년)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36.2	57.2
		약간 부담된다	38.4	18.8
		보통이다	17.4	12.6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7.0	5.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1.0	6.3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39.8	700.0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24.7	583.8
13차년도 (2010년)	(사)교육비 부담 정도	매우 부담된다	27.7	48.9
		약간 부담된다	45.0	27.4
		보통이다	19.7	12.4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6.5	6.2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9	5.1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41.1	688.0
	자녀당 평균 (사)교육비 (만원)		25.9	567.1

제 5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차년도(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 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10년도 제13차 KLIPS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차년도부터 13차년도까지 1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구학적 분포를, 제3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방법,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1절 경제활동상태

<표 5-1>은 1~13차년도간 조사된 개인 원표본 사례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원표본 개인에 대해서만 0을 초과하는 값이 부여되므로, 아래의 표는 종단면 가중치를 0보다 크게 부여받은 개인 표본수이다. 조사 초기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면서 개인 원표본 사례수도 급격히 줄었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

단면 가중치는 조사원칙에 따라 조사된 모든 개인 표본에 부여되므로 개인 원표본보다 많은데, 13차에는 1,432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단위: 명)

		전 체	개인 자료	신규 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9	11,236	473
3차년도		10,798	10,495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10,295	10,072	223
6차년도		10,657	10,381	276
7차년도		10,692	10,450	242
8차년도		10,521	10,313	208
9차년도		10,591	10,378	213
10차년도		10,591	10,373	218
11차년도		10,410	10,184	226
12차년도		10,354	10,168	186
13차년도	종단 사례수	10,126	9,948	178
	횡단 사례수	11,558	11,193	365

주: 1~12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13차년도 종단 분석도 동일하게 계산. 13차년도 횡단 분석 사례수는 횡단면 가중치 0을 초과한 값을 부여받은 사례수.

KLIPS의 경제활동상태 구분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구분과는 다소 다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는 15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 기간²⁶⁾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 수입이 있는 노동을 제공했으면 취업자로, 그 기간에 그런 노동을 위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하며, 이들을 묶어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반면 KLIPS는 조사일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취업자로 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취업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된 미취업자 중 지난 1주(또는 4주)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구분한다. 이로 인해 조사일 이전 주에 구직활동을 하고, 조사일 주에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통계청 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분류되지만 KLIPS에서는 취업자로

26) 조사일 바로 전 주가 조사 대상 기간이다.

분류된다.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만 고려하면 되는 횡단면 조사와 달리, 종단적으로 바뀌는 모든 일자리 변동 상황을 기록해야 하는 KLIPS의 특성상 미취업자와 구분되는 의미로서 취업자를 정의할 때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류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적용하고 있다.

〈표 5-2〉 경제활동상태 비교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차년도	48.3 (48.3)	7.6 (9.4)	44.1 (42.3)
2차년도	51.8 (51.8)	3.8 (4.5)	44.5 (43.7)
3차년도	51.4 (51.4)	2.4 (2.9)	46.3 (45.7)
4차년도	52.4 (52.4)	2.1 (2.6)	45.5 (45.0)
5차년도	53.9 (53.9)	2.0 (2.3)	44.1 (43.8)
6차년도	53.6 (53.6)	2.5 (2.8)	43.9 (43.6)
7차년도	53.4 (53.4)	2.8 (3.2)	43.8 (43.4)
8차년도	53.0 (53.0)	2.8 (3.4)	44.2 (43.7)
9차년도	53.2 (53.2)	2.7 (3.2)	44.0 (43.6)
10차년도	53.0 (53.0)	2.4 (2.9)	44.7 (44.2)
11차년도	53.6 (53.6)	1.9 (2.2)	44.5 (44.2)
12차년도	53.9 (53.9)	2.6 (2.8)	43.6 (43.3)
13차년도	55.1 (55.1)	1.6 (1.9)	43.3 (42.9)

주: ILO 기준 실업자 정의. () 안은 OECD 기준 실업자 정의.

합쳤을 때 100.0이 안 되거나 넘는 경우는 모두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들임. 비중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00.0이 되도록 계산되어 있으므로, 실업자는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실업자 비중이지 실업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님. 각 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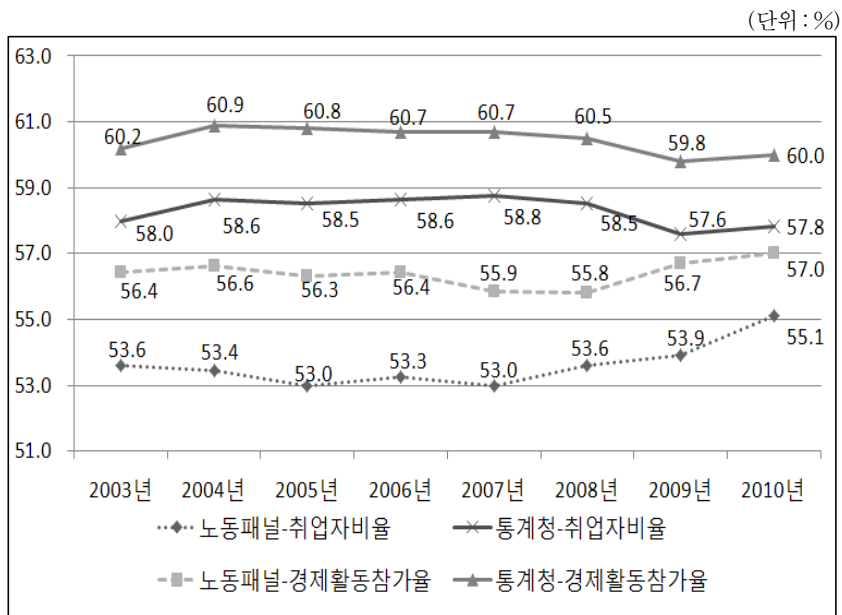
〈표 5-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1차년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5차년도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등락을 거듭하며 13차년도의 경우 55.1%로 조사되었다. 실업자²⁷⁾

27) 현재 공식 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한 데 반해,

의 비중은 8차년도 이후 하락해 11차년도에는 1.9%를 기록하였고, 12차년도에 증가했다가 13차년도에는 1.6%를 기록하였다. 한편, 비경제활동 인구는 13차년도 현재 43.3%를 기록했다.

[그림 5-1]과 [그림 5-2]는 지난 8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인구비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은 약 2~4%p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대로 실업률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 최근 8년간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인구비율 비교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 100.

취업인구비율 = 취업자/생산가능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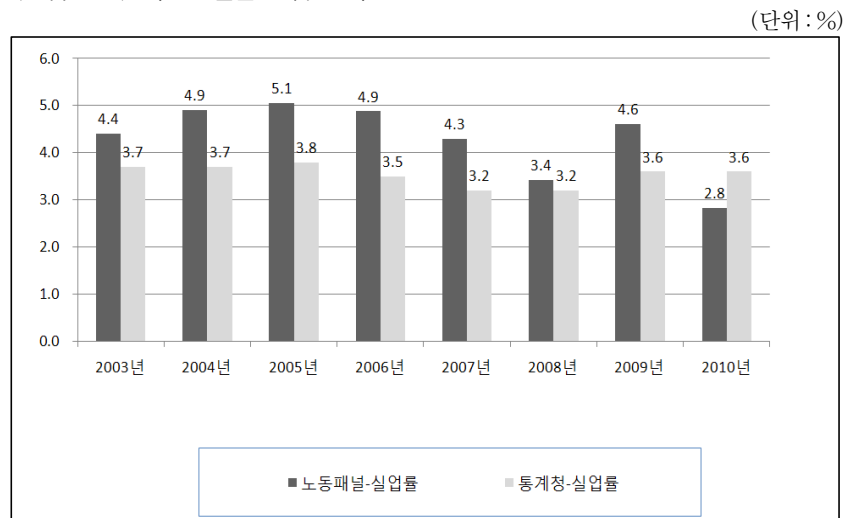
실업자를 OECD 정의에 근거해 산출했을 경우 계산되는 경제활동인구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들어 OECD 기준으로 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다.

노동패널의 2010년 실업률이 경찰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2010년 경찰조사의 실업률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낮아진²⁸⁾ 반면, 노동패널은 하반기에만 조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5-2] 최근 8년간 실업률 비교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비농가부문임. 실업률 = 실업자(ILO 정의)/경제활동인구 × 100.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시하였음.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표 5-3>과 <표 5-4>는 산업별로 KLIPS와 경찰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KLIPS에서도 경찰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 2010년 경찰조사의 비농가 월별 실업률은 4.9%, 4.4%, 4.0%, 3.7%, 3.1%, 3.5%, 3.6%, 3.2%, 3.1%, 3.2%, 2.9%, 3.3%임

〈표 5-3〉 KLIPS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9.3	21.4	69.4
1999년	8.7	22.5	68.9
2000년	8.3	22.7	69.0
2001년	7.4	21.4	71.2
2002년	6.6	21.3	72.2
2003년	6.3	20.9	72.8
2004년	5.7	20.0	74.3
2005년	5.5	20.5	74.0
2006년	5.0	21.0	74.0
2007년	5.0	20.4	74.6
2008년	4.7	19.8	75.5
2009년	4.6	17.7	77.7
2010년	4.4	18.4	77.3

주: 1) 1998~2008년은 2002년에 개정된 제7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2009년 이후는 제 9차 표준산업분류 기준

2) 1차 산업: 농업 및 임업, 어업을 포함.

2차 산업: 광업 및 제조업.

3차 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 영상 등 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 등 환경복원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을 포함.

3) 경제활동인구 조사와의 비교를 위해 각 차수를 해당 연도로 표기.

4)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4〉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년	12.0	19.7	68.2
1999년	11.3	19.9	68.7
2000년	10.6	20.4	69.0
2001년	10.0	19.9	70.2
2002년	9.3	19.2	71.5
2003년	8.8	19.1	72.1
2004년	8.1	19.1	72.8
2005년	7.9	18.6	73.5
2006년	7.7	18.1	74.2
2007년	7.4	17.7	75.0
2008년	7.2	16.9	75.9
2009년	7.0	16.4	76.6
2010년	6.6	17.0	76.4

주: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7차, 2009년 이후부터는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표 5-5>는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특징은 1999년 대비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였고, 서비스판매직, 생산직, 농림어업직 종사자 비중은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2010년 조사결과에서 생산직과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중 차이는 5.4%로 1999년(14.8%) 대비 차이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보인다. 직업별 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생산직(31.8%)이었고, 전문관리직은 26.4%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별 분포를 <표 5-6>에 제시된 경찰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과 비교해 살펴보면 KLIPS의 경우 전문직 종사자가 생산직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경찰조사의 경우 전문관리직보다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인 구성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2009년부터 6차 개정된 코드로 본 통계에서는 경찰과 취업자 분포가 이전년도 보다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5-5> KLIPS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20.8	14.0	25.5	9.4	30.3
1999년	20.8	10.7	24.4	8.5	35.6
2000년	21.5	11.0	23.3	8.1	36.1
2001년	21.9	12.1	23.8	7.3	34.9
2002년	23.2	12.3	23.3	6.4	34.7
2003년	24.9	12.8	22.1	6.3	34.0
2004년	26.0	13.7	21.1	5.7	33.5
2005년	27.6	14.0	20.4	5.4	32.7
2006년	28.0	15.0	19.3	4.9	32.8
2007년	29.2	14.3	19.4	4.9	32.2
2008년	30.0	14.4	19.7	4.6	31.4
2009년	25.1	16.3	21.8	4.3	32.5
2010년	26.4	16.5	21.2	4.1	31.8

주: 1)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2) 통계청의 직업분류의 변경을 반영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든 수치를 2002년에 개정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함. 2009년 이후 부터는 2007년 개정된 제 6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조정.

3) 합쳐서 100.0을 넘거나 안 되는 것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100.0이 되는 경우임.

〈표 5-6〉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년	18.8	12.4	23.6	11.5	33.7
1999년	19.1	11.3	23.7	10.7	35.1
2000년	18.9	11.6	23.8	10.0	35.7
2001년	20.9	12.1	25.6	9.2	32.2
2002년	21.3	12.4	25.5	8.6	32.2
2003년	20.1	14.3	25.2	8.3	32.2
2004년	20.5	14.1	25.0	7.5	32.8
2005년	20.9	14.3	24.7	7.5	32.7
2006년	21.6	14.2	24.1	7.2	32.8
2007년	22.2	14.1	23.8	6.9	33.0
2008년	21.0	14.9	24.2	6.5	33.8
2009년	21.2	15.3	23.5	6.5	33.8
2010년	21.5	15.7	22.5	6.0	34.2

주: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는 2008년까지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2009년 이후는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13차년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취업자의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자. <표 5-7>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비중이 더 높았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광공업(21.1%)에서, 여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7.2%)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13차에 오면서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60대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과 30대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나, 전 연령대에서 20%내외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광공업은 청년층, 4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 및 건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융 및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고졸 및 고졸 미만은 광공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고루 분포하는

반면, 고졸 초과 학력에서는 기타서비스업에 몰려 있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대졸 이상은 기타 서비스업에 절반 이상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5-7〉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단위: %)

			농림 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	금융 부동산	공공 행정	기타 서비스	전체
12 차 년 도	성 별	남	4.6	20.5	11.9	18.1	7.0	4.6	33.3	100.0
		성 여	5.7	14.3	1.8	28.1	7.0	3.0	40.2	100.0
	연 령	15~29세	0.7	19.2	4.4	21.1	5.8	3.1	45.7	100.0
		30~39세	1.0	17.9	7.2	19.6	7.8	5.7	40.8	100.0
		40~49세	2.3	20.6	9.0	25.4	6.2	3.1	33.4	100.0
		50~59세	5.6	18.8	10.1	22.8	6.6	3.5	32.6	100.0
		60세 이상	27.0	8.0	7.0	19.4	9.9	4.3	24.6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5.5	20.0	10.5	25.2	3.7	2.5	22.6	100.0
		고 졸	2.7	22.6	8.6	28.0	7.7	2.5	28.0	100.0
		대재중퇴	1.2	13.9	7.8	29.1	8.9	7.7	31.5	100.0
		전문대졸	1.6	20.9	6.5	20.9	7.6	3.0	39.6	100.0
		대졸 이상	0.6	11.9	6.1	13.3	8.3	6.2	53.7	100.0
13 차 년 도	성 별	남	4.5	21.1	12.1	17.1	7.2	4.3	33.6	100.0
		성 여	5.0	14.4	1.5	27.2	6.7	3.2	42.1	100.0
	연 령	15~29세	0.3	19.6	4.8	21.6	5.9	2.8	45.2	100.0
		30~39세	0.9	18.9	7.3	19.0	6.7	6.2	41.1	100.0
		40~49세	1.9	20.5	8.3	23.9	7.0	3.1	35.4	100.0
		50~59세	6.1	19.5	10.4	21.0	6.6	2.9	33.5	100.0
		60세 이상	24.4	8.1	6.9	18.9	9.7	3.9	28.1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4.9	20.3	10.0	24.3	3.8	1.7	25.0	100.0
		고 졸	3.3	23.3	8.5	26.9	7.1	2.4	28.4	100.0
		대재중퇴	1.5	14.4	11.3	24.2	10.4	6.7	31.5	100.0
		전문대졸	1.1	19.7	6.1	21.8	7.0	3.0	41.3	100.0
		대졸 이상	0.7	12.8	6.2	12.7	8.4	6.6	52.8	100.0

주: 기타서비스업은 3차 산업 중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행정을 제외한 나머지.

〈표 5-8〉은 13차년도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분포에서는 서비스판매직에서는 여성(29.6%)이 남성(17.1%)보다 약 1.7배 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데 비해서, 생산직의 경우에는 남성(40.8%)이 여성(23.0%)보다 약 1.8배 더 많이 종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의 연령층은 농림어업직(22.7%)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의 종사자가 겨우 1.7%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53.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직에는 고졸 미만의 경우 56.4%가 있는데 반해 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9.3%만이 위치하고 있었다.

〈표 5-8〉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 분포

(단위: %)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림 어업직	생산직	전체
12차 년도	성별	남 성	22.2	13.8	17.7	4.5	41.9	100.0
		여 성	24.5	17.3	30.0	5.0	23.1	100.0
	연령	15~29세	36.0	21.4	22.8	0.6	19.2	100.0
		30~39세	32.5	25.4	17.9	0.7	23.5	100.0
		40~49세	19.9	13.5	25.8	2.1	38.7	100.0
		50~59세	15.5	6.8	25.3	5.4	47.1	100.0
		60세 이상	6.1	3.1	20.1	25.5	45.2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6	1.8	25.8	14.7	56.1	100.0
		고 졸	7.8	11.7	29.4	2.6	48.5	100.0
		대재 중퇴	18.4	16.4	36.0	1.0	28.3	100.0
		전문대 졸	29.6	23.0	21.4	1.3	24.8	100.0
		대졸 이상	53.1	24.8	11.9	0.6	9.7	100.0
13차 년도	성별	남 성	23.7	14.0	17.1	4.5	40.8	100.0
		여 성	25.8	17.2	29.6	4.5	23.0	100.0
	연령	15~29세	37.4	21.7	22.3	0.4	18.2	100.0
		30~39세	34.5	24.6	18.1	0.8	22.0	100.0
		40~49세	22.4	14.2	24.8	2.0	36.8	100.0
		50~59세	15.4	7.0	24.1	5.8	47.7	100.0
		60세 이상	7.8	3.8	20.6	22.7	45.0	100.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1.7	1.9	26.0	14.0	56.4	100.0
		고 졸	8.7	11.5	28.4	3.2	48.3	100.0
		대재 중퇴	24.0	15.7	31.2	1.4	27.8	100.0
		전문대 졸	30.7	21.6	22.2	1.1	24.5	100.0
		대졸 이상	53.0	24.7	12.1	0.9	9.3	100.0

제 3 절 미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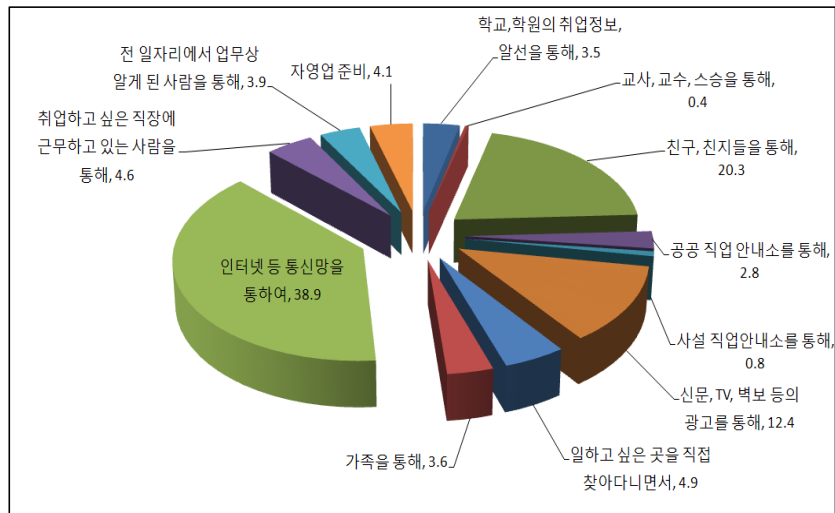
1. 구직활동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13차년도 KLIPS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이들 구직방법 중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중심으로 미취업자의 구직행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5-3]은 미취업자의 가장 주된 구직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38.9%를 차지하였으며, 친구·친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은 20.3%를 차지했다.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12.4%,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했다는 응답이 4.9% 순이었다. 공공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2.8%, 사설 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비중은 0.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단위: %)



이제 좀 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구분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여기는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 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²⁹⁾.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 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표 5-9〉 특성별 구직방법

(단위: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공식적 방법	비공식적 방법	직접 접촉
성별	남 성	57.8	39.9	2.3	58.4	38.0	3.6
	여 성	72.3	27.1	0.7	70.9	22.2	6.9
연령	15~29세	84.3	15.8	0.0	82.9	14.7	2.4
	30~39세	58.7	40.1	1.2	59.8	38.5	1.7
	40~49세	43.9	51.6	4.5	36.6	59.7	3.7
	50~59세	49.1	49.7	1.3	59.6	37.2	3.3
	60세 이상	31.3	62.9	5.9	22.6	45.5	32.0
교육 수준	고졸 미만	47.0	50.8	2.2	44.8	42.6	12.6
	고 졸	55.5	41.7	2.8	61.2	33.9	4.9
	대재 중퇴	63.9	36.2	0.0	68.4	28.6	3.0
	전문대졸	71.3	26.8	2.0	73.8	26.2	0.0
	대졸 이상	80.4	19.6	0.0	67.2	32.8	0.0

29) 이 외에도 연결망의 종류에 따라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KLIPS 5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의 제6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5-9>는 이러한 구분법에 따라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공식적 방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공식적 방법 사용의 비중이 12차에 비해 남성은 증가하고 여성은 감소하였다.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젊은 층일수록 공식적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40대는 비공식적 방법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공식적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축적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는 비공식적 방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적 방법을 선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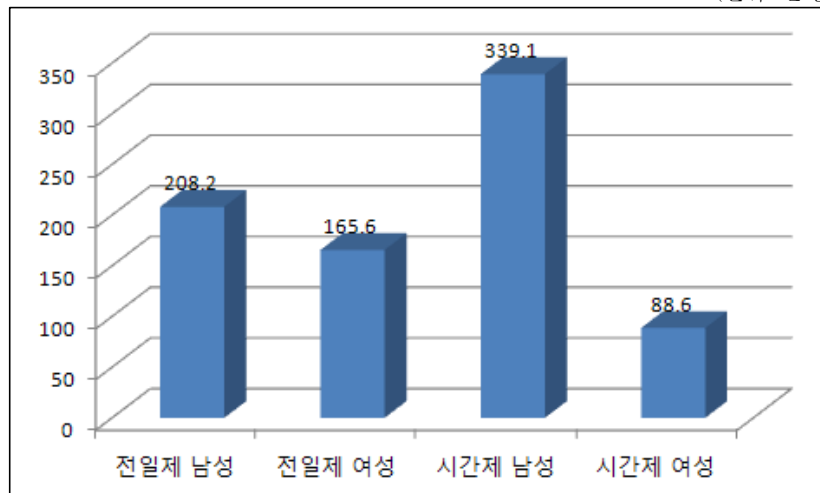
2. 희망 일자리의 특성

미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형태, 희망임금,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자주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서는 희망임금, 구직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5-4]에서 구직자가 평균적으로 희망하는 임금수준에 대해 성별, 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시간제를 선호하는 남성은 339만 1천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희망하였다. 이는 고숙련 기술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희망임금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전일제를 선호하는 남성이 208만 2천원을 희망하였다. 전일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165만 6천원을,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은 88만 6천원을 희망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남성의 희망임금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5-4) 성별·근로시간 형태별 평균 희망임금

(단위: 만 원)



<표 5-10>에서는 미취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주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표에는 이와 관련된 10가지 항목의 내용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평균 점수는 ‘(1) 매우 그렇다’부터 ‘(5)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산출되었으므로, 점수가 낮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거리가 없거나 부족하다’라는 항목에 대해 평균 2.0점으로 가장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업자금 부족’(2.2점) 및 ‘취업 또는 창업 정보 부족’(2.5점)을 각각 지적하였다. 여성의 경우 성차별로 인한 구직의 어려움보다는 사업자금의 부족, 일자리 자체의 부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조사와 비교할 때, 남성은 전반적으로 구직의 어려움이 완화된 반면, 여성은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3차 조사에 추가된 항목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지에 대해 평균 4.0으로 장애가 구직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가 다른 것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미취업자가 구직시 주로 겪는 어려움

(단위: 점)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하다	1.6	1.9	1.7	2.1	2.0	2.0
2. 취업 또는 창업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 모른다	2.4	2.5	2.4	2.6	2.5	2.5
3. 학력, 기능, 자격이 맞지 않는다	2.8	3.0	2.9	3.0	3.0	3.0
4. 경험이 부족하다	2.8	2.8	2.8	2.9	2.5	2.7
5. 제시된 사업 또는 일자리의 수입이 적다	2.3	2.4	2.4	2.5	2.5	2.5
6. 근무환경이나 근로시간이 맞지 않다	3.0	2.7	2.9	2.9	2.8	2.9
7. 나이가 너무 많다	2.9	3.0	3.0	3.1	3.1	3.1
8. 사업자금에 부족하다	1.9	1.7	1.9	2.4	1.6	2.2
9. 여성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3.4	3.4	-	3.2	3.2
10. 장애인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	-	-	-	3.7	4.3	4.0

주: 최소 1점부터 최대 5점까지의 평균 점수임. 설문지상의 응답 항목 구성은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점수가 작을수록 문항에 동의한다는 뜻임.

제 6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본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표 6-1>은 1~13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를 제시한다. 13차년도에는 전체 4,476명의 임금근로자가 조사되었다. 취업자 대비로 볼 때 1차년도 62.4%에서 꾸준히 늘어 7차년도에는 취업자의 69.6%가 임금근로자였으나, 8차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여 68.3%에 그쳤다. 그러나 다시 9차년도부터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여 13차년도에는 73.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1 절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절에서는 13차년도(2010년)에 조사된 임금근로자 전체의 특성별 분

포를 살펴본다. 본절의 모든 분포는 임금근로자 표본 4,476명을 대상으로 횡단면 가중치(w13_pc)를 부여해 계산한 것이다. 또한, 1~13차년도의 근로시간 및 월평균 임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도 제시한다.

〈표 6-1〉 임금근로자수와 비중

(단위: 명, %)

	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여성(%)	
1차년도	4,010	62.9	37.1	62.4
2차년도	3,967	60.3	39.7	64.3
3차년도	3,742	61.5	38.5	65.3
4차년도	3,843	60.8	39.2	67.3
5차년도	3,975	60.3	39.7	68.1
6차년도	4,211	60.0	40.0	69.4
7차년도	4,257	60.7	39.3	69.6
8차년도	4,085	61.5	38.6	68.3
9차년도	4,300	62.0	38.0	70.3
10차년도	4,346	61.9	38.2	70.9
11차년도	4,340	62.1	37.9	71.4
12차년도	4,363	62.0	38.0	72.1
13차년도	4,476	62.1	37.9	73.4

주: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종단면 가중치 적용.

먼저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졸자의 비중이 3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대졸자로 26.4%였다. 여성의 경우는 고졸 미만과 전문대졸 이하에서 전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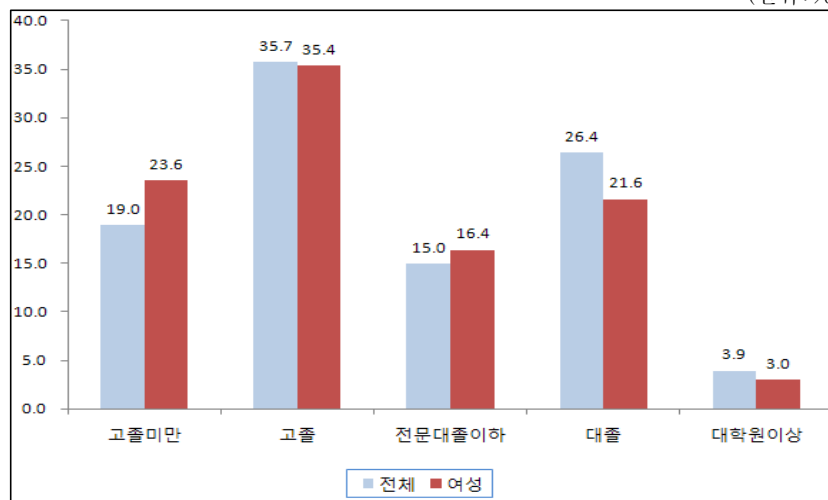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2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30대가 25.8%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 30대에서는 남성보다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20대이하와 40대에서는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냈는데, 이는 20대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 시기가 빠르기 때문이고, 40대의 경우에는 출산 및 육아 등을 이유로 비경활이었던 여성들이 대거 노동시장에 복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별 분포를 보면, 공공서비스업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광공업(21.3%)이 다음을 차지했다. 반면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0.8%로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46.6% 공공 서비스업 종사자였으나,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광공업의 아니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2.0%)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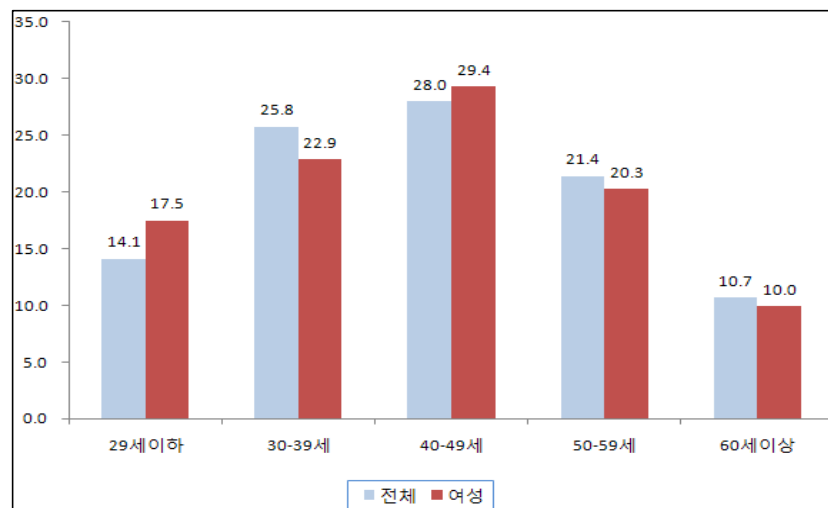
(그림 6-1) 임금근로자의 학력 분포

(단위: %)



(그림 6-2) 임금근로자의 연령 분포

(단위: %)



〈표 6-2〉 임금근로자의 특성별 분포

(단위: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0.8	0.7	1.0	0.7	0.6	0.8
	광공업	20.8	23.6	16.6	21.3	24.5	16.6
	건설업	9.1	13.8	2.2	9.1	14.2	1.7
	전기·가스 및 수도업	0.8	1.2	0.2	0.8	1.2	0.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0	13.1	22.8	16.4	12.6	22.0
	운수통신업	9.0	11.7	5.0	8.5	11.3	4.5
	금융 및 부동산업	6.8	7.1	6.3	6.8	7.2	6.2
	공공서비스업	35.2	28.9	44.6	35.8	28.4	46.6
	가사서비스업	0.5	-	1.3	0.6	-	1.4
직 종	전문관리직	26.2	25.3	27.5	27.3	26.3	28.7
	사무직	19.9	18.2	22.5	20.0	18.6	22.0
	서비스직	15.8	11.6	22.1	16.0	11.7	22.3
	농림어업직	0.4	0.6	0.3	0.4	0.6	0.2
	생산직	37.7	44.5	27.7	36.3	42.9	26.8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69.1	66.2	73.4	65.3	62.6	69.3
	10~29인	6.5	6.8	6.0	7.5	7.3	7.8
	30~99인	7.0	7.5	6.3	8.5	9.2	7.5
	100~299인	4.4	4.9	3.6	5.3	5.8	4.4
	300~499인	1.7	1.9	1.6	2.1	2.3	1.8
	500인 이상	11.3	12.7	9.1	11.4	12.8	9.2
기업 형태	민간회사	75.0	75.6	74.1	76.8	78.0	75.0
	외국인회사	0.7	0.8	0.6	0.6	0.6	0.4
	공기업	5.2	5.4	4.9	5.3	5.3	5.3
	법인단체	6.3	5.8	7.0	5.8	4.9	7.2
	정부기관	9.3	8.9	9.8	8.5	8.0	9.2
	비소속	2.7	2.7	2.7	2.3	2.4	2.2
	기 타	0.8	0.8	0.9	0.8	0.8	0.7
교대제 유무 및 형태	교대제 안함	90.7	88.4	94.1	91.8	89.6	94.9
	2조 2교대제	5.8	7.5	3.4	4.9	6.3	2.7
	3조 3교대제	1.8	1.8	1.7	1.9	1.9	2.0
	기타 교대제	1.7	2.3	0.8	1.4	2.2	0.4
종사상 지위	상용직	76.7	81.3	69.9	75.9	80.7	68.9
	임시직	13.7	8.6	21.3	14.7	9.6	22.3
	일용직	9.6	10.1	8.8	9.4	9.7	8.9

주: 결측치는 계산에서 제외.

직종에 따라서는 생산직이 36.3%로 가장 많았고, 전문관리직(27.3%)이 그 다음이었다. 그러나 여성은 전문관리직(28.7%) 종사자가 생산직(26.8%)보다 높았으며, 서비스직(22.3%)과 사무직(22.0%)에서는 남성(각각 11.7%, 18.6%)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이 6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500인 이상(11.4%)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전체 분포에 비해 10인 미만(69.3%)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다수가 민간회사(76.8%)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부기관(8.5%)이 그 다음이었다. 남성은 민간회사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법인단체와 정부기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교대제가 이루어지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8.2%였으며, 남성(10.4%)이 여성(5.1%)보다 많았다. 교대제를 할 경우 대부분이 맞교대제(2조2교대제)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75.9%였고, 임시·일용직은 24.1%였다. 통계청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40.6%인 것으로 나타났다.³⁰⁾ 이와 같이 KLIPS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종사상 지위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는 조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퇴직금의 유무 등 부가급여를 받는지 등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들이 존재하지만, KLIPS의 경우는 기간 이외의 다른 것을 분류기준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직과 일용직 비중이, 여성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장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일용직의 대부분이 존재하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특성상 남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30)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2010년도 자료

제 2 절 근로시간

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이 종료되며, 정규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로시간 및 주당 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1. 평균 근로시간

우선 평균 근로시간의 연도별 추이부터 살펴보자. 여기서 평균 근로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근로자는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주당 초과근로시간을 합쳐서 계산하였다.

<표 6-3>을 보면 1998년 임금근로자들은 52.3시간을 근무하였으나, 13차년도인 2010년에는 46.4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3차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비하여 약 4.8시간 가량 길었으나³¹⁾,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상용직의 근로시간만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1) 2010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비농전산업 주당 총근로시간은 41.6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6-3〉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조사시점	평균근로시간	전년대비 증가율
1차년도	52.3 (0.005)	-
2차년도	52.7 (0.005)	0.8
3차년도	52.2 (0.005)	-1.0
4차년도	50.9 (0.005)	-2.4
5차년도	50.8 (0.005)	-0.2
6차년도	50.6 (0.005)	-0.4
7차년도	49.8 (0.005)	-1.5
8차년도	49.2 (0.005)	-1.2
9차년도	48.4 (0.005)	-1.2
10차년도	48.4 (0.005)	0.0
11차년도	48.0 (0.005)	-0.8
12차년도	46.4 (0.005)	-3.3
13차년도	46.4 (0.005)	0.0

주: 1)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2) 증가율은 $\{(\text{해당 연도}-\text{전년도})/\text{전년도}\} \times 100$ 으로 계산.

3) 근로시간을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는 결측처리함.

4) ()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표 6-4>는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8.3시간)이 여성(43.7시간)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4.6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평균근로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6.9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60세 이상이 43.8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과 여성의 근로시간은 60대이상처럼 노동시장 참가가 그리 높지 않은 연령대를 제외하고 보면 40대에서 성별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은 30대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반면, 여성은 50대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50대 이상에서는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하였지만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을 제외하고 학력이 증가하면서 주당평균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미만은 46.5시간인데 반해 대졸

과 대학원졸은 각각 45.2시간과 43.7시간으로 짧았다. 한편, 대학원 이상 학력에서는 남성(45.9시간)과 여성(38.2) 사이에 격차가 7.7시간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6-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주당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주당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전 체		46.4	48.3	43.7	46.4	48.3	43.7
연령별	29세 미만	46.0	49.3	43.2	46.2	48.3	44.2
	30~39세	46.7	48.6	43.1	46.9	48.9	43.4
	40~49세	46.7	48.2	44.5	46.8	48.8	43.9
	50~59세	46.9	47.4	46.0	46.4	47.3	44.9
	60세이상	44.2	46.9	39.0	43.8	46.3	39.2
학력별	고졸 미만	46.9	47.8	45.9	46.5	47.8	45.2
	고 졸	48.1	50.3	44.8	48.1	50.4	44.7
	전문대졸 이하	46.1	48.5	43.2	46.4	48.5	44.0
	대 졸	44.9	46.6	41.7	45.2	46.6	42.4
	대학원 이상	43.0	44.6	38.5	43.7	45.9	38.2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5〉는 종사상 지위별 주당평균근로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이 47.9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일용직이 39.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시직의 경우 남성은 48.9시간인 반면, 여성은 39.6시간으로 나타나 9.3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상용직과 일용직은 소폭 감소한 반면, 임시직은 1.6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상용직과 일용직은 모두 감소하고 임시직은 증가하였는데, 남성 임시직은 전년도에 비해 2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폭이 가장 컸다.

<표 6-5>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주당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주당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상용직	48.0	49.2	46.0	47.9	49.2	45.7
임시직	41.6	46.9	38.4	43.2	48.9	39.6
일용직	40.6	41.8	38.6	39.9	40.6	38.8

주 :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

<표 6-6>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주당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주당평균 근로시간	남 성	여 성
직종별	전문관리직	43.8	45.7	41.1	44.0	45.9	41.6
	사무직	44.9	46.0	43.5	45.0	46.7	42.9
	서비스직	49.3	51.9	47.3	49.0	52.1	46.7
	농림어업직	45.1	47.3	37.7	44.5	45.1	41.7
	생산직	47.8	49.6	43.6	47.9	49.5	44.2
산업별	농림어업	46.4	49.3	43.4	41.5	48.4	33.6
	광공업	48.6	49.4	47.0	49.3	50.3	47.2
	건설업	44.8	45.3	40.2	45.9	46.2	43.2
	전기·가스 및 수도업	44.4	44.7	42.3	41.9	41.6	43.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0.2	52.8	47.9	50.0	52.4	47.9
	운수통신업	47.8	49.7	41.2	47.8	49.4	41.8
	금융 및 부동산업	47.5	50.1	43.2	46.4	48.8	42.3
	공공서비스업	43.5	46.1	41.0	43.2	45.5	41.2
종업원 규모별	가사서비스업	38.2	-	38.2	40.4	-	40.4
	10인 미만	46.9	48.8	44.6	46.6	48.4	44.5
	10~29인	47.0	49.5	42.7	46.3	49.2	42.1
	30~99인	46.9	49.1	43.1	47.7	49.1	45.1
	100~299인	48.0	49.6	44.6	48.4	49.7	45.9
	300~499인	46.3	47.3	44.4	46.0	48.9	40.5
	500인 이상	45.5	46.2	44.2	46.1	47.8	42.7

한편 <표 6-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종·종업원 규모별 주당 평

균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로는 가사서비스업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1.9시간으로 짧은 편이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0.0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차년도 조사결과, 직종별로는 서비스직과 생산직에서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각각 49.0, 47.9시간으로 다른 직종 대비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관리직(44.0시간)에서가 가장 짧았다. 농림어업직과 사무직은 각각 44.5, 45.0시간으로 전문관리직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12차조사와 비교하면, 전문관리직과 생산직은 근로시간이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직과 서비스직은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업원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299인이 48.4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500인 이상이 46.1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초과근로시간

다음으로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표 6-7>과 같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13차년도에 27.0%로 나타나, 비교적 초과근로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11.8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초과급여가 지급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57.4%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다.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83.9%)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13.9%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는 약 7천7백원으로 나타났다. 12차년도에 비해 초과근로를 하는 사람의 비중은 약간 줄었으나 초과근로시간은 늘어났고,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임금근로자의 초과근로

(단위: %, 시간)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초과근로를 안함 초과근로를 함		72.6 27.4	73.0 27.0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 초과급여 지급 안함 초과급여 지급함		11.3	11.8
		44.0	42.6
		56.0	57.4
초과급여 지급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82.9	83.9
	일정 금액	13.9	13.9
	기준 없음	3.2	2.2
시간당 평균 초과급여(천원)		7.3	7.7

제 3 절 임 금

KLIPS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 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 인구학적 특성, 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1.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산정방식

〈표 6-8〉을 통해 임금 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6.1%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일 지급받는다’와 ‘수시로 지급받는다’의 응답은 각각 2.3%와 1.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 지급주기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5.4%)과 여성(97.0%)의 대부분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2차조사와 비교하면,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이 많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임금 산정방식을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나타났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8.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6.4%)과 여성(82.1%)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봉제는 남성(14.3%)이 여성(7.2%)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12차조사와 비교하면, 연봉계약제 방식은 소폭 감소하고 월급제 방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연봉계약제 방식이 감소하고 월급제 방식이 증가하여 전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 임금 지급주기 및 임금 지급방법

(단위: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임금 지급 주기	한 달	95.5	95.5	95.4	96.1	95.4	97.0
	보름/주	0.4	0.4	0.5	0.3	0.4	0.3
	매 일	2.3	2.0	2.7	2.3	2.4	2.1
	수 시	1.7	2.0	1.2	1.2	1.6	0.6
	기 타	0.1	0.1	0.2	0.1	0.1	0.1
임금 산정 방식	연봉계약제	11.8	15.2	6.7	11.4	14.3	7.2
	월 급	78.5	75.9	82.3	78.7	76.4	82.1
	주급/격주	0.1	0.0	0.1	0.1	0.1	0.1
	일 당	6.2	6.7	5.5	6.0	6.9	4.8
	시간급제	1.8	0.8	3.3	1.7	0.7	3.3
	도급제	0.3	0.3	0.3	0.3	0.3	0.3
	실적급	1.1	0.8	1.6	1.6	1.2	2.2
	기 타	0.2	0.1	0.2	0.2	0.2	0.1

<표 6-9>는 성과급제 실시 여부를 임금근로자 특성별로 살펴보고 있다. 분석 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성별로는 남성(20.4%)이 여성(11.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성과급제 비중이 낮아진 수치이지만, 성별 격차는 그대로 유지된 결과이다. 또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49.3%인 반면 건설업은 5.2%로 차이가 상당했으며, 직종별로는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이 각각 23.1%와 19.9%가 적용받는 반면, 생산직은 9.7%에 불과했다. 전년대비 전문관리직에서의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직에서는 전년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은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매우 낮았다. 한편 종업원 규모에 따라서는 종업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 41.3%가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10인~29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규모가 클수록 성과급제 적용비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사업체 위주의 성과급제 확산은 지속되는 반면, 소규모 사업체는 성과급제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9〉 임금근로자 특성별 성과급제 실시 여부

(단위: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있음	없음	모름	있음	없음	모름
성 별	남 성	22.2	77.1	0.7	20.4	78.4	1.2
	여 성	13.3	85.6	1.1	11.2	87.7	1.1
산 업	농림어업	16.2	81.5	2.3	16.7	83.4	-
	광공업	21.1	78.0	0.9	19.0	79.4	1.6
	건설업	6.9	92.5	0.7	5.2	93.3	1.5
	전기·가스 및 수도업	54.7	45.3	-	49.3	50.7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2.0	87.7	0.3	11.2	87.8	1.0
	운수통신업	26.4	72.2	1.4	20.2	78.9	0.9
	금융 및 부동산업	29.8	69.7	0.5	34.3	64.3	1.4
	공공서비스업	18.8	80.2	1.0	16.2	82.8	1.0
	가사서비스업	-	100.0	-	-	98.2	1.8
직 종	전문관리직	27.6	71.4	1.0	19.9	78.8	1.3
	사무직	24.1	74.8	1.1	23.1	75.7	1.2
	서비스직	18.6	80.9	0.5	19.0	80.0	0.7
	농림어업직	18.3	81.7	-	16.6	83.4	-
	생산직	9.6	89.7	0.8	9.7	89.0	1.3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8	76.4	0.8	20.5	78.3	1.2
	임시직	7.0	91.8	1.2	7.1	92.0	0.9
	일용직	2.1	97.3	0.6	0.9	97.6	1.5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5.2	84.1	0.7	12.8	86.3	0.9
	10~29인	7.2	91.6	1.2	5.4	93.4	1.2
	30~99인	15.2	84.0	0.8	12.2	86.8	1.0
	100~299인	14.3	82.4	3.4	14.7	84.2	1.1
	300~499인	23.5	76.4	0.1	23.2	76.0	0.8
	500인 이상	40.2	59.3	0.5	41.3	57.3	1.4

2. 월평균 임금

KLIPS에서는 임금 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 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 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6-10>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13년간 KLIPS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56만 7천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44만 6천원)에서 12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11차년도(209만 8천원)와 12차년도(208만원)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13차년도에는 209만 4천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표 6-10〉 월평균 임금 비교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1	156.7	130.9	184.6	77.4	109.2
2차년도	103.4	144.6	123.7	173.0	72.5	101.4
3차년도	110.0	150.5	130.8	178.9	76.7	104.9
4차년도	121.2	159.3	144.4	189.8	85.5	112.4
5차년도	132.1	169.0	156.7	200.4	94.5	120.9
6차년도	145.0	179.2	171.7	212.2	105.0	129.8
7차년도	158.8	189.4	188.1	224.4	113.2	135.0
8차년도	169.0	196.2	200.4	232.6	118.9	138.0
9차년도	180.1	204.5	213.0	241.9	126.5	143.6
10차년도	191.3	211.8	226.5	250.8	134.4	148.8
11차년도	198.3	209.8	234.6	248.2	138.8	146.8
12차년도	202.0	208.0	238.2	245.2	142.6	146.8
13차년도	209.4	209.4	245.8	245.8	149.6	149.6

주: 1)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 100)

2) 중단면 가중치 적용.

성별로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3차년도 여성의 월평균 명목임금은 149만 6천원으로 남성의 60.9%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전년도의 59.9% 수준보다 약 1.0%p 높아진 것이다.

월평균 임금의 변동은 『사업체노동력조사』³²⁾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10년 월평균 임금액은 281만 6천원인데, KLIPS는 209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KLIPS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 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KLIPS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종사자 1인 이상 민간사업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조사 대상³³⁾이다.

〈표 6-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연 령	29세 이하	150.6	163.3	139.7	160.1	170.5	150.2
	30~39세	222.7	246.3	176.4	226.1	250.9	180.7
	40~49세	228.7	292.3	134.5	238.9	305.5	146.8
	50~59세	208.4	259.0	120.0	209.9	265.3	122.3
	60세 이상	115.1	137.8	71.6	127.8	156.0	75.7
학 령	고졸 미만	120.7	150.9	88.6	122.5	151.8	93.6
	고 졸	172.0	207.7	118.0	178.9	216.7	124.0
	전문대졸 이하	193.3	224.7	154.7	200.5	235.7	160.0
	대 졸	264.2	299.8	195.5	271.9	303.5	207.7
	대학원 이상	338.0	367.3	253.7	341.4	375.6	256.6

주: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 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3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KOSIS.

33) 『사업체노동력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2008년부터는 상용근로자 1인이상, 2011년부터는 1인이상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표 6-11>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40대에 월평균 임금이 305만 5천 원으로 가장 높고, 여성은 30대에 180만 7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60세 이상 고령자 집단에서 월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이상 모든 집단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월평균임금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육아 및 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 여성들이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취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력이 증가하면서 월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 역시 지난해의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고용형태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2>에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35만 9천원으로 임시직은 상용직의 50.1%, 일용직은 5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명목임금의 인상도 있었지만, 임시직의 경우 상용직 대비 상대임금 수준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2>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평균액	상대임금	평균액	상대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직	227.2	100.0	235.9	100.0
	임시직	106.7	47.0	118.1	50.1
	일용직	114.3	50.3	120.2	51.0

주: 상대임금은 상용직 근로자를 100으로 하여 계산.

다음으로 <표 6-13>은 산업별·직종별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317만 7천

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259만 7천 원)과 운수통신업(245만 4천 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광공업 월평균 임금의 74.8%(162만 9천 원)로 가사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13〉 임금근로자의 산업별·직종별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단위: 만 원)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남 성	여 성
산 업	농림어업	127.9	190.1	63.1	135.4	214.6	45.3
	광공업	205.8	244.5	123.9	217.8	257.5	132.1
	건설업	194.3	201.4	127.5	201.7	205.6	153.6
	전기·가스 및 수도업	295.3	311.5	168.3	317.7	328.8	237.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57.9	212.6	110.9	162.9	215.3	118.8
	운수통신업	234.7	251.2	176.6	245.4	260.7	189.2
	금융부동산업	248.9	277.8	200.0	259.7	296.9	196.4
	공공서비스업	201.6	250.8	153.7	206.4	257.4	160.5
	가사서비스업	86.8	-	86.8	88.1	-	95.6
직 종	전문관리직	256.1	310.0	182.1	258.5	308.2	191.8
	사무직	237.5	284.8	180.8	246.3	296.0	185.4
	서비스직	156.3	215.6	109.9	164.3	225.3	117.7
	농림어업직	127.7	141.2	82.5	162.4	170.6	123.5
	생산직	159.6	188.7	90.2	167.4	198.0	96.4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	179.8	215.9	134.7	184.4	218.4	142.5
	10~29인	161.6	192.6	108.5	172.0	206.0	124.2
	30~99인	195.2	225.4	141.8	206.8	235.5	154.0
	100~299인	215.5	243.2	157.4	212.9	245.1	149.3
	300~499인	219.0	258.0	150.3	245.5	295.8	149.5
	500인 이상	295.3	345.1	190.9	310.0	363.9	197.7
기업 형태별	민간회사	185.4	225.1	124.5	195.9	237.2	133.2
	외국인회사	457.2	523.3	324.2	373.3	392.7	332.3
	공기업	263.9	327.0	160.6	258.9	321.7	166.5
	법인단체	247.1	294.0	188.9	259.3	316.3	202.8
	정부기관	257.6	282.9	223.4	259.2	287.8	222.9
	소속이 없음	119.1	143.8	82.7	136.5	159.6	99.1
	기 타	153.3	181.7	114.3	174.3	214.8	105.9

주: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임금수준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월평균 임금은 13차 조사결과 258만 5천 원으로 사무직보다 약 5%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차 대비 그 차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사무직의 68.0%, 66.7%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관리직 남성은 308만 2천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반해, 전문관리직 여성의 임금은 191만 8천원이었고, 이는 사무직 남성(296만원)과 서비스직 남성(225만 3천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 여성은 남성의 절반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모든 직종에서 임금이 증가했는데, 농림어업직에서의 임금 상승이 높았고, 사무직, 서비스직, 생산직에서 약 8만원 가량의 임금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규모별 임금수준은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가 31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질수록 월평균 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임금 상승폭이 가장 큰 규모는 300~499인으로 26만 5천원이 증가하였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외국인 회사가 가장 높은 373만 3천원이었다. 소속없음과 기타를 제외하면 민간회사는 가장 낮은 195만 9천원이었다. 공기업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155만 2천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민간회사와 법인단체는 전년도에 비해 임금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회사와 공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비정규직 근로자

KLIPS는 5차년도부터 통계청이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13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조사 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 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근로) 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 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 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13차년도에서는 10차년도 부가조사에서 다루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여 본설문에서 조사되었다. 본 절에서는 기존 본설문에서 조사되었던 조사 항목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고용 유형을 판별하고 각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정규직의 규모

〈표 6-14〉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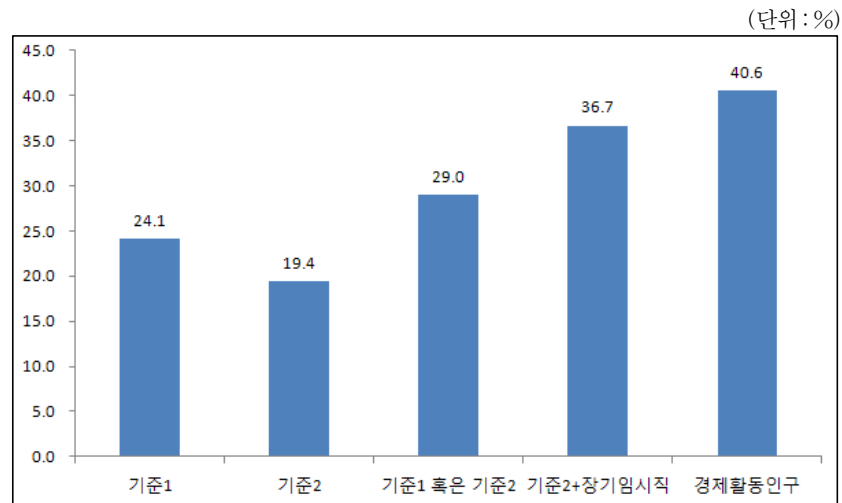
		정규직	일용 근로	파 견	용 역	독립 도급	가내 근로	시간제	단기 계약	전 체
12차년도 (2009년)	전체	81.3	7.1	1.5	1.7	1.7	0.7	4.9	1.2	100.0
			37.8	8.2	8.8	9.0	3.5	26.3	6.3	100.0
	남성	85.2	7.7	1.1	1.6	1.6	0.2	1.7	0.9	100.0
			52.3	7.1	11.1	10.5	1.5	11.4	6.0	100.0
	여성	75.4	6.1	2.3	1.7	1.9	1.3	9.8	1.6	100.0
			24.8	9.2	6.8	7.7	5.3	39.7	6.5	100.0
13차년도 (2010년)	전체	80.6	6.8	1.4	2.6	1.8	0.5	5.2	1.1	100.0
			35.0	7.4	13.3	9.2	2.5	26.7	5.8	100.0
	남성	84.5	7.5	1.3	2.5	1.4	0.2	1.9	0.6	100.0
			48.7	8.5	16.1	8.9	1.4	12.4	3.9	100.0
	여성	74.9	5.7	1.6	2.7	2.4	0.9	9.9	1.9	100.0
			22.6	6.5	10.8	9.4	3.6	39.6	7.5	100.0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근무가 1년 안된 사람들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다음으로 <표 6-14>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일용근로(35.0%)이며 다음으로 시간제근로(26.7%)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각각 7.4%와 13.3%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용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제근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중이 약간 증가했는데, 특히 용역근로 형태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 다양한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주: 기준1은 KLIPS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 비중, 기준2는 위의 고용형태별 정의를 이용. 기준2는 장기임시직에서 부가급여를 받는지,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지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 가능한데,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는지 여부로 통제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10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KLIPS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에서 볼 수 있듯이, KLIPS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4.1%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0.6%와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나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 1 혹은 기준 2) KLIPS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9.0%까지 증가한다. 또한 기준 2에 장기임시직을 포함할 경우 비정규직의 규모는 36.7%로 크게 증가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슷한 비정규직 규모가 추산된다. 결국 두 조사 간 조사 방법상의 차이점³⁴⁾을 감안하면 양 조사에서의 비정규직 규모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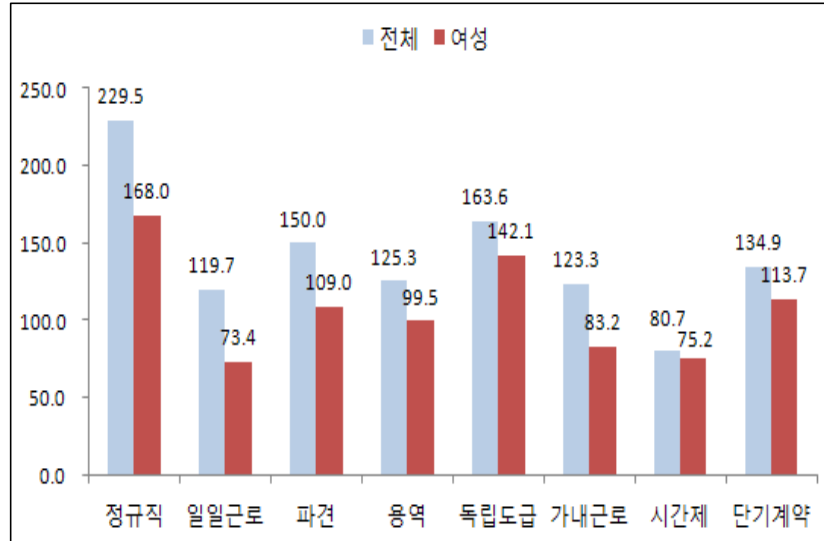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 2)를 기준으로 이들의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6-4]와 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립도급근로일 때의 임금(163만 6천원)이 정규직과 가장 차이가 적지만 정규직의 71.3%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파견(150만원), 단기계약(134만 9천원), 가내근로(123만 3천원), 일일근로(119만 7천원)은 각각 정규직의 65.4%, 58.8%, 53.7%, 52.2%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도급(142만 1천원)과 단기계약(113만 7천원)과 같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비정규직 형태의 경우에는 각각 정규직(168만원)의 84.5%와 67.6%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다.

34)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 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그림 6-4)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단위: 만 원)



주: 임금수준은 명목임금임.

제 7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 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주당 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부터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8차년도 조사부터는 적자를 보는 경우 적자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1~13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KLIPS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7-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비임금근로자 가운데 남성의 비중은 62.9%로 여성에 비해 많은데, 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취업자대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6.6%로 지난해에 비해 1.3%p 낮아졌으며, 1차년도 37.6%에서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7-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단위: 명, %)

	비임금근로자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표본수	남성 비중	여성 비중	
1차년도	2,415	58.6	41.5	37.6
2차년도	2,247	59.7	40.3	35.7
3차년도	2,071	60.5	39.5	34.7
4차년도	1,984	59.8	40.2	32.7
5차년도	1,980	61.0	39.0	31.9
6차년도	2,000	61.4	38.6	30.7
7차년도	2,027	61.8	38.2	30.4
8차년도	2,125	60.8	39.2	31.7
9차년도	2,049	61.1	38.9	29.7
10차년도	2,045	61.6	38.4	29.1
11차년도	2,034	62.3	37.7	28.6
12차년도	1,999	62.8	37.2	27.9
13차년도	1,954	62.9	37.1	26.6

주: 표본수를 제외하고는 중단면 가중치를 적용함.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 이상 종업원이 있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7-2>를 통해 13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9.4%, 자영업자 53.2%,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7.4%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1차년도에 22.1%였으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0차년도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추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8차년도에 크게 증가하여 57.8% 달하였다가 9차년도 이후부터 약간 감소하여 13차년도에는 53.2%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09년과 2010년의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각각 19.0%와 18.5%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표 7-2〉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년도	21.1	56.8	22.1
2차년도	23.8	53.6	22.6
3차년도	23.7	52.8	23.5
4차년도	24.8	51.2	24.1
5차년도	26.4	50.3	23.3
6차년도	25.8	50.9	23.2
7차년도	27.5	50.8	21.8
8차년도	23.6	57.8	18.6
9차년도	24.3	57.4	18.3
10차년도	27.3	55.1	17.5
11차년도	27.8	54.6	17.5
12차년도	30.1	52.3	17.6
13차년도	29.4	53.2	17.4

〈표 7-3〉은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59.8%), 고용주(35.5%), 무급가족종사자(4.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42.0%), 무급가족종사자(39.0%), 고용주(19.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60대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³⁵⁾로는 건설업(39.4%), 광공업(38.6%)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7-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성 별	남 성	37.6	57.6	4.7	35.5	59.8	4.7
	여 성	17.4	43.3	39.3	19.0	42.0	39.0
연 령	20~29세	24.1	48.7	27.3	24.2	50.6	25.3
	30~39세	38.9	47.7	13.5	36.9	50.6	12.4
	40~49세	33.2	49.2	17.6	33.5	48.8	17.7
	50~59세	31.8	50.6	17.7	30.8	51.3	17.9
	60세 이상	16.6	65.2	18.3	15.2	66.1	18.7
학 력	고졸 미만	16.0	57.1	26.9	14.0	59.7	26.2
	고 졸	28.9	54.1	17.0	26.0	56.8	17.2
	전문대졸 이하	40.2	40.5	19.3	36.2	45.6	18.2
	대 졸	44.8	48.9	6.4	48.6	44.0	7.5
	대학원 이상	61.7	38.3	0.0	63.5	34.5	2.0
산 업	농림어업	6.4	59.6	34.0	7.4	59.5	33.1
	광공업	41.4	31.6	27.0	38.6	33.1	28.3
	건설업	37.6	53.2	9.2	39.4	50.8	9.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3.4	44.6	21.9	31.8	46.7	21.5
	운수통신업	13.1	85.9	1.0	17.8	81.3	0.9
	금융 및 부동산업	21.6	71.2	7.2	29.7	65.4	4.9
	공공서비스업	36.5	51.7	11.8	33.7	54.6	11.8
	가사서비스업	-	-	-	-	-	-

주 :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표본수가 적어 건설업에 포함

35) 2009년 개정 9차 산업표준분류.

제 2 절 근로시간

본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 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 자체를 ‘하다, 안하다’ 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주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주평균 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7-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5.4%, 불규칙적인 경우가 24.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계절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경우가(16.2%)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92.1%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8.8%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4.4%)보다는 자영업자(20.1%)와 무급가족종사자(24.0%)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과 건설업 종사자의 79.2%와 47.5%가 근로시간

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각각 70.2%와 38.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3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주평균 근로일수는 5.8일이며 종사상 지위별로 자영업자의 근로일수가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볼 때,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금융 및 부동산업(5.1일)에서 주평균 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짧았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2일)과 농림어업(6일)이 길었다.

〈표 7-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주평균 근로일수

(단위: %, 일)

		12차년도(2009년)				13차년도(2010년)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 일수 (일)	규칙적	불규칙적		주평균 근로 일수 (일)
			계절 영향 없음	계절 영향 있음			계절 영향 없음	계절 영향 있음	
전 체		75.6	7.5	16.9	5.8	75.4	8.4	16.2	5.8
종사상 지위	고용주	91.7	2.4	6.0	5.8	92.1	3.5	4.4	5.8
	자영업자	67.8	10.5	21.7	5.7	68.8	11.1	20.1	5.7
	무급가족종사자	71.5	7.2	21.2	6.0	67.5	8.6	24.0	6.0
산업	농림어업	30.3	8.6	61.0	6.0	20.8	9.0	70.2	6.0
	광공업	89.6	3.5	6.9	5.7	86.4	5.4	8.3	5.7
	건설업	45.4	11.1	43.5	5.4	52.5	9.0	38.6	5.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8.6	5.1	6.3	6.2	88.8	7.1	4.1	6.2
	운수통신업	63.1	14.6	22.2	5.0	73.9	10.9	15.2	5.1
	금융 및 부동산업	86.8	7.9	5.3	5.4	80.8	17.3	1.9	5.5
	공공서비스업	85.5	8.0	6.6	5.5	86.5	8.4	5.1	5.6
	가사서비스업	-	-	-	-	-	-	-	-

주 :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표본수가 적어 건설업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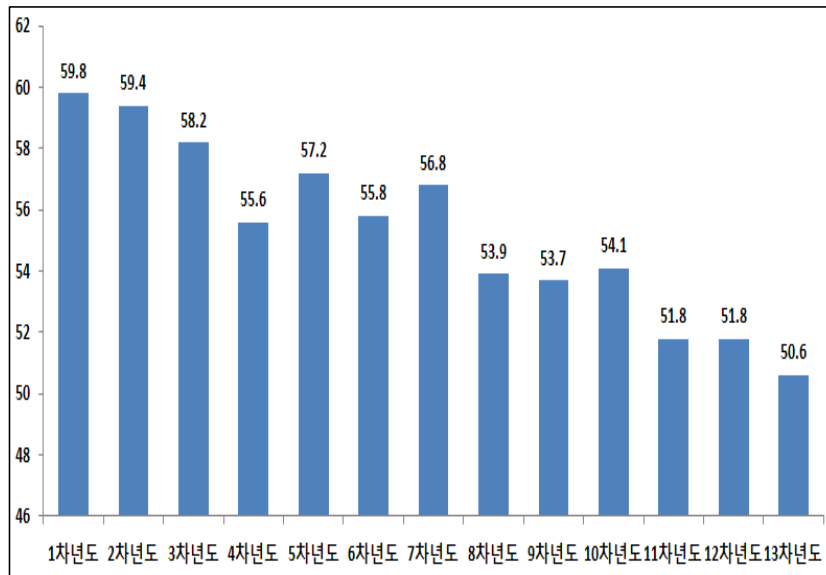
2. 주당 근로시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에서 10차년도 사이에 증가

와 감소를 되풀이하고 있었으나 11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에는 59.8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4차년도에는 55.6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57.2시간으로 1.6시간 가량 증가하였고, 7차년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11차년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13차년도에는 50.6시간으로 나타났다.

[그림 7-1]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표 7-5>의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를 제외하면 고용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다. 13차년도의 경우, 고용주는 주당 평균 54.0시간, 자영업자는 49.0시간, 무급가족종사자는 49.5시간을 근로하였다.³⁶⁾

36)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68시간이라고 응답한 개인은 하루 24시간 근로를 의미하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 7-5〉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1차년도	59.8 (0.009)	58.8 (0.016)	59.8 (0.012)	60.8 (0.019)
2차년도	59.5 (0.009)	62.1 (0.016)	58.6 (0.013)	58.7 (0.019)
3차년도	58.2 (0.009)	60.2 (0.017)	57.8 (0.013)	57.2 (0.019)
4차년도	55.6 (0.010)	57.5 (0.018)	55.2 (0.015)	54.4 (0.021)
5차년도	57.2 (0.009)	58.3 (0.016)	56.6 (0.014)	57.2 (0.018)
6차년도	55.8 (0.010)	58.6 (0.018)	55.3 (0.014)	54.1 (0.021)
7차년도	56.8 (0.009)	58.5 (0.015)	56.6 (0.013)	54.9 (0.018)
8차년도	53.9 (0.009)	56.8 (0.016)	52.4 (0.014)	54.7 (0.020)
9차년도	53.7 (0.009)	55.4 (0.019)	53.0 (0.014)	53.8 (0.022)
10차년도	54.1 (0.009)	57.7 (0.016)	51.8 (0.015)	55.7 (0.021)
11차년도	51.8 (0.010)	54.5 (0.015)	50.7 (0.014)	50.8 (0.020)
12차년도	51.8 (0.010)	54.7 (0.015)	50.3 (0.015)	51.5 (0.022)
13차년도	50.6 (0.010)	54.0 (0.015)	49.0 (0.014)	49.5 (0.021)

주: () 안의 수치는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표 7-6>은 주당 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비임금근로자의 64.6%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약 49.9시간)보다 1.1시간 정도 더 긴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5시간 가량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51.9시간)보다 주당 0.5시간 정도 더 일했으며,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45.7시간)보다 3.2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3.5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45.7시간의 2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자(52.7시간)가 가장 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대학원 이상'(45.4시간)

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 평균 7.3시간이었다.

〈표 7-6〉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12차 (2009년)	전 체		2.8	13.7	17.2	23.6	28.1	14.7	52.3
	성 별	남 성	1.4	9.6	15.6	27.6	31.4	14.5	54.3
		여 성	4.9	19.9	19.6	17.8	23.1	14.8	49.4
	연 령	20~29세	16.5	11.9	14.5	8.4	32.5	16.2	47.6
		30~39세	3.8	11.5	23.5	22.5	26.8	11.9	50.4
		40~49세	1.8	11.3	18.8	25.6	27.2	15.3	53.1
		50~59세	1.8	8.9	14.8	25.9	30.2	18.5	56.1
		60세 이상	2.4	27.0	14.0	20.8	26.4	9.4	47.7
	학 력	고졸 미만	1.4	17.4	13.2	21.0	29.7	17.2	54.3
		고 졸	2.2	8.4	16.2	25.2	31.9	16.1	54.5
		전문대졸 이하	4.1	11.8	18.7	21.6	27.3	16.5	52.4
		대 졸	5.3	14.0	26.4	25.2	21.3	7.8	46.8
		대학원 이상	7.3	23.6	23.7	28.9	7.1	9.3	43.2
13차 (2010년)	전 체		2.7	13.0	19.6	23.5	30.9	10.2	51.0
	성 별	남 성	1.6	9.5	18.6	28.2	32.4	9.7	52.4
		여 성	4.5	18.3	21.2	16.5	28.7	10.8	48.9
	연 령	20~29세	16.6	15.1	13.3	12.5	32.4	10.2	45.7
		30~39세	3.2	11.4	20.9	24.6	29.7	10.2	50.8
		40~49세	2.3	9.8	18.7	27.1	33.2	8.9	51.7
		50~59세	1.5	9.5	20.2	24.8	31.2	12.8	53.5
		60세 이상	2.7	24.0	20.3	17.3	27.7	8.1	47.2
	학 력	고졸 미만	1.3	17.6	16.3	20.4	31.8	12.7	52.1
		고 졸	2.4	9.0	17.0	26.3	34.4	10.9	52.7
		전문대졸 이하	4.7	12.6	18.0	17.9	38.5	8.3	51.5
		대 졸	3.9	12.3	28.8	27.9	19.7	7.4	47.0
		대학원 이상	6.1	12.0	37.6	12.8	27.5	4.0	45.4

주: 횡단면 가중치 부여 후 계산함.

〈표 7-7〉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9.2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12차 조사결과(61.3시간)보다는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1시간 이

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13차 조사결과 2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업원 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의 경우가 56.0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10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13.4시간 가량 짧은 42.6시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7〉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12차년도 (2009년)	산업	농림어업	2.1	32.0	15.7	18.8	24.0	7.5	46.5
		광공업	1.8	9.3	21.4	37.4	26.4	3.7	48.3
		건설업	1.0	9.1	12.6	45.2	27.2	4.9	49.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4	7.5	10.9	17.5	34.9	27.8	61.3
		운수통신업	0.5	9.8	17.6	24.3	32.1	15.6	53.7
		금융 및 부동산업	1.3	12.1	39.9	28.6	16.4	1.7	44.7
		공공서비스업	8.1	16.4	18.9	22.3	23.5	10.8	46.6
		가사서비스업	-	-	-	-	-	-	-
	종업원 규모	1~4인	1.4	8.2	14.6	27.0	31.1	17.8	55.5
		5~9인	-	6.5	22.0	31.7	24.3	15.5	53.6
		10인 이상	-	7.2	36.6	31.8	21.1	3.3	47.2
13차년도 (2010년)	산업	농림어업	2.7	31.3	24.1	17.1	20.2	4.7	43.7
		광공업	1.0	11.0	19.8	39.6	26.1	2.5	48.1
		건설업	-	12.4	25.7	29.0	31.4	1.8	48.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	6.8	11.0	17.7	42.9	20.3	59.2
		운수통신업	1.5	10.2	16.2	35.2	31.4	5.6	50.6
		금융 및 부동산업	1.8	8.1	43.5	28.5	16.5	1.7	45.0
		공공서비스업	7.5	13.7	21.7	21.2	27.1	8.8	47.5
		가사서비스업	-	-	-	-	-	-	-
	종업원 규모	1~4인	1.5	4.8	16.1	25.8	37.2	14.6	56.0
		5~9인	-	4.0	20.6	31.7	30.6	13.1	55.1
		10인 이상	2.2	3.7	66.4	20.9	5.1	1.7	42.6

주 :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표본수가 적어 건설업에 포함

제 3 절 근로소득

<표 7-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명목소득(이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지난 13년간 월평균 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32만 6천 원에서 2차년도에 128만원 3천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13차년도에 들어 280만 4천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 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3차년도의 여성 월평균 명목소득은 211만 1천원으로 남성(306만 8천원)의 68.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7-8> 월평균 소득 비교

(단위: 만 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차년도	132.6(0.026)	187.0(0.026)	149.2(0.030)	210.4(0.030)	88.5(0.042)	124.8(0.042)
2차년도	128.3(0.023)	179.5(0.023)	142.6(0.026)	199.5(0.026)	83.7(0.042)	117.1(0.042)
3차년도	144.9(0.027)	198.2(0.027)	160.6(0.029)	219.7(0.029)	95.8(0.062)	131.0(0.062)
4차년도	181.6(0.047)	238.7(0.047)	202.5(0.054)	266.2(0.054)	121.0(0.072)	159.1(0.072)
5차년도	214.8(0.042)	274.8(0.042)	237.3(0.047)	303.5(0.047)	144.3(0.092)	184.6(0.092)
6차년도	213.8(0.039)	264.2(0.039)	237.7(0.044)	293.7(0.044)	142.3(0.065)	175.8(0.065)
7차년도	246.5(0.049)	294.0(0.049)	275.1(0.056)	328.2(0.056)	154.0(0.068)	183.7(0.068)
8차년도	240.5(0.119)	279.2(0.119)	275.5(0.144)	319.8(0.144)	152.3(0.082)	176.8(0.082)
9차년도	251.7(0.067)	285.8(0.067)	282.2(0.082)	320.4(0.082)	173.2(0.066)	196.7(0.066)
10차년도	255.6(0.035)	283.1(0.035)	290.0(0.040)	321.1(0.040)	166.8(0.059)	184.7(0.059)
11차년도	274.2(0.040)	290.1(0.040)	305.5(0.048)	323.2(0.048)	194.1(0.058)	205.3(0.058)
12차년도	265.6(0.041)	273.5(0.041)	293.3(0.041)	302.0(0.041)	194.2(0.070)	199.9(0.070)
13차년도	280.4(0.038)	280.4(0.038)	306.8(0.045)	306.8(0.045)	211.1(0.059)	211.1(0.059)

주: 1) 실질소득=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10년=100).

2) 적자를 보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

3) 중단면가중치 적용.

4) () 안의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변동계수(CV)임.

〈표 7-9〉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 명목소득

(단위: %, 만 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2차년도 (2009년)	전 체		3.3	15.0	18.2	18.0	26.1	259.1
	연령	20~29세	6.3	19.1	18.2	7.5	18.6	199.6
		30~39세	3.9	6.2	20.3	28.2	27.0	264.5
		40~49세	2.3	7.7	14.3	20.4	34.6	322.3
		50~59세	4.6	9.8	20.2	18.1	27.7	274.2
		60세 이상	1.8	40.5	20.1	8.7	10.5	140.5
	학력	고졸 미만	3.0	24.2	20.7	12.7	11.8	171.0
		고 졸	3.1	11.5	18.5	20.4	27.7	253.7
		전문대졸 이하	6.7	5.9	16.2	17.2	34.0	304.1
		대졸 이하	2.8	7.3	15.6	24.5	42.6	367.3
		대학원 이상	3.0	1.8	20.1	20.4	54.8	396.0
13차년도 (2010년)	전 체		2.7	12.6	18.6	17.7	29.3	271.3
	연령	20~29세	1.8	15.8	13.2	27.8	17.7	242.3
		30~39세	2.0	3.8	22.1	21.6	37.0	292.6
		40~49세	3.0	6.7	11.9	20.8	37.6	335.1
		50~59세	2.9	7.4	21.0	17.7	30.7	289.3
		60세 이상	2.7	35.4	24.0	8.5	10.8	136.2
	학력	고졸 미만	2.0	20.8	24.4	13.7	11.9	172.6
		고 졸	2.2	8.5	17.4	22.5	30.5	263.1
		전문대졸 이하	3.7	7.0	19.6	14.6	37.0	319.4
		대졸 이하	3.7	7.1	14.4	16.4	50.8	385.7
		대학원 이상	11.8	8.1	5.5	28.4	43.7	429.5

주: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무응답 비중 미표시.

한편, <표 7-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별 월평균 소득액을 보면 40대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상에 분포하는 사람은 40대가 37.6%로 가장 많았고, 30대(37.0%)와 50대(30.7%)도 300만 원 이상에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반면 20대(27.8%)는 200만 원대, 60대(35.4%)는 100만 원 미만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 소득 및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졸 및 대학원 이상 학력을 가진 자영업자 및 고용주는 월평균 근로 소득이 300만원 이상에 각각 50.8%와 43.7%가 위치하고 있었던 반면, 고졸 미만은 단지 11.9%만이 300만 원 이상에 분포하고 있었다.

〈표 7-10〉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월평균 소득

(단위: %, 만 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만원)
			적 자	100만 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2차년도 (2009년)	산 업	농림어업	4.4	54.5	19.3	9.7	12.1	124.5
		광공업	3.9	8.3	12.3	20.2	55.2	369.3
		건설업	7.8	6.9	13.8	19.5	52.0	288.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3	15.8	23.5	20.1	36.4	277.0
		운수통신업	1.9	16.1	36.6	28.0	17.4	197.3
		금융 및 부동산업	4.7	10.7	21.8	32.2	30.6	261.1
		공공서비스업	3.3	15.1	24.6	28.3	28.7	271.0
		가사서비스업	-	-	-	-	-	-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7	22.2	22.0	17.2	17.7	183.7
		1~4인	4.9	3.5	12.3	19.0	37.4	351.3
		5~9인	1.8	0.7	3.0	11.4	54.8	542.3
		10인 이상	-	3.0	6.8	7.2	69.3	586.7
13차년도 (2010년)	산 업	농림어업	4.2	49.6	24.1	7.8	14.4	130.4
		광공업	3.8	5.6	19.9	18.9	51.9	346.2
		건설업	3.9	-	17.9	22.5	55.8	316.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2.2	12.5	23.1	21.1	41.2	289.7
		운수통신업	3.2	7.8	31.8	28.3	29.0	226.3
		금융 및 부동산업	5.6	9.2	17.6	33.3	34.3	297.1
		공공서비스업	3.6	15.1	23.0	24.7	33.6	289.2
		가사서비스업	-	-	-	-	-	-
	종업원 규모	0명(자영업자)	2.5	18.6	22.5	19.2	18.2	191.0
		1~4인	2.7	2.6	10.7	18.3	44.5	374.7
		5~9인	4.1	-	7.7	7.5	54.9	553.5
		10인 이상	3.7	2.0	3.7	9.3	72.4	538.0

주: 1) 월평균 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횡단면 가중치 적용. 무응답 비중 미표시

2) 전기가스 및 수도업은 표본수가 적어 건설업에 포함

<표 7-10>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광공업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346만 2천 원)이 가장 높으며, 건설업(316만 4천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191만원이며, 사업체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53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8차년도 조사부터 새롭게 추가된 적자액의 규모는 <표 7-11>에서 알 수 있다. 13차년도에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2%로 비교적 작은 비중을 보일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액의 평균은 165만 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범주별로는 100만 원 미만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응답한 비임금근로자는 절반에 가까운 49.8%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7-11>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적자액

(단위: %, 만 원)

	월평균 적자의 분포						월평균 적자액 (만 원)
	적자 아님	적자임	100만원 미만	100만~ 200만원 미만	200만~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2차년도 (2009년)	96.4	3.6	36.4	27.3	12.8	23.5	309.8
13차년도 (2010년)	96.8	3.2	49.8	31.1	7.8	11.3	165.6

주: 횡단면 가중치 적용.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 7)는 288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³⁷⁾,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7-12>를 통해 창업 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6.5%)보다는 83.7%가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가 고용주보다 창업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표 7-12>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12차년도 (2009년)	창 업	81.1	78.7	82.4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7.2	8.0	6.8
	기 타	11.7	13.3	10.8
13차년도 (2010년)	창 업	83.7	82.1	84.3
	가족 및 친지로부터 물려받음	6.5	8.0	6.0
	기 타	9.8	9.8	9.7

다음으로 창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표 7-13>을 통해 보면, 응답 대상자의 75.7%가 본인 또는 가족, 친지를 통해 사업 비용을 조달하였으며, 정부의 보조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72.1%,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18.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금조달 방식이나 그 비중은 고용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전체 및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7)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표 7-13〉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단위: %)

		전 체	고용주	자영업자
12차년도 (2009년)	본인 또는 가족, 친지	75.2	71.0	78.7
	동업자	3.9	7.9	0.4
	은행 등의 융자	18.4	21.0	16.1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1.6	-	3.1
	사채업자	-	-	-
	정부의 보조	-	-	-
	기 타	0.9	-	1.7
13차년도 (2010년)	본인 또는 가족, 친지	75.7	72.1	77.3
	동업자	3.9	6.9	2.5
	은행 등의 융자	18.8	18.2	19.0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1.0	0.5	1.1
	사채업자	-	-	-
	정부의 보조	-	-	-
	기 타	0.7	2.3	-

제 8 장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제8장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개체를 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얻는 자료이므로 동일한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는 지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패널자료가 아니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서 다른 자료들과 구분되는 패널자료의 특징적인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³⁸⁾ 노동시장은 특히 동태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노동시장 분석에서 패널자료의 이와 같은 장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8장은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10~13차에 모두 응답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있다. 모든 분석은 기준년도의 종단 가중치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2차년도에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가 13차년도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지를 분

38) 횡단면 자료에서 회고적 조사를 통해 패널조사와 유사한 추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고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회고기간이 길어질수록 회고오차의 문제는 더욱 커지므로 종단분석에 사용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석할 경우 12차년도 종단가중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8-1>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 제시된 값들은 흔히 이행확률들로 언급되고 있으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원래의 확률에 100을 곱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행확률을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10차년도에 취업상태에 있던 100명 가운데 다음 기인 13차년도에도 취업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의 수는 92.0명이며, 반면 실업으로 옮겨간 사람 수는 1.1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옮겨간 사람의 수는 6.9명이다. 이를 확률로 해석해도 좋다. 즉 취업에서 실업으로 이행확률은 0.011이며 취업 지속확률은 0.920이다.

표에서 보듯이 취업상태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이전 차수들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12차년도와 13차년도에서 취업상태를 유지(취업→취업)할 가능성 91.7%는 이전의 92.0%(10차→11차), 91.7%(11차→12차)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행가능성은 7.2%로 이전의 6.9%(10차→11차), 6.4%(11차→12차)와 유사하다. 또한 실업으로 이행 가능성은 1.1%로 10차에서 11차로의 이행 가능성 1.1%와 11차에서 12차로의 이행가능성 1.9%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1>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0차 → 11차	11차 → 12차	12차 → 13차
취업	취업	92.0	91.7	91.7
	실업	1.1	1.9	1.1
	비경제활동	6.9	6.4	7.2
실업	취업	51.5	47.2	54.0
	실업	15.6	19.0	9.8
	비경제활동	32.9	33.8	36.2
비경제활동	취업	9.7	10.1	11.4
	실업	1.7	1.7	1.1
	비경제활동	88.6	88.2	87.5

실업상태에 있었던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는 취업상태의 변화에 비해 약간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12차에서 13차로 실업에 계속

머물 가능성(9.8%)은 이전 차수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상태로의 변화는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은 12차→13차에서 54.0%로 11차→12차의 이행가능성 47.2%, 10차→11차의 이행가능성 51.5%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변화는 취업 상태 변화와 유사하게 매우 안정적이다. 표에서 보듯이 비경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은 11.4%로 10차→11차의 이행가능성 9.7%, 11차→12차의 이행가능성 10.1%에 비해 약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으로의 이동은 1.7%로 전기의 1.1%에 비해 약간 낮아졌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 비경제활동상태에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87.5%로서 10차→11차(88.6%), 11차→12차(88.2%)에 비해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이러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표 8-2>가 이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은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에 있어 매우 구분되는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현상들이다. 즉 취업상태에서의 변화에 있어서 여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남성의 경우에 비해 낮은 반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취업지속 가능성은 12차→13차의 경우 93.6%인데 여성의 경우는 89.1%에 불과하다. 반면 비경제활동으로 이동은 여성의 경우 10.1%로서 남성 5.2% 보다 훨씬 크다. 그러나 취업지속 가능성을 전기와 비교하면, 남성은 10차→11차(94.8%)와 11차→12차(94.2%)에 이어 감소하였다. 반면에 여성은 10차→11차(88.9%)와 11차→12차(88.9%)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실업상태에서 변화를 보면 여성의 경우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이행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매우 높은 반면, 취업으로의 이행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다. 표에서 보듯이 12차→13차에서 여성이 실업에서 비경활로의 이동은 41.4%로서 남성의 32.4%에 비해 매우 크다. 반면 여성의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행은 12차→13차에서 48.6%로서 남성의 57.9%에 비해 낮다. 이와 같이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이 취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쉽게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경향은 전기인 10차→11차와 11차→1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특징으로서, 여성 노동시장 동학의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성의 강한 비경제활동화 경향은 여성 노동력이 갖는 매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는 그대로 머무는 경향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다소 더 크게 나타난다. 표에서 보듯이 12차→13차에서 여성의 비경제활동 지속 경향은 88.5%로서 남성의 85.0% 보다 높다. 반면 비경활상태에 있는 여성의 실업 이행률은 0.9%으로서 남성의 1.8% 보다 낮다. 즉 여성은 비경활상태에 계속 머무는 경향이 남성보다 강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실업에 포착될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다.

〈표 8-2〉 성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0차 → 11차	11차 → 12차	12차 → 13차
남성	취업	취업	94.8	94.2	93.6
		실업	1.1	2.0	1.2
		비경제활동	4.1	3.8	5.2
	실업	취업	59.6	61.9	57.9
		실업	16.7	16.5	9.6
		비경제활동	23.8	21.6	32.4
	비경제활동	취업	11.7	12.9	13.2
		실업	2.7	3.0	1.8
		비경제활동	85.6	84.1	85.0
여성	취업	취업	88.9	88.9	89.1
		실업	1.0	1.6	0.8
		비경제활동	10.1	9.5	10.1
	실업	취업	45.5	31.1	48.6
		실업	11.5	22.7	10.0
		비경제활동	43.0	46.2	41.4
	비경제활동	취업	9.1	9.3	10.6
		실업	1.2	1.2	0.9
		비경제활동	89.7	89.5	88.5

이번에는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연령별로 살펴보았는데, <표 8-3>에서 이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이행률들의 변화가 매우 급격한 경우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미만의 실업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 각 년도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30대의 경우에도 역시 실업 상태에서 다른 노동력 상태로의 이행을 변화가 급격한데, 이는 다른 연령대에서도 대체로 유사하다.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는 경우는 예외 없이 실업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유수의 패널조사들과 마찬가지로 노동패널 역시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표본의 규모가 크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들의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개의 연령집단들로 구분함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규모가 작은 실업에 해당하는 표본의 수는 매우 작게 된다. 이 경우 이행자 수에서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이행률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연령집단들의 이행을 급변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3〉 연령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0차 → 11차	11차 → 12차	12차 → 13차
30세 미만	취업	취업	88.0	86.4	87.7
		실업	1.5	4.1	2.3
		비경제활동	10.5	9.5	10.0
	실업	취업	40.2	53.3	60.0
		실업	27.2	18.6	14.7
		비경제활동	32.6	28.1	25.3
	비경제활동	취업	12.7	12.5	16.0
		실업	2.2	2.9	2.6
		비경제활동	85.1	84.6	81.4
30대	취업	취업	93.0	93.9	95.4
		실업	1.4	1.5	0.9
		비경제활동	5.6	4.6	3.7
	실업	취업	63.4	49.1	59.9
		실업	7.9	15.6	5.3
		비경제활동	28.6	35.3	34.8
	비경제활동	취업	15.4	15.7	15.4
		실업	2.9	1.9	0.5
		비경제활동	81.7	82.4	84.1

	이전상태	이후상태	10차 → 11차	11차 → 12차	12차 → 13차
40대	취업	취업	94.4	93.8	94.9
		실업	1.1	1.5	0.6
		비경제활동	4.5	4.7	4.5
	실업	취업	68.5	54.2	57.5
		실업	16.9	23.7	2.1
		비경제활동	14.6	22.1	40.4
	비경제활동	취업	16.4	17.2	20.6
		실업	1.7	1.8	2.0
		비경제활동	81.9	81.0	77.4
50대	취업	취업	92.8	92.0	90.4
		실업	0.7	1.4	1.3
		비경제활동	6.5	6.6	8.3
	실업	취업	40.3	17.2	42.3
		실업	2.9	19.0	16.7
		비경제활동	56.8	63.8	41.0
	비경제활동	취업	8.0	9.2	13.9
		실업	2.2	1.8	0.4
		비경제활동	89.8	89.0	85.7
60세이상	취업	취업	86.6	87.6	82.8
		실업	0.5	1.3	0.1
		비경제활동	12.9	11.1	17.1
	실업	취업	37.3	37.0	20.4
		실업	8.2	17.5	0.0
		비경제활동	54.5	45.5	79.6
	비경제활동	취업	2.7	3.9	2.7
		실업	0.4	0.5	0.5
		비경제활동	96.9	95.6	96.8

연령집단별로 이행률을 비교하여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취업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30대 및 40대에서 가장 높고 이 연령대에서 멀어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취업지속 가능성이 12차→13차에 82.8%로서 가장 낮다. 반면 30대가 취업상태에서 계속 머물 확률은 95.4%로 높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94.9%, 50대가 90.4%의 취업지속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30세 미만의 취업 지속가능성은 87.7%로 60세이상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기에 가장 낮은 86.4%에서 약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탈출은 30세 미만에서 60.0%로 가장 높은

데, 연도가 지나면서 실업 탈출 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연령이 증가하면서 실업 탈출 확률은 낮아지고 있는데, 30대는 59.9%, 40대는 57.5%, 50대는 42.3%, 60세 이상은 20.4%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실업상태에서 비경활로의 이동성은 30세 미만에서 가장 낮은 25.3%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으로 30대 34.8%, 40대 40.4%, 50대 41.0%, 60세 이상 79.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 가능성은 40대에서 2.1%로 가장 낮았다³⁹⁾. 30세 미만의 실업 유지 가능성이 14.7%로 50대(16.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세 미만의 장기취업준비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령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매우 역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취업이나 실업 또는 비경활에서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다른 노동력상태로 손쉽게 이동하고 있어서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8-4>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시간에 걸친 경제활동상태 변화를 학력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기에 비해 학력에 무관하게 취업지속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이전 차수에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지속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2차→13차 조사에서는 이 현상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상태에 계속 머물 확률은 과거 학력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10차→11차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지난 보고서에서 이미 본 바 있다. 표에서 보듯이 실업지속 가능성은 중졸이하에서 5.3, 고졸에서 6.1, 전문대졸에서 11., 대졸이상에서 5.3으로 전문대졸을 제외하고는 전기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졌다. 중졸이하의 10차→11차의 수치와 비슷하고, 전문대졸은 10차→11차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

39) 실제로는 60세 이상의 실업상태 계속 가능성이 0.0%로 가장 낮지만, 60세 이상에서 실업유지자가 전혀 없어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 계급에 속하는 대상이 너무 작아서 생기는 결과이므로 각 통계에 대한 비율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4> 학력별 경제활동상태 변화

(단위: %)

	이전상태	이후상태	10차 → 11차	11차 → 12차	12차 → 13차
중졸이하	취업	취업	91.1	89.3	94.6
		실업	0.9	0.0	1.5
		비경제활동	8.0	10.7	3.9
	실업	취업	37.2	0.0	49.9
		실업	5.6	0.0	22.7
		비경제활동	57.2	0.0	27.4
	비경제활동	취업	4.3	2.4	16.5
		실업	0.8	0.2	0.6
		비경제활동	94.9	97.4	82.9
고졸	취업	취업	91.0	89.5	83.2
		실업	1.5	1.7	1.0
		비경제활동	7.4	8.8	15.8
	실업	취업	47.7	34.0	0.0
		실업	18.4	25.0	0.0
		비경제활동	33.9	41.0	100.0
	비경제활동	취업	15.1	5.9	2.7
		실업	2.7	1.0	0.0
		비경제활동	82.2	93.0	97.3
전문대졸	취업	취업	93.5	91.3	89.7
		실업	1.2	1.9	1.0
		비경제활동	5.2	6.8	9.2
	실업	취업	66.9	46.9	48.7
		실업	7.1	17.1	11.1
		비경제활동	26.0	36.0	40.2
	비경제활동	취업	16.7	14.5	7.8
		실업	3.0	3.6	0.7
		비경제활동	80.3	81.9	91.5
대졸이상	취업	취업	93.8	93.0	91.2
		실업	0.5	2.8	1.3
		비경제활동	5.7	4.2	7.5
	실업	취업	60.6	68.7	51.2
		실업	26.7	13.8	12.2
		비경제활동	12.7	17.5	36.6
	비경제활동	취업	15.0	14.7	16.8
		실업	2.2	1.0	2.1
		비경제활동	82.8	84.3	81.1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머물 확률은 고졸이 9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91.5%, 중졸이하가 82.9%, 대졸이상이 81.1%로 나타났다. 전기와 비교하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졸과 전문대졸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집필자

천 영 민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 형 아 (한국고용정보원 책임연구원)

권 순 범 (한국고용정보원 과장)

이 상 희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조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3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

발행일 2012년 12월

발행인 정철균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T. 02 · 2629 · 7000

※ 저작권법에 의해 허락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331-443-3 93330